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工學碩士學位論文

컨버전된 미술관을 통한 장소의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igurating the Place in
Converted Contemporary Museums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홍 정 희

컨버전된 미술관을 통한 장소의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igurating the Place in
Converted Contemporary Museums

지도교수 김 광 현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홍 정 희

홍정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전봉희 (인)

부 위 원 장 金光鉉 (인)

위 원 백 진 (인)

국 문 초 록

컨버전된 미술관을 통한 장소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홍 정 희
지도교수 김 광 현

성장과 확대 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라 현대도시는 그동안 양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를 향상시켜 왔다. 이러한 개발은 철거와 신축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도시환경의 물리적 조건은 충족되었으며,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인 도시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의 질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뜻한다. 따라서 사람과 관계맺는 도시의 환경이 중요해진다. 사람과 물리적 환경의 관계맺음은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소는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 의미, 공동의 가치 등이 '쌓여' 인간을 외부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배경이다. 따라서 장소는 시간에 무관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를 형성하게 된 단 하나의 지점이다.

장소를 이용하여 현대도시의 질을 높이는 건축적 방법의 하나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컨버전이 주목된다. 컨버전은 인간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 형태인 건축물을 통해 현대적 도시 안에 위치시키며, 시간의 폭이

넓지 않아 인간과 충분한 관계를 맺지 못한 현대도시 안에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초점을 형성한다. 여러 시대와 용도로 사용되었던 도시 곳곳의 건축물들은 컨버전에 의해 새로운 용도와 의미를 획득하여 시간의 깊이를 만들어나가고 인간과 관계를 맺을 장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컨버전된 건축물이 장소를 구성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장소 만들기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미술관으로 컨버전되는 건축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초기의 컨버전된 미술관과 현재에 컨버전된 미술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통된 방법과 효과, 그리고 새로운 경향과 의의를 도출하고 현대도시에서 컨버전이 장소를 구성하는 건축적 방법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컨버전, 재생, 미술관, 장소, 시간, 용도, 영역
학　번 : 2012-20570

목 차

1.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4
1.3 연구의 흐름 ····· 6

2. 컨버전을 통한 새로운 장소의 구축 ····· 7
2.1 현대 도시의 장소적 가능성 ····· 8
2.1.1 장소의 의미 ····· 8
2.1.2 현대도시에 요구되는 시간의 다양성 ····· 11
2.2 컨버전의 의미와 가치 ····· 16
2.2.1 컨버전의 의미 ····· 16
2.2.2 용도를 포함하는 컨버전의 특수성 ····· 17
2.3 컨버전의 장소적 특성 ····· 20
2.2.1 서로 다른 시간의 공존 ····· 21
(1) 역사적 시간의 흔적 ····· 22
(2) 과거와 현재의 연결 ····· 25
(3) 단절된 시간의 대비 ····· 27
2.2.2 용도의 변화 ····· 30
(1) 건축형태의 변형 ····· 36
(2) 내부구조물의 설치 ····· 38
(3) 건축형태의 원형유지 ····· 40

2.2.3 내, 외부 경계변화에 의한 영역의 확장 ····· 43
(1) 물리적 영역의 확장 ····· 45
(2) 사회적 영역의 확장 ····· 46

3.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통한 분석의 틀 설정 ····· 51
3.1 과거를 연속시키는 건물의 물리적 요소 ····· 53
3.1.1 병영건물의 공간구성 변화 ····· 53
(1) 역사적 공간구성 ····· 53
(2) 변화된 평면과 관람동선 ····· 55
3.1.2 표면의 역사적 단계 표현 ····· 56
(1) 벽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 ····· 56
(2) 적층된 표면 ····· 58
(3) 교차하는 벽 ····· 60
(4) 벽과 바닥 사이의 틈 ····· 61
3.1.3 다양한 재료의 병치 ····· 63
(1) 지붕재료의 시대적 대비 ····· 63
(2) 질감의 연속적 배치 ····· 65
3.2 상설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의 변화 ····· 66
3.2.1 전시의 배경이 되는 벽, 바닥, 천장 ····· 66
(1) 벽면의 변화 ····· 66
(2) 천장과 바닥면의 변화 ····· 70
3.2.2 작품전시를 위한 벽과 바닥 수정 ····· 73
(1) 매스의 추가 ····· 73
(2) 공간의 수직적 통합 ····· 75

3.2.3 채광을 위한 구조체의 변형 ····· 83
(1) 유리 스크린의 레이어링 ····· 83
(2) 측광의 각도 조절 ····· 85
(3) 북동측 벽의 부분적 제거 ····· 87
3.3 외관변화를 통한 시각적 확장 ····· 90
3.3.1 역사적 형태의 부분적 절개 ····· 90
3.3.2 주변경관을 반영하는 재료 사용 ····· 92
3.4 소결 ····· 93

4. 현대 미술관 컨버전 방식의 다양화 ····· 97
4.1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 98
4.1.1 과거를 회상시키는 행위와 빌딩타입의 차이 ····· 98
(1) 과거 빌딩타입의 유지 ····· 99
(2) 현대적 평면의 개입 ····· 102
4.1.2 서로 다른 시간을 중첩시키는 표면 ····· 106
(1) 역사적 표면의 보존 ····· 106
(2) 다른 성질의 표면 사용 ····· 109
4.1.3 시간의 경계를 표현하는 재료 ····· 114
(1) 역사적 재료 드러내기 ····· 114
(2) 현대적 상징성 발현 ····· 116
4.2 전시를 위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 120
4.2.1 작품해석의 요소로 이용되는 벽면 ····· 120
(1) 균질한 색과 질감을 갖는 벽 ····· 120
(2) 역사적 벽의 부분적 보존 ····· 123
(3) 역사적 벽의 원형 유지 ····· 126

4.2.2 다양한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볼륨 조절 ····· 129
(1) 과거의 구성 유지 ····· 129
(2) 공간의 볼륨 변화 ····· 131
4.2.3 균일한 채광을 위한 개구부 수정 ····· 134
(1) 천창 설치 ····· 134
(2) 벽과 바닥 제거 ····· 136
4.3 미술관을 도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방식 ····· 140
4.3.1 시각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외관의 변화 ····· 140
4.3.2 광역적 연결계획을 통한 물리적 영역의 확장 ····· 143
4.3.3 지속성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삽입 ····· 146

5. 컨버전된 현대 미술관의 장소 재구성 ····· 151
5.1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장소 ····· 152
5.2 지속가능한 변화의 장소 ····· 156
5.3 외부로 확장되는 도시적 장소 ····· 159

6. 결 론 ····· 161

참고문헌 ····· 163

Abstract ····· 166

<그림 차례>

2장

[그림 2-1] 건물에 남겨진 내전의 흔적 ····· 9
[그림 2-2] 대오서점의 외관 ····· 10
[그림 2-3] 과거를 상기시키는 대오서점 내부의 공간구성과 책배치 ····· 10
[그림 2-4]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다양한 층위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대학로 ··· 12
[그림 2-5] 오래된 형태에 증축된 커튼월 매스 ····· 14
[그림 2-6] 오래된 공장과 새로운 건물이 함께 보이는 첼시지역 ····· 15
[그림 2-7] 컨버전을 통한 건물의 세 가지 단계 ····· 16
[그림 2-8] 컨버전에 의한 세 가지 요소들의 변화 ····· 20
[그림 2-9] 파도바, 재판소 ····· 21
[그림 2-10] 재료와 형태의 중첩을 통한 시간성의 발현 ····· 22
[그림 2-12] 개구부의 흔적 ····· 23
[그림 2-11] 홍대앞 투썸 플레이스의 컨버전 이전과 이후 ····· 23
[그림 2-12] 개구부의 흔적 ····· 23
[그림 2-13] De Bijenkorf Depart -ment Store 과거 ····· 24
[그림 2-14] De Bijenkorf Department Store 현재 ····· 24
[그림 2-15] 물성에 따른 건축물의 인지 방법 ····· 24
[그림 2-16] 성북동 Mobel Lab 전경 ····· 25
[그림 2-17] Castello di Piombino의 아치와 브릿지 ····· 25
[그림 2-18] Cultural Center in Toledo, Spain ····· 26
[그림 2-19] Cultural Center in Toledo의 입구부 테라스 ····· 26
[그림 2-20] retirement home, Jean Nouvel, France ····· 28
[그림 2-21] retirement home 1층 평면도 ····· 29
[그림 2-22] Bibliothek Luckensalde. 기존 건물과 대비되는 황금색의 매스 ····· 29
[그림 2-23] 의자로 사용되는 한옥의 도리 ····· 30
[그림 2-25] 1425년경부터 현재까지의 ····· 32
[그림 2-26] 아를의 원형극장 ····· 34
[그림 2-27] 루카의 원형극장 ····· 34
[그림 2-28] 과거의 루드허 교회 ····· 36
[그림 2-29] 외부가 된 실내 예배당 ····· 36
[그림 2-30] Niccolo Paganini 오디토리움 ····· 38

[그림 2-31] Selexyz Dominicanen Bookstore ····· 39
[그림 2-32] 컨버전 이전의 Bastard store ····· 40
[그림 2-33] 컨버전 이후 Bastard store ····· 40
[그림 2-34] Duisburg-Nord Park. 암벽등반에 사용되는 야외벙커 ····· 41
[그림 2-35] Duisburg-Nord Park. 다이빙센터로 사용되는 가스탱크 ····· 41
[그림 2-36] 복잡한 길로 이루어진 1933 내부 ····· 42
[그림 2-37] 컨버전을 통한 지역적 영역의 확장 ····· 43
[그림 2-38] High Line. Access Points ····· 46
[그림 2-39]High Line 하부 모습 ····· 46
[그림 2-40] Le Fresnoy Art Center ····· 47
[그림 2-41] The Young Vic Theatre ····· 48
3장
[그림 3-1]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의 각부 명칭과 영역구분 ····· 52
[그림 3-2] 카스텔베키오 평면의 변화 ····· 53
[그림 3-3] 카스텔베키오 정면 파사드의 변화 ····· 53
[그림 3-4] 스카르파 작업 후의 새로운 전시 동선 ····· 54
[그림 3-5] 일층 내벽의 변화 ····· 55
[그림 3-6] 일층 북측통로 ····· 55
[그림 3-7] 회벽칠을 제거한 코뮌 벽 ····· 56
[그림 3-8] 레지아 내벽의 변화 ····· 56
[그림 3-9] 정면 파사드의 표면을 벗겨낸 부분 ····· 58
[그림 3-10] 칸그란데 공간에서 교차하는 벽 ····· 60
[그림 3-11] 로지아의 콜로네이드 기초 ····· 61
[그림 3-12] 역사적 지층을 드러내는 표면 사이의 틈 ····· 62
[그림 3-13] 칸그란데 공간 지붕의 하부구조 ····· 63
[그림 3-14] 구리와 타일의 중첩 ····· 64
[그림 3-15] 칸그란데 공간에서 재료의 병치 ····· 65
[그림 3-16] 지상층과 일층 벽의 질감을 보여주는 성분 표 ····· 67
[그림 3-17] 일층 천장의 변화 ····· 70
[그림 3-18] 거꾸로 본 지상층 갤러리의 바닥 ····· 71
[그림 3-19] 지상층 갤러리의 천장 ····· 71
[그림 3-20] 칸그란데 공간과 조각 갤러리의 페이빙과 동선의 방향 ····· 72
[그림 3-21] 천창의 빛을 받은 사첼로 ····· 73

[그림 3-22] 다섯 번째 방에서 지금의 칸그란데 공간을 바라본 모습 ····· 75
[그림 3-23] 칸그란데상의 뷰포인트 ····· 77
[그림 3-24] 변경 전의 2층 통로 ····· 78
[그림 3-25] 작업 후의 2층 통로 ····· 78
[그림 3-26] 일층 테라스 초기안 ····· 79
[그림 3-27] 칸그란데 공간의 일층레벨 동선과 유리스크린을 통한 확장 ····· 80
[그림 3-28] 칸그란데 공간의 변화 요소 ····· 82
[그림 3-29] 깊고 부드러운 조각 갤러리의 음영 ····· 83
[그림 3-30] 유리 스크린의 레이어링 ····· 83
[그림 3-31] 지상층 유리스크린의 효과 ····· 85
[그림 3-32] 빛을 활용하는 작품의 배치. 레지아 ····· 86
[그림 3-33] 북동쪽 외벽의 스터디 과정 ····· 87
[그림 3-34] 절개 전과 후의 채광조건 변화 ····· 88
[그림 3-35] 절개 후의 지상층과 일층의 평면 ····· 88
[그림 3-36] 병영건물 시기와 아베나 시기의 건물 형태 ····· 90
[그림 3-37] 스카르파 작업 이후 ····· 90
[그림 3-38] 주변 맥락 속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 ····· 92
[그림 3-39] 아디제강 - 구리지붕 - 기와지붕 ····· 92
4장
[그림 4-1] Mosque-Cathedral of Cordoba ····· 98
[그림 4-2] 과거의 터빈 홀 ····· 99
[그림 4-3] 과거의 보일러 홀 ····· 99
[그림 4-4] 테이트 모던2 매스의 도출 과정 ····· 100
[그림 4-5] 평면을 변형시키지 않는 동선축 삽입 ····· 101
[그림 4-6] 보존된 기존 건물의 형태와 평면 ····· 101
[그림 4-7] 컨버전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 101
[그림 4-8] 카이사 포럼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 102
[그림 4-9] 과거의 전력소 모습 ····· 102
[그림 4-10] 컨버전 이후 변화된 공간구성 ····· 103
[그림 4-11] 컨버전 이전과 동일한 입면구성 ····· 104
[그림 4-12] 평면구성의 변화 ····· 104
[그림 4-13] 보로스 미술관의 표면에 보존된 역사적 흔적 ····· 106
[그림 4-14] 798 space 갤러리 내부의 혁명 표어 ····· 107

[그림 4-15] 벽, 바닥, 천장이 남겨진 모습 108
[그림 4-16] 소극장의 오래된 무대배경 108
[그림 4-17] 근대와 현대의 대비적 면 특성 109
[그림 4-18] 아치 개구부와 직사각형 개구부의 대비 110
[그림 4-19] Caixa Forum의 서로 다른 입면 병치 110
[그림 4-20] 선사시대, 로마시대, 현대의 벽이 병치되어 있는 모습 111
[그림 4-21] 유리벽에 반사되어 중첩되는 역사적 면과 현재의 면 113
[그림 4-22] 기존 재료와 유사한 재료 사용 114
[그림 4-23] 재활용된 징크 방화문 115
[그림 4-24] 계단과 벽이 된 과거 요소 115
[그림 4-25] 벽돌-유리-코르텐 스틸 116
[그림 4-26] 플라스터, 석재, 유리, 철재의 병치 117
[그림 4-27] 마크 로코전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벽 121
[그림 4-28] 백색의 벽을 배경으로 한 모네의 작품 121
[그림 4-29] 미니멀한 바닥과 벽을 배경으로 한 121
[그림 4-30] 배경-작품-전시의 관계 122
[그림 4-31] 화이트 큐브 전시관 122
[그림 4-32] 파란색으로 바뀐 벽 122
[그림 4-33] 다양한 가벽과 부스를 수용하는 123
[그림 4-34] 남겨진 천장과 개구부 디테일 124
[그림 4-35] 기존 건물의 요소와 작품과의 관계 124
[그림 4-36] 백색의 벽을 이용하는 작품 125
[그림 4-37] 작품의 아우라를 드러내는 역사적 벽 125
[그림 4-38] 부분적으로 남겨진 흔적과 함께 읽히는 사진작품 126
[그림 4-39] Castelgrande 유물 전시관 127
[그림 4-40] 전위적 설치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장의 벽, 바닥, 천장 128
[그림 4-41] 지하 일층 레벨로 낮춘 터빈홀의 슬라브 129
[그림 4-42] Carsten Höller, 129
[그림 4-43]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3 130
[그림 4-44] 오일탱크에서 열리는 공연 130
[그림 4-45] 오일탱크였던 As Found 갤러리 131
[그림 4-46] 볼륨의 변화가 나타나는 보일러홀 131
[그림 4-47] 공간 구성의 변화 132

[그림 4-48] 기존 볼륨을 유지한 전시공간 ····· 132
[그림 4-49] 수직, 수평적으로 통합된 전시공간 ····· 132
[그림 4-50] Santiago Sierra의 설치 작품 ····· 133
[그림 4-51] 컨버전 이후 변화한 공간의 볼륨 ····· 133
[그림 4-52] 보로스 미술관의 천창 ····· 134
[그림 4-53] 테이트 모던의 천창 ····· 134
[그림 4-54] Valladolid 국립 조각 미술관의 천장 채광 방식 ····· 135
[그림 4-55] 기울어진 유리를 보여주는 창문의 단면 ····· 136
[그림 4-56] 유리판 안쪽의 구멍 뚫린 코르텐스틸 스크린 ····· 136
[그림 4-57] 공간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채광통 ····· 136
[그림 4-58] 램프지붕과 중정 슬라브의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 137
[그림 4-59] 발전소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 141
[그림 4-60] 주변의 지붕형상과 비슷한 Caixa Forum의 상부 매스 ····· 141
[그림 4-61] Caixa Forum의 형태 분석 ····· 142
[그림 4-62] 사우스뱅크와 사우스워크를 이어주는 동선축 ····· 143
[그림 4-63] Caixa Forum 유입동선 ····· 144
[그림 4-64] 돌로 막힌 문 ····· 145
[그림 4-65] 테이트 모던의 층별 프로그램 ····· 146
[그림 4-66] Caixa Forum 층별 프로그램 ····· 147
[그림 4-67]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중정과 로비 ····· 149

<표 차례>

[표 2-1] 일본건축학회의 관련용어 정의 ····· 19
[표 2-2] 기존 건물의 형태와 현대적 요소가 만나는 방식 ····· 30
[표 3-1] 벽, 바닥, 천장의 변화 ····· 69
[표 3-2] 칸그란데 공간의 변화와 효과 ····· 82
[표 3-3] 장소를 재구성하는 요소의 도출 ····· 95
[표 4-1] 현대미술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 ····· 119
[표 4-2] 미술관으로 컨버전되는 방식 ····· 139
[표 4-3] 건물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식 ····· 150
[표 5-1]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공간구성의 활용 ····· 152
[표 5-2]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표면의 활용 ····· 153
[표 5-3]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재료의 활용 ····· 154
[표 5-4]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벽면의 변화 ····· 156
[표 5-5]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공간볼륨의 변화 ····· 157
[표 5-6]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전시채광을 위한 변화 ····· 158
[표 5-7] 현대 미술관 컨버전의 경계 확장 ····· 159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연구의 흐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미 건물이 포화상태를 이룬 현대 도시는 산업, 문화, 자본 등의 사회적 요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목적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물의 철거와 신축, 더 넓게는 지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도시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의 맥락을 삭제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계획 방식은 그 장소에 쌓인 시간과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1] 철거와 재개발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 그로 인한 경관, 삶의 활기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소와 인간 사이의 연결을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과 도시의 맥락을 지속시키며 그 안에서 새로운 다양성을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재사용이 중요해지며 특히, 건물의 사용목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용도 변화에 유동적인 건물의 컨버젼 작업이 필수적이다.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인 컨버젼된 건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행위를 과거 건물, 나아가 그것에 쌓인 시간과 연결시키고 일상적 행위 속에서 인간과 다시금 관계를 맺은 건물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장소감을 창출한다.

컨버전 작업은 시간에 대해 완결적인 신축건물이 특정 용도를 위한 물리적 공간의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시간, 용도, 장소의 개념을 건축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컨버젼 작업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

1) “대도시의 보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랍고 흥미진진한 광경은 오래된 지구가 새로운 지구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이다. 장인의 진열실로 바뀐 연립주택 거실, 주택으로 바뀐 마구간, 이민자 클럽으로 변신한 지하실, 극장으로 변신한 차고나 양조장, 복층 아파트의 지층으로 변신한 미장원, 중국음식 공장으로 변신한 창고, 소책자 인쇄소로 변신한 댄스 교습소, 유리창을 예쁘게 칠한-가난한 사람들의 스테인드글라스이다.-교회로 변신한 구두 수선집, 레스토랑으로 변신한 정육점 등등. 이러한 변신이야말로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도시 지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소한 변화이다.“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p266

미래까지 포함하는 시간의 연결, 새로운 행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물과 주변맥락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컨버젼 작업을 통해서 건축의 영역은 확대된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에서 대두되는 건축물의 컨버컨이 갖는 차별성과 가능성을 그것이 갖는 시간, 용도, 장소감에서 찾으며 이것이 건축적 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현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컨버전된 건물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간, 용도, 장소감을 실현하기 위한 컨버전된 건물만의 건축적 방법과 그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컨버전된 건물의 특성을 규명하고 컨버전 작업을 이에 따라 분류 고찰하는 작업은 자기 완결적인 현대 도시의 건축을 시간, 용도, 장소의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앞으로의 컨버젼 작업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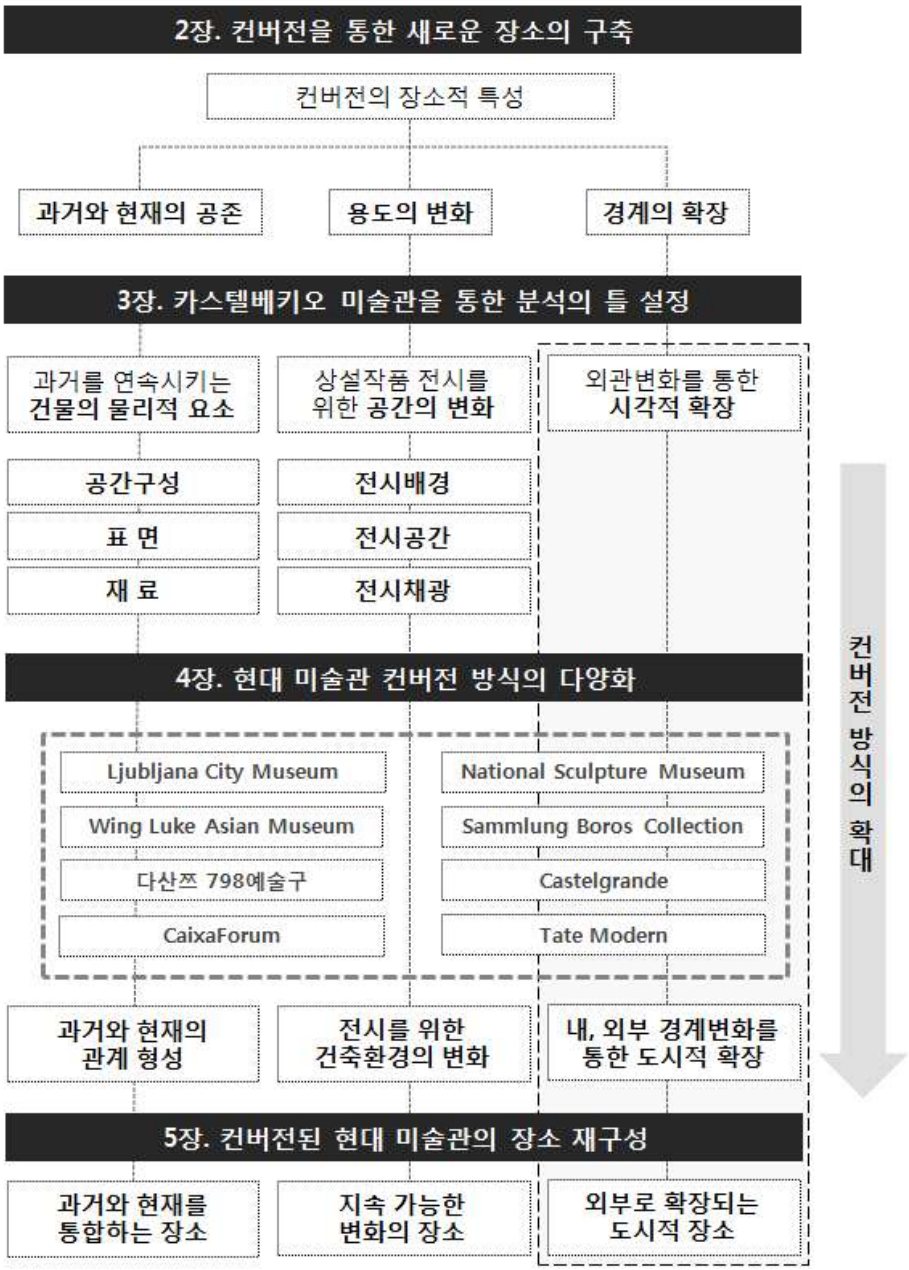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컨버전된 건축물이 새로 삽입되는 용도에 따라 시간, 용도,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미술관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다른 용도 건물에서와 달리, 미술관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축적된 흔적은 전시의 배경 등 용도와 직결되는 공간구성 요소로 사용되며 공간을 통한 강한 경험적 특성은 작품의 해석과 직결된다. 또한 기존 건물의 형태는 미술관의 기능적 요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술관을 통해서 컨버전의 주요 특성인 시간, 용도, 장소를 가장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점점 증가하는 컨버전 사례의 대다수가 예술 관련 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그 중 미술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미술관은 도시재생이 대두되었던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도 쇠퇴한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거나 지역 전반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영향력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미술관 컨버전 작업을 통해 건물의 내부적 특성뿐만 아닌 경계와 장소성의 변화도 분석할 수 있다.

컨버전된 현대 미술관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살펴본 후, 폭넓은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 미술관을 위한 컨버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 디자인의 일환으로 컨버전이 대두되기 시작한 때는 20세기 후반이며 이 시기에 유럽건축에서 컨버전을 주장한 핵심인물은 스카르파와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가 대표적이다. 두 건축가 모두 오늘날에 이르는 전후 시대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중 현대건축에 반하여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관한 더 많은 작업과 연구 자료를 남긴 스카르파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통해 사례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컨버전의 특수성과 가능성을 시간, 용도, 장소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2장),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

석하여 4장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도출한다. 3장의 분석 결과는 컨버전된 미술관이 시간, 용도, 장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이용하는지 보여준다(3장). 도출된 분석의 틀을 토대로 컨버전된 다양한 현대 미술관을 분석하고(4장), 앞으로 컨버전을 통해 현대 미술관이 새로운 가능성과 독자성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을 제시한다(5장).

1.3 연구의 흐름


2장. 컨버전을 통한 새로운 장소의 구축
컨버전의 장소적 특성
과거와 현재의 공존
용도의 변화
경계의 확장
3장.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통한 분석의 틀 설정
과거를 연속시키는 건물의 물리적 요소
상설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의 변화
외관변화를 통한 시각적 확장
공간구성
표 면
재 료
전시배경
전시공간
전시채광
4장. 현대 미술관 컨버전 방식의 다양화
Ljubljana City Museum
Wing Luke Asian Museum
다산쯔 798예술구
CaixaForum
National Sculpture Museum
Sammlung Boros Collection
Castelgrande
Tate Modern
과거와 현재의 관계 형성
전시를 위한 건축환경의 변화
내, 외부 경계변화를 통한 도시적 확장
5장. 컨버전된 현대 미술관의 장소 재구성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장소
지속 가능한 변화의 장소
외부로 확장되는 도시적 장소
컨버전 방식의 확대

제 2 장
컨버전을 통한 새로운 장소의 구축

2.1 현대 도시의 장소적 가능성
2.1.1 장소의 의미
2.1.2 현대도시에 요구되는 시간의 다양성
2.2 컨버전의 의미와 가치
2.2.1 컨버전의 정의
2.2.2 용도를 포함하는 컨버전의 특수성
2.3 컨버전의 장소적 특성
2.2.1 서로 다른 시간의 공존
2.2.2 용도의 변화
2.2.3 내, 외부 경계변화에 의한 영역의 확장

2.1 현대 도시의 장소적 가능성

2.1.1 장소의 의미

"공간은 인간을 위한 여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간은 인간을 위한 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간이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개념 안에 있는 공간이 '장소'이며, 인간의 개념 안에 있는 시간이 '경우'인 것이다."[2)]

장소는 인간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배경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환경과 항상 연결되며 인간의 경험은 관점과 의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각된 공간은 항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대초원은 '광막하며' 산은 '넘을 수 없고' 집은 '넓으며' 거리는 '갑갑한' 것이다. 즉, 물리적 환경은 인간이 그곳을 인지하고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며, 어떤 형식으로든 의미가 부여된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아 장소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작용은 존재론적인 안정감을 주어 인간 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장소는 물리적인 외부의 한 점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 사회적 구성물이다.[3)]

우리는 무의식적이고 일상적으로 공간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장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인 공간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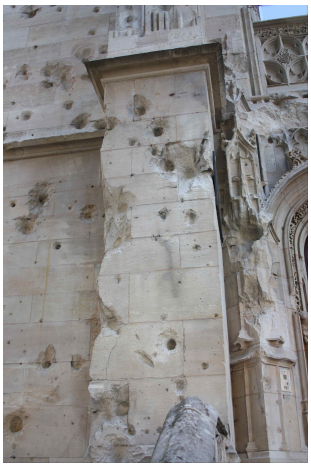
---

2) 알도 반 아이크, Forum 4/1960, 김광현, 건축과 장소, 이상건축, 9811, p.72 재인용

3) "인간 생활의 흔적에 의하여 명확해진 '장소'는 생명체처럼 유기체로 보일 것이 틀림없다.. . 한 가옥이 지표면에 차지하는 상소, 말하자면 실제 공간 상에서의 가옥의 위치는 그것이 불타거나, 파손되거나, 철거되어도 똑같은 장소로 남아있다. 그러나 건축가가 창조해낸 장소는 일종의 환상이고 느낌이 가시적으로 표현되어 낳은 것으로, 때로는 '분위기(atmospher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장소는 그 가옥이 파괴되면 사라져버린다." 수잔 랑거 1953, p.9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79 재인용

해진다. 우리는 공간을 감각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공간 속에 우리의 인성을 투영하며, 공간에 감성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적인 공간 경험은 개인의 사고와 의미를 조직해가는 과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개인의 삶을 형성하며 나아가 사회적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4)]

공간에 대한 기억은 장소애(topophilia)로 이어지며 장소에 뿌리내리는 것은 바로 이 애착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개인의 경험과 지각, 이를 통한 의미 교환과 이해라는 것은 그 시초가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동의 장소로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장소를 개인적 경험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을 자신의 개인적인 내부 공간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 동네, 이웃과의 경험 등으로 기억한다. 향수병이나 노스텔지어는 인간이 고향, 즉 장소를 공동의 의미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 건물에 남겨진 내전의 흔적

건축물의 물리적 또는 상징적 특성과 같은 공적인 성질이 공동의 장소를 형성하기도 한다. 명확한 중심성, 독특한 형태 또는 엄청난 스케일을 갖거나 중요한 사건과 연루된 건축물은 높은 심상성(imageability)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경험을 위한 초점을 형성한다. 프랑스 루앙에 있는 파괴된 건물은 현재에도 계속 사용된다. 현대적 맥락 안에서 이 건물은 특정 사건, 즉 과거에 일어난 내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공통의 감정과 경험을 유발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4) 슐츠(C. Norberg Schulz)는 장소는 “우리가 실존의 의미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초점이다.”라고 언급했다. C. Norgerg Schulz, 김광현 역, 實存·空間·建築, 태림문화사, 2002

[그림 2-2] 대오서점의 외관

[그림 2-3] 과거를 상기시키는 대오서점 내부의 공간구성과 책배치 출처: www.google.co.kr

의미를 갖는 거점이 된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역사적 상징성을 획득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의미를 갖는다.

경험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장소에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 의미, 공동의 가치 등이 '쌓였기' 때문이다. 누하동에 위치한 대오서점은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여준다. 60년대에 처음 들어선 헌책방은 그 당시 특별한 시설도 아니었으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도 아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인 서점에는 삶의 기억들과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개인, 그리고 공동에게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여러 물리적 흔적으로도 남겨진다. 또한 대오서점의 재료나 간판과 같은 외관, 내부의 스케일, 공간구조 그리고 책의 배치 등은 현재의 그것과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건축적 특징만으로도 다른 시간을 상기시키고 도시를 구성하는 장소의 다양성과 지역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소적 의미로 다가간다.[5)]

5) 시간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 장소는 특수한 지점을 형성한다. 실제로 대오서점은 드라마와 같은 매체에서 특정 시점이나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 사용된다.

현대에 역사나 제의적 상징을 갖는 전통적인 장소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장소는 경험적인 특성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은 순간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기억과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간은 장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모든 장소는 과거의 경험과 사건의 현재적 표현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의 현재적 표현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인간의 지각, 경험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일어난 과거의 시간을 통해 장소성을 얻는다는 것이며, 높은 심상성을 갖는 건축물 또한 오랜 시간을 거쳐 공동의 초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소는 시간에 독립적일 수 없다.

2.1.2 현대도시에 요구되는 시간의 다양성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도시는 확대와 성장형 도시로, 건축물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도시의 양적 충족이 우선시되면서 도시 내부의 건조 환경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도시는 팽창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변화된 도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기 보다는 여전히 확대·성장형 개발 방식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도시는 이전까지의 생산과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대량으로 폐기하고 신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의 도시는 이전의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건축을 포함한 모든 분야는 이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환경이 양적으로 충족되어 생산보다는 질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 건축 분야에서 이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의 건축물들에서 가능성을 찾고, 건축 외부의 것들,

즉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어진다.

도시의 질적 향상은 도시를 이루는 건축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건축물들과 건축과 외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능해진다. 현대도시는 대부분 근래에 만들어진 건물들로 구성된다. 건축물은 건축양식과 기술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와 사고와 같은 비물리적인 요소 또한 함축한다. 따라서 현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현재의 건축양식과 기술을 포함한 현대사회 전반을 담는다.

건축물에 담긴 그 시대의 문화, 사고 그리고 사건의 흔적들은 그 형태에 축적된다. 또한 사람은 물리적 환경 안에서 살아가며 신체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는 총체적 환경을 체험한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인간에 의한 건조환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축물은 인간이 세상을 경

[그림 2-4]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다양한 층위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대학로

험하는 척도가 되며, 건축물의 형태는 중요해진다. 인간은 건물의 형태를 통해 건축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성들을 경험한다. 도시를 이루는 건축물들의 시대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간은 건축물의 형태를 통해 다양한 시간과 연결된다. 시간과 공간은 건물의 형태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고 한정되며, 지속되기 때문이다.

대학로에는 다양한 역사를 거친 오래된 건물들과 문화·예술 지역으로 바뀌면서 새로 들어선 건물들이 이 지역만의 독특한 시간적 층위를 형성한다. 서울 대학교 대학본부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마로니에 공원 부지에 남아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사용되며 석조 건축물처럼 생긴 공업 견습소는 방송통신대학, 정미소였던 건물은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맞은편의 의대 캠퍼스를 이루는 오래된 건물들 중 일부는 의학박물관이나 병원 연구소 등으로 용도를 바꿔 여전히 사용된다. 지금의 대학로로 바뀌기 전의 공간의 역사와 기억, 또는 사용 등은 남겨진 건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 대학 캠퍼스의 문화는 학림다방과 같이 구체적 장소를 통해 현재와 연결된다. 따라서 일부 방문자는 이곳에서 과거를 되새기며 일부는 물리적 형태를 통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을 상상하고, 또 다른 일부는 현대적 건물에서 현대적인 문화와 예술을 감상한다. 이러한 공간이 간직한 시간의 깊이는 깊으며 인간의 경험의 지평은 넓어진다. 유하니 팔라스마와 데이빗 하비의 말은 건축이 인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진 공간과 시간에 큰 영향을 받으며, 물질화된 건축을 통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인간에게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적이고 문화적인 작업의 실행은 시간 및 공간의 변화에 이상하리만치 예민하다. 여기엔 정확한 이유가 있다. 그러한 작업들이 인간의 경험적 흐름으로부터 공간을 재현하고 가공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건축은 우리를 공간 및 시간에 연계시키는 최우선 수단이고, 건축을 통해 공간 및 시간의 차원에 인간적 척도가 주어진다. 무한의 공간과 끝없는 시간은 건축을 통해 실체화된다.[6)]

[그림 2-5] 오래된 형태에 증축된 커튼월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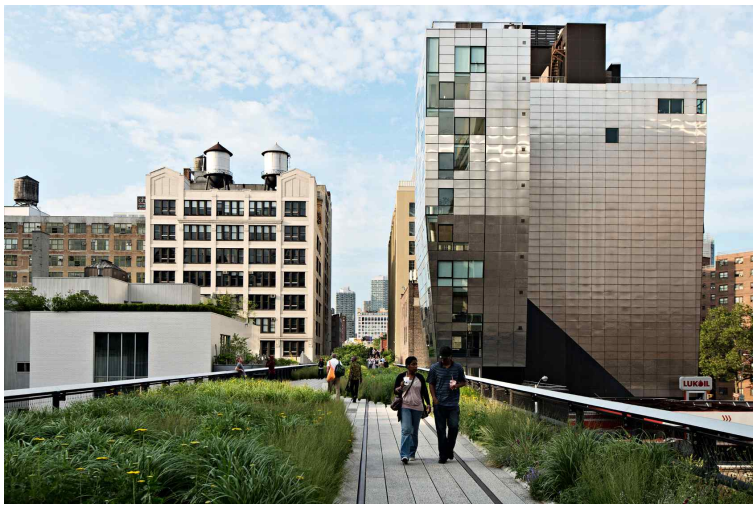
하지만 현대도시의 건물들은 주로 단일한 시간대에 지어지고 지속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건물이 함축하는 시간의 폭이 넓지 않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도시의 환경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의 환경에 비해 평탄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평균적인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도시공간의 깊이 문제로 이어진다.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건물은 그 형태를 통해 시간의 깊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석조건물 위에 추가된 커튼월 매스는 현재의 장소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시간의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알도 로시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의 형태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형태는 물리적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구체적 경험과 시간, 기억 등을 포함하는 유형적 자료이다. 즉, 우리는 도시를 거닐고 수많은 건축적 유형물들을 마주치는 동안에 여러 형태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인상을 받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적 형태가 아닌 공간의 질과 깊이를 인식해야 한다.[7]

뉴욕의 첼시지역은 도시를 거니는 동안 상반된 인상을 주는 다양한 건축적 유형물들을 보여준다. 첼시지역은 조닝(zoning)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건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하이라인을 기준으로 오래된 조적벽과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현대식 입면이 섞여 시대를 넘나드는 풍광을 만들어낸다.

---

6) 유하니 팔라스마, 건축과 감각, spacetime, p27, 데이빗 하비(David Harvey) 재인용
7)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2003,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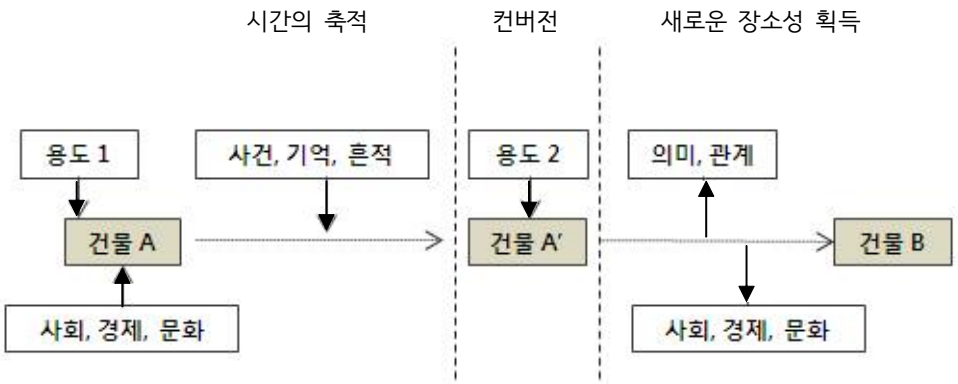
[그림 2-6] 오래된 공장과 새로운 건물이 함께 보이는 첼시지역

또한 제조업 공장을 컨버전하여 과거의 건축적 형태와 현재의 건축적 형태가 결합된 건물들은 기능적 형태를 뛰어넘는 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며 형성된 곳으로 도시 안에서 공간과 경험의 깊이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산업, 사람, 행위 등 도시의 수용력을 넓히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대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다양한 시간대의 건축물들이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의 다양성은 곧 커뮤니티, 기억,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장소의 의미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래된 건물의 보존이나 레노베이션, 그리고 컨버전은 도시공간의 질과 깊이에 관여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건물에 축적된 시간을 현재와 관계시킨다.

2.2 컨버전의 의미와 가치

2.2.1 컨버전의 의미



[그림 2-7] 컨버전을 통한 건물의 세 가지 단계

근래에 재생, 재활용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컨버전(conversion)은 건물의 물리적 형태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 즉 용도에 중점을 둔다. 그 예로 일본에서 컨버전은 '용도변경을 동반한' 건축물의 재생, 활용 수법으로 소개되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하드웨어로서 '건축물'과 소프트웨어로서 '용도'를 통역해주는 것으로 건축물에 잠재하는 스펙을 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8] 여기서 하드웨어로서 건축물은 내부의 사용을 제외한 물리적 건축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말을 해석하면 컨버전은 용도를 잃고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로운 용도와 엮어주는 통역자(interpretator)의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물에 잠재하는 스펙이란 결국 신축건물에 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간에 의해 형성되는 특징을 뜻한다. 이것을 끌어내어 새로운 용도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신축건물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컨버전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즉, 컨버전(conversion)은

8) 문경진, 유휴 산업시설 컨버전의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10, p.43

‘물리적인 건축물을 내용물인 용도와 새롭게 맺어주는 작업으로, 기존 건물의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이끌어낸다.’

2.2.2 용도를 포함하는 컨버전의 특수성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재생, 재활용에 관한 대표적인 용어로는 레노베이션, 리모델링, 리폼(renovation, remodeling, reform) 등이 있으나 정식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용어는 모두 보존의 단계에 속하는 용어들로 기존 건물에 대한 물리적 개입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즉, 이러한 용어들은 재생, 전용 등의 비물리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법규와 관련되는 물리적 변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한편, 유로 컨스트럭트에서 레노베이션과 현대화(renovation & modernization)라는 복합용어를 사용하여 오래된 건축물을 현대화시킨다는 통합된 관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역시 물리적 영역에 머무르는 용어이다. 또한 유지, 보수, 수선(maintenance, repair, renewal) 등은 단순히 건물의 사용성과 기능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전의 의미가 강하다.

컨버전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와는 다른 것으로 내용의 교체, 즉 새로운 용도의 삽입을 필수 요소로 한다. 반면, 앞서 설명한 레노베이션, 리모델링, 리폼 등은 용도 개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작업의 대상으로 한다. 그 예로, 이러한 물리적 변화들은 특정 용도의 건물에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공간구조, 마감 등의 수정을 거쳐 사용성,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며, 특히 근래에 인테리어의 변화를 뜻하는 말로도 통용되는 실정이다.

20세기 후반 세계대전, 대규모 도시계획의 실패와 산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도시가 쇠퇴하면서 재생(rehabilitation, refurbishment, reuse)과 보존(conservation, preservation)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재생은 컨버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건축영역에 사용되고 있지만 주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역적 범위를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여태까지의 재생은 사람들의 이 생활하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리적 영역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또한 재생은 용도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에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은 재생을 위한 방편일 뿐, 재생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보존은 여태까지 언급된 개념들과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 건축물들이 훼손되면서 보존이라는 사고가 생겨났다. 보존은 다른 개념들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건물의 역사성과 기념비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전시품과 같이 건물을 원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존에는 유산적 가치를 지니거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건물이 포함된다. 컨버전은 보존과는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한다. 컨버전은 건물의 시간은 현재에 지속될 때 가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오래된 건물은 인간의 증거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마땅히 함께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9] 즉, 컨버전은 건물의 시간과 역사, 특성을 '인간의 증거'로서 중요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 창출을 통해서 현재, 미래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컨버전된 건축만의 가치는 인간과 연결시키기 위한 변화에서 비롯된다. 컨버전을 통해 특정 용도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동안 인식되지 않았던 공간의 특성이 발현되며, 새롭고 다양한 행위의 가능성을 창출한다.

---

9) 존 러스킨(John Ruskin)은 건축물의 보존, 특히 옛 상태를 재현하는 복원에 대하여 "복원(restoration)은 건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Kenneth Pwell, Architecture Reborn: converting old buildings for new uses, New York: Rizzoli, 199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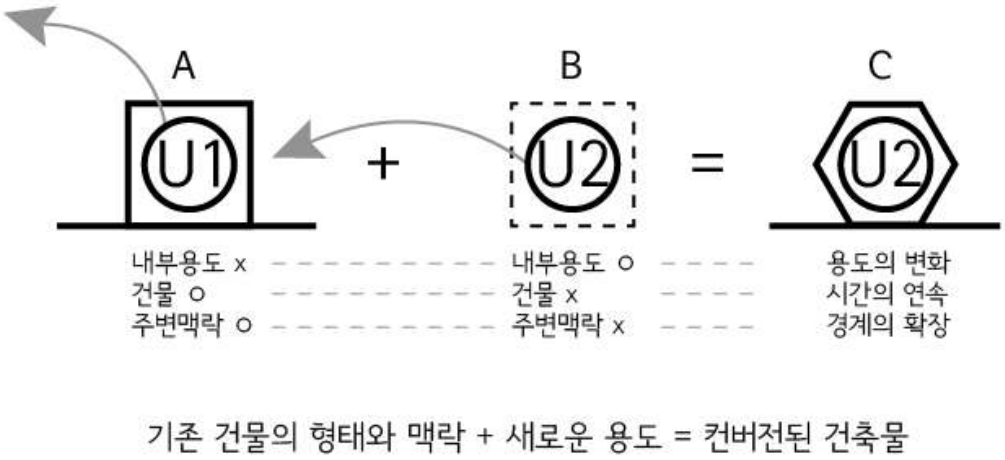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사용을 일컫는 adaptive reuse, repurpose, retrofit -ting은 컨버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념이다.

[표 2-1] 일본건축학회의 관련용어 정의

출처: 노정은, 건축공간의 재생, 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논, 2008, p28

구분	유형	세부내용
유지보전 (maintenance, repair)	유지 (maintenance)	현상유지 상태에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고치는 것
	수선(repair)	성능 또는 기능을 현상유지나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회복하는 것
개량보전 (improvement, modernization)	보수 (amendment)	부문적으로 성능이 저하된 부위 등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
	갱신(renewal)	성능이 저하된 부재, 부품과 기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
	개수 (improvement, renovation)	성능이 저하된 건축물 등의 성능, 기능을 초기의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
	개조 (renovation)	기존의 건축물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변경 (rearrangement)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칸막이 등을 변경하는 것
	개장 (refinishing)	마감부분의 교체

2.3 컨버전의 장소적 특성



[그림 2-8] 컨버전에 의한 세 가지 요소들의 변화

컨버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 건물의 형태와 현재에 새로 요구되는 용도가 만난다는 점이다. 남아있는 기존 건물은 그 용도(U1)만 빠진 채 건물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건물이 놓인 맥락 또한 존재한다. 새로 들어가는 용도(U2)는 비가시적인 요소로 건물의 형태와 건물이 놓일 맥락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컨버전 과정에서 새로운 용도(U2)는 건물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장소의 의미를 변화시키며 기존 건물의 물리적 환경은 반대로 새로운 용도의 전통적인 역할과 빌딩타입에 영향을 준다. 이렇듯 과거의 형태와 현재의 용도는 서로를 변형시켜 예측하지 못했던 건물의 형태와 용도를 만들어 내고 주변맥락으로부터 단절되어 현재적 의미를 갖지 못했던 건축물을 현재의 장소로 재탄생 하도록 한다.

2.2.1 서로 다른 시간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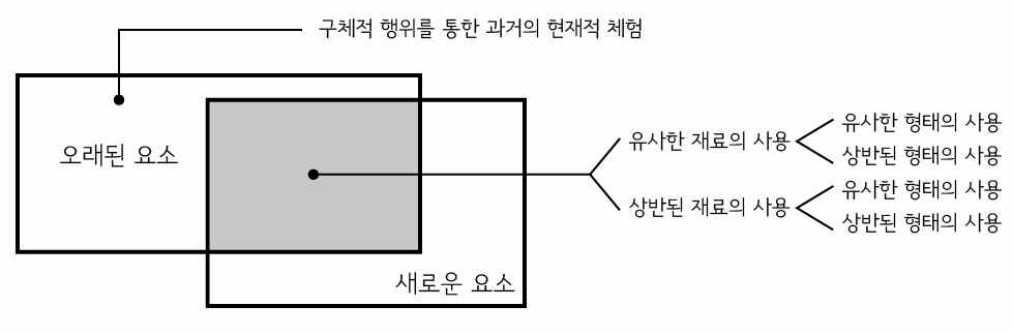
"현대의 건축들에서 시간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태곳적부터 이어져오던 과거의 메아리가 없어지면서, 인간은 역사 속에 머무르는 존재로서의 자아에 대한 감각을 놓치게 되었다. 여기서 건축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로부터 해방시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게 한다.* 건물과 도시는 시간의 도구들이자 박물관이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건축물에 깃든 여러 흔적들은 우리의 개인적 삶을 초월하여 거대한 시간의 순환에 참여하게 한다.*"[10]

컨버전된 건물은 기존의 건물이 지속되어 온 시간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인간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컨버전된 건물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여러 시대 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변화해온 파도바의 재판소의 원래 지니고 있던 가치와 기능 가운데 몇몇은 남아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형태에서도 분명한 과거의 양식적 특징을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는 그 특성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건물의 남아있는 가치는 인간과 도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비록 그 가치가 건물의 물질과 관련되어 있으며 물질적인 것이 유일한 경험적 자료이지만 건물의 남겨진 부분에는 건물이 지어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 건물로부터 얻게 된 개념과 집단의 산물로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림 2-9] 파도바, 재판소
출처: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2003, p.50

10)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Spacetime, p78

일반적인 기억에 대해 말해야 한다. 또 그 건물을 통해 맺은 집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11] 시간성은 건물의 재료, 건물에 새겨진 흔적, 공간의 생김새, 그리고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림 2-10] 재료와 형태의 중첩을 통한 시간성의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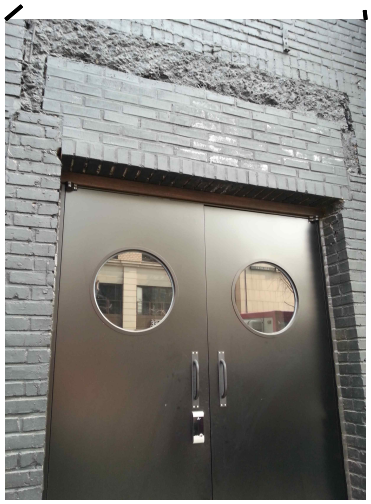
(1) 역사적 시간의 흔적

시간이 축적된 재료와 흔적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감촉성과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예를 들어, 오래되어 풍화된 재료의 색감, 때, 균열과 과거의 사건에 의해 생긴 흔적들이 건물의 시간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 요소가 되며, 건물에 새로운 분위기(ambience)와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요소들이 건축물의 일부가 되었을 때 건물의 풍부한 질감과 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건축 요소의 오래된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건물에 새겨진 특정 사건의 흔적이나 건물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인간과 건물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인간은 단절된 과거를 동일시하게 된다.

홍대에 위치한 투썸 플레이스는 건축물에 남겨진 흔적들이 내부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경험의 깊이와 재미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건

11)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2003, p.52

[그림 2-11] 홍대앞 투썸 플레이스의 컨버전 이전과 이후



[그림 2-12] 개구부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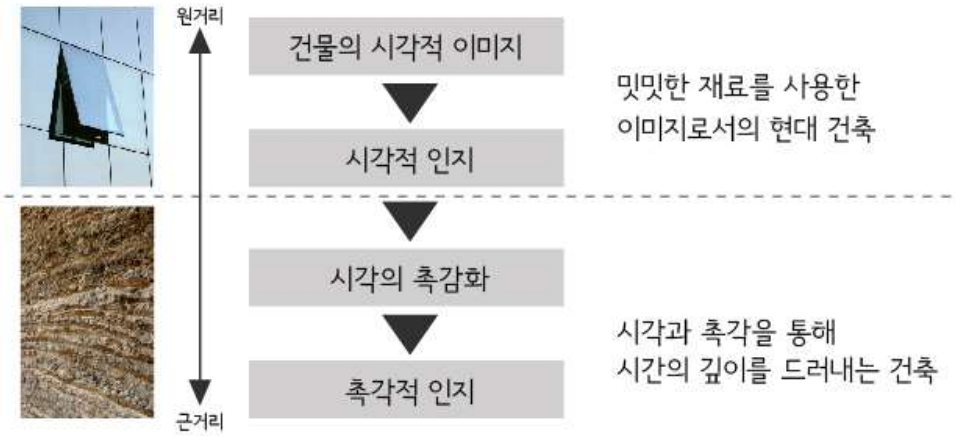
물은 지역 상권에 따라 끊임없이 업종이 바뀌면서 컨버전되어 왔다. 이러던 것이 건물 전체가 카페라는 하나의 용도로 통합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원래 건물의 흔적들은 의도적으로 남겨져 다른 장소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 카페와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 1, 2, 3층의 입면과 내부공간은 통합되었지만 건물 출입구와 4층 창문의 위치와 흔적은 남겨져서 원래 건물의 형태를 상기시킨다. 즉, 특정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했던 입면과 내부 공간에 시간과 흔적의 경험이라는 제3의 요소가 추가되어 공간에 깊이의 차원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정 브랜드의 공간을 인식하는 동시에 건물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고 차별화된 장소로 인식한다.

De Bijenkorf 백화점은 시간이 경과하여 쌓인 표면의 때도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에 육각형의 타일로 평평하게 마감된

[그림 2-13] De Bijenkorf Depart -ment Store 과거

[그림 2-14] De Bijenkorf Department Store 현재

입면은 요철이 없어 때 타기 쉬워지는데, 여기서 시간의 흔적은 새로운 입면 요소가 되었으며 백화점의 특징이 되었다. 이렇듯 시간에 의한 재료의 변화는 '완성된' 건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축조 후에도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건물의 낡은 흔적, 폐허에 남겨진 특정 재료나 형태는 나이를 먹어 흥미로운 고색을 띠거나 풍부한 질감을 드러내고, 특별한 선을 만들어내어 건물을 축조된 시점에서 현재로 연장시킨다. 따라서 인간의 오감을 모두 자극하고 촉각적 경험을 시각적 이미지와 융합시키는 건축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장소를 통한 지각과 경험은 인간을 고양시키는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림 2-15] 물성에 따른 건축물의 인지 방법

[그림 2-16] 성북동 Mobel Lab 전경

건축물은 물리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공간의 특징으로도 시간의 감각을 일깨운다. 성북동에 위치한 가구점 Mobel Lab은 개인주택을 컨버전하였다. 이 건물은 외장 벽돌과 창문이 모두 교체되어 오래된 물리적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내부의 공간구조는 신축된 건물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 차별성을 갖는다. 지하에 위치한 대형 주차장, 주택의 낮은 층고, 특히 주택 내부의 계단실의 배치와 스케일은 현대의 주택에서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한다.

(2) 과거와 현재의 연결

컨버전에서 재료와 흔적에 담긴 시간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대로 연결되기도 하며 현대적 재료와 함께 대비되어 단절된 시간이 압축적으로 체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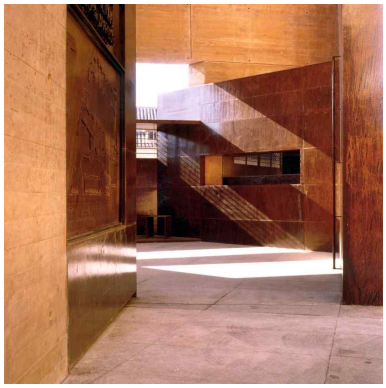
이탈리아에 위치한 Castello di Piombino 박물관은 16세기에 지어진 방어용 성채이다. 오래된 역사를 갖는 건물을 박물관으로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부를 가로지르는 브릿지들은 육중한 석재와 천정의 볼트의 질감과 흡사한 회벽을 사용하여 추가되었다. 또한 이 다리의 밑면은 건물의 볼트와 베이의 아치형상을 따르고 있어 형태적으로도 기존의 건물과 상당히 흡사

[그림 2-17] Castello di Piombino의 아치와 브릿지

함을 알 수 있다. 건물 형태의 변형을 인정하는 컨버전에서 유사한 재료와 형태의 사용은 완성된 건축물이 형태적 변형에도 불구하고 기존건물이 과거의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Castello di Piombino 박물관과 같은 건물에서 사용자는 내부의 오래된 요소와 새로운 요소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방법은 보존을 위한 재건과 달리 현재의 필요에 따라 형태를 변형할 때에 변형된 공간 안에서 역사적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도록 한다.

톨레도에 있는 문화센터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현대적인 형태적 언어를 사용한 예이다. 기존의 성당을 두르는 성벽과 같은 콘크리트 벽은 성당과 주변 맥락을 반영하는 전통적 색채인 황금색을 띠며, 내부에서도 거푸집 자국이 있는 유사한 콘크리트는 역사적인 벽과 어우러진다. 반면, 이 벽들과 개구부들은 날카롭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어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나타낸다. 건물로 들어가는 테라스 공간에서 콘크리트 성벽에 뚫린 여러 개의 직사각형 개구부들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빛을 만들어내고 성벽 안쪽의 벽들과 동선들 또한 사선으로 배치되어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한다. 유사한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형태를 취하는 이러한 방법은 전체적인 역사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형태를 추

[그림 2-18] Cultural Center in Toledo, Spain



[그림 2-19] Cultural Center in Toledo의 입구부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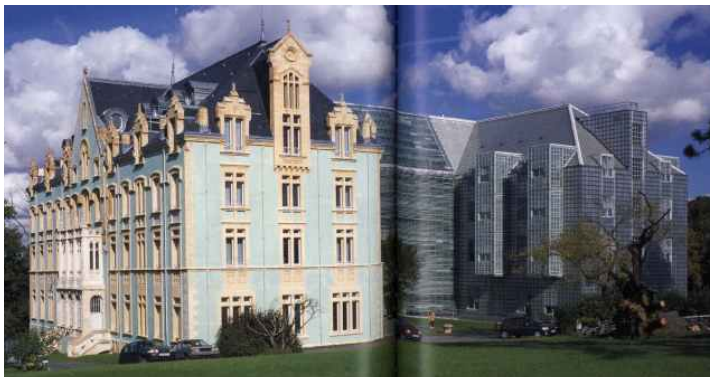
가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물성을 나타내는 시각, 촉각적 감각의 유사함이 형태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질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입구부의 테라스에서 직사각형의 개구부들과 철재 살들이 이루는 강렬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빛과 요소들의 기하학적인 배치는 그 현대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톨레도 지방과 건물의 전통색인 황금색, 성벽과 비슷한 거친 물성 때문에 따뜻한 느낌을 준다. 또한 역사적 특징과 현대적 특징의 직접적인 대비를 통해 단절된 두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시각적인 이질감 없이 시간이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단절된 시간의 대비

컨버전된 건물의 시간성은 건축요소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 부각되기도 하는데, 기존 건물의 요소와 현대적 요소는 서로 결합되어 그 상반된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건물의 재료가 주는 시간성은 시대성, 감촉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유리, 철, 콘크리트 등의 요철이 없고 매끈한 현대적 재료와 벽돌, 돌, 나무 등의 거친 역사적 재료로 크게 나뉜다. 이러한 재료들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나타내며 상반된 감촉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오래된 벽돌이나 회벽칠은 유리, 철과의 결합을 통해 상반된 감각들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과거와 현재의 단절된 시간을 동시적 경험하도록 한다. 상반된 재료는 유사 재료를 사용할 때에 시간의 연속체로서 건물을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개별적인 시간적 요소를 하나의 건물 안에서 압축적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특히 스케일 없는 유리판, 에나멜을 씌운 금속, 합성 플라스틱 등 현대 재료의 불변하는 표면은 시간을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기원 그리고 다루어진 역사까지도 표현하는 자연 재료와 더욱 대조된다. 이는 시간의 차원을 배제한 밋밋한 현대 건축과 도시에 풍부한 질감과 시간을 포함시킨다.[12]

---

12) 케빈 린치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에 대해 "[...]현재의 풍경의 의미와 복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겨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의 대조, 그리고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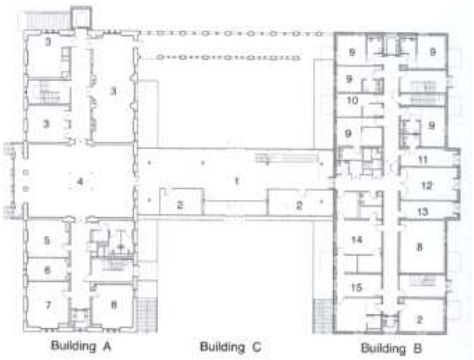


[그림 2-20] retirement home, Jean Nouvel, France
출처: a+u, 408 sep 2004

장 누벨이 양로원으로 컨버전한 기숙 여학교는 상반된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건물과 비슷한 형태를 추가한 경우이다. 기존의 건물 형태와 거의 동일한 매스는 가운데 일자형 매스로 연결되는데 추가된 부분 모두가 전면 유리로 처리되었다. 이 사례에서 전체 건물은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차이로 인해 A와 B 매스의 이질감이 눈에 띠게 부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비슷한 재료에 현대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보다 확연히 들어나며 유사한 매스가 기존 매스의 복사본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 연관성을 유지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대적 결과물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요소의 대조를 통한 시간의 표현은 여러 컨버전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독일의 Bibliothek Luckensalde은 재료와 형태가 모두 대비되는 사례이다. 기존의 건물은 2층의 평범한 철도역사로 컨버전 이후 건물 내부의 평면이 바뀌었으며 독특한 형태의 매스가 추가되었다. 이 매스는 황금색의 합금 타일로 반짝이며 대칭형의 철도역사 건물과 달리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띄도록 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철도역사의 역사적 형태와 재료는 새

간 여러 시대의 중요한 요소들의 축적은 그것이 아무리 일부분일 지라도 하나의 시대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언급하였다. Kenvin Lynch, What Time is This Place?, MIT press, 1972,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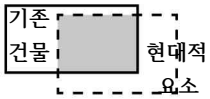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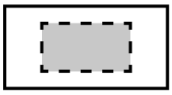
[그림 2-21] retirement home 1층 평면도
출처: a+u, 408 sep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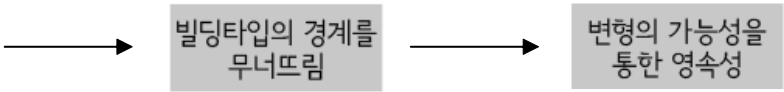
[그림 2-22] Bibliothek Luckensalde. 기존 건물과 대비되는 황금색의 매스

로 추가된 초현대적 매스의 황금색 금속판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데, 두 요소의 병치는 현대의 재료가 촉발하는 시감각과 오래된 재료를 통한 촉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상호대조를 통해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압축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든다. 또한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매스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지속되어온 역사성이나 고유한 분위기의 보존보다 새로운 부활, 그리고 현대적 계승과 같은 상징적인 의도를 갖는다.

2.2.2 용도의 변화

[표 2-2] 기존 건물의 형태와 현대적 요소가 만나는 방식

건축형태의 변형		물리적 가치보다는 새로운 사용가치에 목적을 둔다.
내부구조물 설치		동일한 역사적 공간을 다른 시점(view point)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축형태의 원형유지		‘낯설음’을 이벤트적 체험 요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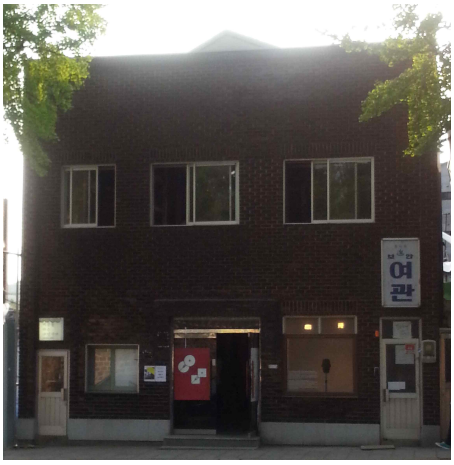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는 용도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용도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공간을 통해 건물이 과거에 사용되던 때를 상상하게 하며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그리고 건물을 용도, 효율성, 경제성 등의 외부적 요건이 아니라 형태와 공간 등의 자체적 특성에 주목하여 건물을 다시금 해석하도록 만든다. 애초의 용도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앞으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가능성을 가진 장소는 그 안에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행위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건축물의 작은 부재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한옥의 도리는 버려지지 않고 의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넓이는 의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림 2-23] 의자로 사용되는 한옥의 도리

앉는 사람 또한 높이 설치되어 만질 수 없었던 도리를 만져보고 앉아보면서 새로운 사용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처럼 컨버전된 건축물은 의도와 계획에서 나온 공간이 기능과 사용의 목적으로 축소된 용도의 결정에서 출발하여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용도로부터 벗어난 공간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어떠한 용도의 시설을 만들게 된다.

건축은 건축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사람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담을 수 있을 때에 '건축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건축물은 일정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위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건축은 그것을 둘러싼 자연적, 인공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원형유지 혹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그 의미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13] 이렇듯, 특정 장소를 하나의 성격으로 영원히 묶어놓는 것이 불가능



(a) 보안여관의 외관

(b) 세미나가 열리는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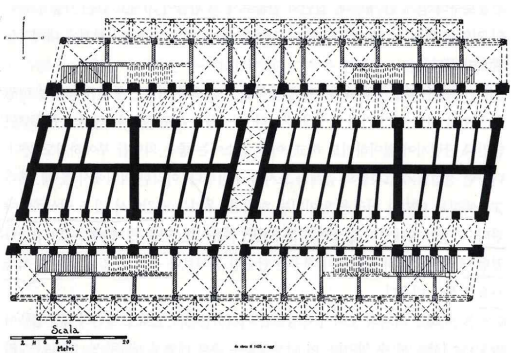
[그림 2-24]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안여관

13) 일찍이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는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복원(restoration)에

하다면 변화에 따라 그 변화된 성격을 담아내어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컨버전은 역사적 건물의 물리적인 재생보다는 가치 재생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긴다.

통의동에 위치한 보안여관은 80여년 전에 지어진 여관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아니지만 서정주 시인이 잠시 머물기도 하는 등 과거의 구체적 삶이 일어났던 장소이다. 하지만 여관이라는 개념이 약화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컨버전되었으며, 현재는 작품 전시, 바자회,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담고 있다. 내부공간은 여관의 특징적인 분위기를 대부분 유지하는 동시에 전시나 문화 활동에 적합하도록 여관방들의 일부 벽을 헐어내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현재적 가치를 잃은 여관에서 새로운 사용의 가치를 찾게 되며 과거의 빌딩타입의 흔적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유럽의 모든 도시에는 대형 팔라초, 복합용도 건물, 인구 밀집 지역 등이 도시를 구성하는 '진정한 부분'들로서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최초의 기능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도바의 재판소를 들 수 있는데, 이 건물이 형태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해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도시의 구성물이라는 것은 형태와 용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다. 파도바의 재판소



[그림 2-25] 1425년경부터 현재까지의 1층 평면도
출처: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2003, p.51

강하게 반대하면서 건물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형태는 단순히 물리적 형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형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복합적이고 조정된 결과물이다. 즉,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 여전히 과거의 형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형성된 건물의 물리적 형태가 그 동안 다양한 기능을 수용해 왔으며, 지금도 도시의 주요 건물로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도바의 재판소는 '영속성'을 갖는다. 또한 더 나아가 이 건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변형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다.**[14]

이에 비해 신축된 건물은 파도바의 재판소와 같은 도시적 형성물이 될 만한 시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경우, 건물은 그것이 담아왔던 기능과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물리적 형태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시설은 건물유형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근대 이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능주의 교의를 통해 이해되어 시설, 용도, 형태에 대한 경직된 사고로 이어지고, 물리적 공간과 기능을 일대일의 한정된 의미로 파악하게 만든다. 하지만 건물을 하나의 행위에 단순 대응하는 좁은 의미의 용도를 담는 것으로 상정해버리는 순간, 건물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도 한정된다.

실제로 건축의 형태는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형식 자체를 위한 독립적인 요소도 아니다. 한 가지 형태는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같은 기능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기능이 전혀 다른 르네상스 교회와 대저택에서, 또한 건축가의 서로 다른 건물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축의 형태에 기능을 벗어나는 요인, 공통의 형식이 있으며, 이 바탕 위에서 형태가 변화하고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15]

---

14)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2003, pp.49-52,87
15) 김광현, 건축과 형태, 이상건축, 9807, pp.59-60

[그림 2-26] 아를의 원형극장
출처: Herman Hertzberger, "Time-based Buildings", Time-based Architecture (Rotterdam: 010Publishers, 2005), p.83

[그림 2-27] 루카의 원형극장

하나의 형태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는 사고는 헤르만 헤르츠버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다기능(polyvalenc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건물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다기능(polyvalency)은 다목적(multipurpose)과는 차이를 갖는다. 다목적은 적응성(flexibility)를 내포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향을 갖는 박스와 같은 건물까지도 포함한다. 하지만 다기능은 그 자체로 명쾌한 특성과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되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아를(Arles)과 루카(Lucca)의 원형극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다기능의 시간적 차원에 주목한다. 이 예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사용되는 건축물로 시간의 변화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성이며 같은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해도 주변 상황이 변하면 기능이 달라지고, 동시에 근본적인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건축이 시간의 범위를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건축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에 귀속되지 않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하며 오늘날의 문제는 건물의 용도를 너무나 세부적으로 해석하고 명명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건물이 너무 구체적이고 특정한 질을 갖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용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진 후에 건물이 유효성을 잃게 만든다.

"'유형'이란 말은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사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모델을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요소의 개념을 표현한다.… 모델은 예술의 실행 과정에서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유형'은 어느 누구에게나 전혀 닮지 않은 작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다. 모델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유형'은 다소간 모호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형'의 모방은 감정과 정신이 인지할 수 없는 것과는 그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16]

알도 로시는 유형과 건축물의 형태를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유형은 다양한 사회에서 매우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단일성을 유지하며 삶의 형태와 방식과 관계를 맺어왔다. 유형은 불변하고 필연적 성격을 띠는 핵과 같은 것으로 건축적 형성물의 기술, 기능, 양식, 집단적 성격 및 개별적 상황과 변증법적으로 반응한다. 유형의 문제를 회피하고 늘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하였다. 하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형태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로 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능과 형태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이해하며 건축을 한 가지 뜻으로 규정해버린다.

16) 카트르메르 드 퀸시(Quatremere de Quincy),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동녘, pp61-62 재인용

(1)건축형태의 변형

컨버전은 건물과 환경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고 과거에 기반한 미래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필요에 맞는 변형을 수반한다. 건축가 한스 반 빅은 그가 한 컨버전 작업과 관련하여 컨버전에서 중요한 것은 보존이 아니라 변형을 통해 역사와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용도를 창출하는 것으로, 완전한 철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분적인 파손이 필요하며 이것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17] 그가 집합주택으로 컨버전한 과거 교회건물은 건

[그림 2-28] 과거의 루드허 교회

[그림 2-29] 외부가 된 실내 예배당

축적 변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과 쓰임새를 창출해낸 사례이다. 교회 건물은 지붕을 드러내어 내부 예배당은 주택 가운데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옥외 테라스로 변모한다. 특이한 점은 교회의 외벽을 따라 교회건물 바깥을 16채의 주택이 둘러싼다는 것이다. 건물의 외부 파사드는 주택의 내벽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내부와 외부공간은 서로 뒤바뀐다. 예배당

17) "옛 건물을 보존해 좋은 경우도 많지만 보존만이 정답은 아니다. 재사용 건축의 목적은 보존이 아닌 새로운 용도의 창출이다. 아무리 유명하고 오래된 건물도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루드허호프의 경우 교회를 보존함으로써 아름다운 건물을 살리고 불필요한 폐자재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역사와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새로운 용도를 위해 지붕을 없앴다는 것이다. 완전한 철거를 피하기 위해 때론 부분적인 파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 인터뷰 내용, 지붕 떼낸 교회가 집합주택으로… 헌 건물, 새 용도로 부활하다: 네덜란드 건축가 한스 반 빅의 '재사용 건축론', 한국일보, 2013.09.30

은 주택 가운데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그 성격이 변한다. 즉 지붕만을 철거하여 공간은 새롭게 해석되었으며 기존 교회의 예배당과 벽들과 같은 원래 요소들은 모두 보존되었다. 결과물은 컨버전이 내부공간의 창조적 재사용을 넘어 전혀 다른 성격의 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Niccolo Paganini 오디토리움은 1968년부터 사용되지 않은 설탕 정제소를 컨버전한 것이다. 공장의 오래된 벽은 주변 녹지와의 조화를 위해 기존의 형태 안에서 수정되었는데, 기존 건물의 정면과 후면의 벽을 철거하여 시각적으로 건물 전체를 관통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총 길이 90m에 달하는 건물은 로비에서 연주 홀까지 시각적 경계가 없어져 콘서트 도중에도 홀과 로비의 모든 곳에서 무대 배경으로 공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공원으로 둘러쌓은 대지을 이용하는 컨버전 계획이었으며 음악은 단순히 실내공간에서 듣는 단절된 활동이 아니라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통한 폐공장이라는 장소의 감각, 그리고 외부의 숲의 전망까지 끌어 들어 야외 오디토리움과 같은 느낌까지 준다.

오디토리움 컨버전은 Eridania 지역 재생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음악회를 열기에 적합하면서도 기존에 없었던 독특한 공간 형태를 보여준다. 건물은 고전적인 기능적 배치를 나타내는 거대한 박스형 공간이기 때문에 그 비율과 구성이 음악적 용도를 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건물의 폭은 기존의 오디토리움보다 좁기 때문에 일면 음향이나 규모가 부적합해 보이지만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공연까지 가능한 크기이며 로비에서 무대로 이어지는 공간의 선형적 배치는 특이한 환경을 만든다. 또한 측벽의 움푹 들어간 창문은 원래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소리의 반사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소리의 균질성을 향상시키면서 음향적 기능을 돕는다.

용도는 컨버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노후화된 건물은 새로운 용도를 받아들여 컨버전된다. 그 결과, 건물은 새로운 행위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그림 2-30] Niccolo Paganini 오디토리움

직, 간접적으로 변하며 시간을 연속한다. 즉, 오래된 건물은 인간의 현재의 삶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보여주고 상상하게 만드는 역사적 대상물에 그치기 쉬우나, 컨버전된 건물은 새로운 행위를 통해 우리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나의 개인적 경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안에 속하게 된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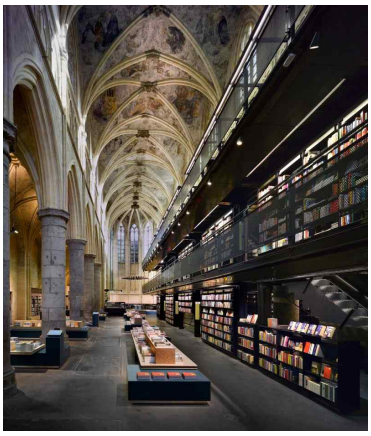
컨버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 즉 용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건물은 새로운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는 건물을 현재로 이끄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두 가지 용도가 만들어 내는 건축적 특성으로 인해 건물은 다양한 모습과 신축건물을 뛰어넘는 기능적 이점을 갖게 된다.

(2) 내부구조물의 설치

역사적 건축물의 형태에 변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용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조물을 내부 공간에 삽입, 또는 설치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은 보통 대규모 내부공간을 갖는 건물의 형태수정이 어려운 경우에 흔히 사용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작업을 통해 동일한 공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Selexyz Dominicanen 서점은 기존 건물의 공간의 질을

18) “건축적 경험을 구성하는 것은 행동이다. 문의 시각적 형태보다는 열기라는 행동이,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창문 그 자체 보다는 창문 안팎을 내다보거나 들여다 보는 행동이, 시각적 디자인으로서의 벽난로 보다는 온기의 영역을 점유하는 행동이 건축적 경험을 채우게 된다. 건축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삶이 반영된 공간이며, 삶이 반영된 공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와 측정가능성의 경계를 넘어선다.” Juhani Pallasmaa, 김훈 역, The Eyes of the Skin, Spacetime, p92



[그림2-31] Selexyz Dominica-nen Bookstore

유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특수한 경험을 유발한다. 컨버젼된 성당은 성당만이 갖는 특유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용도를 담기 때문에 여지껏 볼 수 없었던 환경을 만들어낸다. 긴 네이브를 따라서 3층의 철재 서가가 설치되고 성가대석에는 최신식의 카페가 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성당도 아니며 서점도 아닌 완전히 복합적인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이 된다. 네이브를 따라 이어지는 서가의 맨 위층에서 위를 바라보면 1337년경에 그린 천정화의 사라져가는 잔재가 보인다. 또 1619년에 Jan Vessens가 그린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성화가 있다. 이렇듯 서점에서 여러 시대의 역사적인 성화를 한 번에 보는 경험은 일반적인 서점건물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역사를 담는 건물의 컨버젼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서가의 형태는 중앙 네이브의 한 쪽에 서는 형태인데 이것은 서가가 네이브 전체를 덮었을 때 공간의 특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Selexyz 서점은 1,200㎡의 바닥 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750㎡의 성당 면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층을 높이는 수밖에 없었다. 서가를 따라 올라가면 구조물 양쪽 네이브 전경이 모두 보여 고딕 성당을 위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시점 또한 기존의 성당에서는 불가능하다.

극장에서 오피스 겸 상점으로 컨버전된 밀라노의 bastard store는 기존 건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용도에 필요한 공간을 설계한 사례이다. 높은 층고의 극장 내부에 있는 이층 관람석은 그대로 유지되어 계단형의 오피스+작업공간이 되었다. 전통적인 오피스와 달리 계단형으로 구성된 공간은 작업공간이 시각적 교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함께 일한다는 느낌과 지속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근무 환경을 창출한다. 공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면서 새롭게 설치된 요소는 스케이트 보울

[그림 2-32] 컨버전 이전의 Bastard store

[그림 2-33] 컨버전 이후 Bastard store

(skate bowl)이다. 창고 위 6m 높이에 매달려있는 스케이트 보울은 극장이었을 때는 1층 좌석 위의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이 새로운 구조물은 직원들의 취미이자 상점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으로, 이 독창적 공간을 통해 건물이 보더를 위한 이벤트, 공연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 용도를 위한 공간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컨버전 작업이 기존 건물과 내용물인 용도가 새롭게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장 기반시설의 공간적 특징은 일반 건물의 그것과는 상당히 차이점을 갖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삽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반대로 그 독특한 공간적 특성은 오피스가 어떠해야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우리가 건물의 타입이라 부르는 전형적인 공간의 성격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공간을 경험하는 새로운 공간구성을 만들어낸다.

(3) 건축형태의 원형유지

노후화된 기존의 건물은 기능적으로도 새로 요구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특정 용도에 필요한 공간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이러한 예는 창고와 공장을 이용한 수많은 컨버전 사례에서 나타난다. 창고와 공장은 신축건물이 줄 수 없는 넓은 공간, 자연채광과 환기, 높은 층고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하며, 오히려 새로운 용도를 더욱 자유롭게 받아들인다. 또한 이런 건물들은 공간의 형태나 외관이 간결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무실, 주거, 작업실 등 모든 성격의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곡

물저장고는 건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호텔로 컨버전되었는데, 물리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띠는 곡물저장탑들은 호텔객실과 회의실 등의 분리된 실들을 구획하기 쉽게 만든다.

독일 뒤스부르그에 위치한 뒤스부르그 환경 공원은 남겨진 기능적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스토리를 잘 보여준다. 독일 최대 철강회사 티센(Thyssen)의 제철소였던 공원은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각 건물의 스토리는 공원의 여러 가지 활동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옛 제철소의 가스저장탱크는 유럽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센터가 되었으며 공장 사무실은 유스호스텔로, 가스 엔진이 있었던 공장은 컨벤션 센터로, 그리고 야외벙커의 두꺼운 벽은 암벽등반용으로 사용된다. 제철소 건물들의 특성에 따라 삽입된 다양한 문화, 야외활동들은 공원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며 지역의 역사적 상징이었던 제철소는 공원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그림 2-34] Duisburg-Nord Park. 암벽등반에 사용되는 야외벙커

[그림 2-35] Duisburg-Nord Park. 다이빙센터로 사용되는 가스탱크

중국에 위치한 1933 라오창팡(老場坊) 건물의 형태와 공간조직은 그 자체로 이벤트 또는 경험적 요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사람이 아닌 가축을 위해 지어진 공간의 '낯설음'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하는 장소가 된다. 1933은 1933년에 지어진 도살장으로 현재는 몰(mall)로 사용된다. 건물의 각 공간은 복도를 따라 연결되는데, 이 경사로는 소가 이동했던 동선이다. 또한 건물 내부에 도축통로, 가축우리, 저장 창고 등의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과거 도축장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할

[그림 2-36] 복잡한 길로 이루어진 1933 내부

수 있다. 1933은 세계에서 2곳밖에 남지 않은 1900년대 초반 근대식 도축 공장 중 하나로, 다른 곳과는 달리 도축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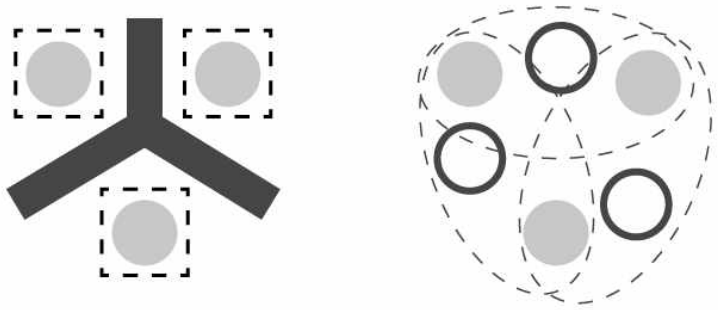
4개의 베란다와 26개의 다리가 서로 연결된 총 5개층 건물은 기능적으로 설계되었는데 가축의 동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가축을 위한 동선과 사람을 위한 동선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가축들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 각 브릿지의 폭과 가축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거칠게 마감된 바닥을 따라 걷는 것 자체는 도축장의 흔적을 체험하는 과정이 된다.

Stewart Brand는 그의 저서에서 컨버전된 건물들을 소개하면서 건물은 그것의 원래 기능의 흔적을 남길 때에 더욱 흥미로워지며, 기능의 계속적인 변화는 가치있는 다채로운 이야기 거리가 된다. 건물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다[19]고 언급하여 컨버전된 건물에 남겨진 다양한 기능적 요소들의 효과를 강조했다.

---

19) "The building became more interesting when it left its original function behind. The continuing changes in function turn into a colorful story which becomes valued in its right. The building succeeds by seeming to fail." Stewart Brand, How Buildings Learn: What happens after they're built, PENGUIN BOOKS, 1994, p104

2.2.3 내, 외부 관계변화에 의한 경계 확장



기존 도시의 요소 사이의 경계　　경계변화에 의한 경계 변화

[그림 2-37] 컨버전을 통한 지역적 영역의 확장

장소에서 위치는 기본적인 개념이며 위치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장소는 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현대도시는 오래 전에 형성된 도시나 지역과 시간적 차이를 가지며 계획이 주변지역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과 경계를 형성한다. 이때 경계는 각 구역의 형성 시기나 조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 산업, 문화와 같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비물리적 요소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응하지만 도시환경의 물리적 요소인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는 같은 형태로 도시 내에 고정되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도시환경의 구성요소 간에 괴리와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 대상 선정의 법적 근거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작동 여부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는 재개발의 고려 대상이 물리적 도시환경에 국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20] 또한 재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재정비촉진지

20) 문경진, 유휴 산업시설 컨버전의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10, pp.12-13

구'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정보는 생략되고 지구 내부의 수평적인 용도 분배만 표현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이 아직 부족한 것이 보인다.

이처럼 현대의 도시가 불연속적이고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 이전시대의 지역들, 또는 주변의 계획도시와 경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탈산업화 이후 도시 부근의 공장들은 유휴화되면서 도시 언저리 부분에 경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계 요인들은 계획적인 처리가 어려운 곳이 많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계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정되지 않고 서로 섞이는 지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계와 경계, 또는 새로운 공동체와 기존 이웃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에 있다.

컨버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은 경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위치상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거점이 될 가능성을 갖기도 한다. 또는 산업시설과 같이 입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인 대규모 건물과 달리 주거지와 함께 섞여있는 작은 건물도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깊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시간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적 가치를 형성할 가능성을 갖는다. 경계부의 건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분절되었던 경계상황을 새롭고 개성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한다. 그 예로 아트 팩토리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놓인 대규모 공장지대가 도시적 차원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주거지역의 가정집 등을 컨버전하여 만든 출판사+북카페같은 시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정의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지형: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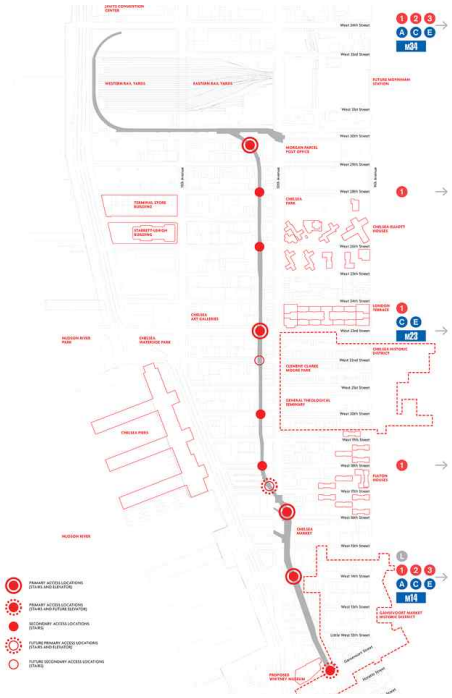
독자, 주민와 함께 호흡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역 내 빈 공간을 해결한다.

(1) 물리적 경계의 확장

컨버전은 건물자체와 주변지역의 물리적 변화 또한 수반하여 건물의 재료와 형태, 그리고 주변의 가로, 연결성 등이 변한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물리적, 인식적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건물의 위상, 중요도, 그리고 그 건물에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진다. 이렇듯, 건축물의 컨버전은 그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 삶과 주변지역의 환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켜 영역을 확장한다.

뉴욕의 하이라인은 뉴욕 남북의 경계를 해결하여 지역 사회를 연결, 통합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이라인은 총 1.45마일을 지나는 뉴욕의 특징적인 인프라로 맨하탄의 세 구역을 연결한다. 하이라인의 컨버전 작업은 처음부터 시설의 특수성과 그것이 앞으로 만들어낼 장소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14번가에서 30번가에 이르는 거리를 한 번에 연결하는 선형의 철도는 그 위로 총 6.7에이커에 이르는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며 이것은 복잡한 뉴욕시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밀도 높은 뉴욕의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형성될 수 없는 가능성이었다. 컨버전된 하이라인은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첫째로,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선형으로 뉴욕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망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로 특수해지며 보행자는 22블록에 달하는 거리를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일 없이 횡단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접근로를 통해 각 블록에서 공공의 공원을 즐길 수 있으며 각각의 블록, 서쪽의 제조업지역과 동쪽의 주거지역이 이질감 없이 어우러진다.

하이라인의 컨버전은 시설자체의 전환과 함께 인접공간의 변화도 동반한다. 각 지점에 계획된 새로운 연결로는 슬럼화되었던 철로 인근 주변을 재



[그림 2-38] High Line. Access Points
출처: http://www.thehighline.org/

[그림 2-39]High Line 하부 모습

활성화시켰으며 공중 공원은 철로 주변의 대지에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수많은 건물들과 갤러리가 들어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첼시 지역 전반의 물리적 환경변화로 확장되었다.

section2로의 진입공간 주변, 즉 철도의 하부공간은 하이라인의 컨버전과 함께 가장 크게 변화한 장소 중 하나이다. 30번가를 지나는 하이라인 하부공지는 특정한 용도가 없는 땅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하이라인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음식 트럭들과 바가 들어서서 거대한 광장을 이룬다. 또한 이전의 주차장용지는 교대로 열리는 공공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렇듯, 컨버전은 주변지역까지 비물리적으로 컨버전시켜 도시를 변화시킨다.

(2) 사회적 경계의 확장

시각적 경계라는 관점에서 노후화된 건물은 이전의 생활과 장소를 간직하면서 새로운 행위를 담아 인간의 삶이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경계를 흐린다. 즉, 예전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소의 시간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 예로 상하이 신천지는 공산당이 결성되었던 지역 건물들을 고급

레스토랑이나 바, 카페들을 중심으로 컨버전되었는데, 그 후 이 지역을 거점으로 새로운 모델의 도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져 지역 내 과거 건물들의 의미와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컨버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한 변화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파브리스 라핀(Fabrice Raffin)은 유럽의 3개 도시 속에 존재하는 아트팩토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역 내 예술가들이 정착하여 예술 컨텐츠가 형성된 후, 주민들은 예술을 접하고 예술가들과 생활을 같이하는 체험을 통해 정치의식이 향상된다. 이렇듯 동일한 건물의 용도의 변화는 지역 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며 도시 재생이나 커뮤니티 회복의 근거가 된다.

[그림 2-40] Le Fresnoy Art Center

건물은 재료, 입면, 경관 등의 변화를 통해 장소감을 주고 주변맥락과 관계한다. 프랑스에 위치한 베르나르 츄미의 Le Fresnoy Art Center는 물리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장소가 된 사례이다. 1920년대 산업지역의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였던 건물들은 지역사회의 상호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컨버전되었다. 낡은 건물군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덮여 주변 건물들과 차별되는 모습을 띠며 커뮤니티를 위한 통일된 공간임을 형태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계획된 장소에 영역성을 주고 그 독특한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시각적인 장소감을 띠게 된다.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덮인 영역의 내부는 각 건물들을 이어주는 공중 브릿지가 가로지른다. 브릿지로 인해 생긴 기존 건물들 사이의 사이공간들은 동선 뿐 아니라 사교와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영역 밖으로까지 이어져 주변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아트센터에 추가된 연결동선들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

시 내 건물의 위상은 달라진다. 이로 인해 건물은 일상적 동선, 나아가 생활에 좀 더 깊이 연관되어 거주민들에게 장소로 인식된다.

영국에 있는 Young Vic극장은 남겨진 건물과 재료를 통해 다양한 의미의 장소감을 형성한다. 중앙의 낡은 건물은 옛 정육점 건물로,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킨 전쟁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건물 중 하나이다. 건축가는 정육점을 극장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남겼으며 낡은 타일과 벽은 아직도 정육점의 분위기를 풍긴다. 정육점 건물과 연결된 건물 역시 과거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여 지역의 역사 혹은 과거 사건의 상징적 장소감을 형성한다. 극장의 모토인 ad-hoc 미학[21]은 기존 건물의 형태, 재료가 주는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며, 오히려 컨버전을 통해 기존 건물의 잊혀졌던 상징적 장소감은 더욱 부각된다. 정육점 건물은 Young Vic의 상징이자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컨버전된 건물은 내부에 삽입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의 중심 장소로 변모하기도 한다. Young Vic 극단은 건물을 하루 종일 개방하여 지역이나 공연자, 청소년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

[그림 2-41] The Young Vic Theatre

21) Young Vic Production이 지향하는 ad-hoc미학은 주변의 투박하고 가식없는 분위기와 일치하며 새로 적용된 재료와 컨버전 방식이 이 분위기를 따르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극단은 기존 공연장과 달리 유연하고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ad-hoc미학을 반영하여 변형과 일시성을 극장을 구성하는 메인 아이디어로 삼았다. 그 결과, 단일 원리를 갖는 공간이 아닌 여러 채의 건물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가 되었다.

설을 제공한다. 아침에는 공장, 미팅룸, 사무실, 카페로 사용되고 점심 때에 로비는 시끌벅적한 카페가 된다. 오후에 로비는 예술 공간, 바/레스토랑으로 변해 지역의 젊은이들과 창조적인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문화공간이 된다. 하루 종일 극장을 찾는 사람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면서 건물은 지역 활동의 거점으로서 생활의 장소가 된다.

제 3 장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통한 분석의 틀 설정

3.1 과거를 연속시키는 건물의 물리적 요소

3.1.1 병영건물의 공간구성 변화

3.1.2 표면의 역사적 단계 표현

3.1.3 다양한 재료의 병치

3.2 상설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의 변화

3.2.1 전시의 배경이 되는 벽, 바닥, 천장

3.2.2 작품전시를 위한 벽과 바닥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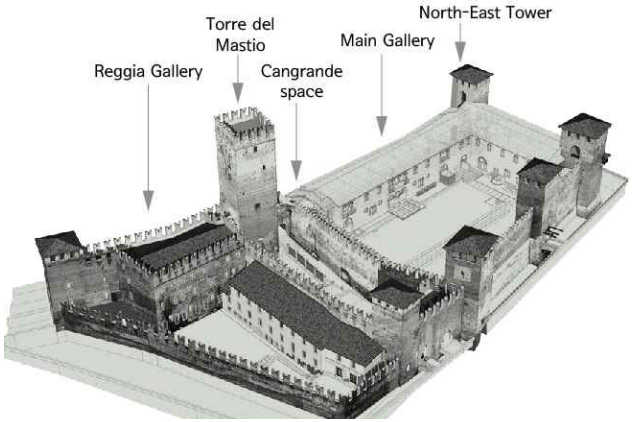
3.2.3 채광을 위한 구조체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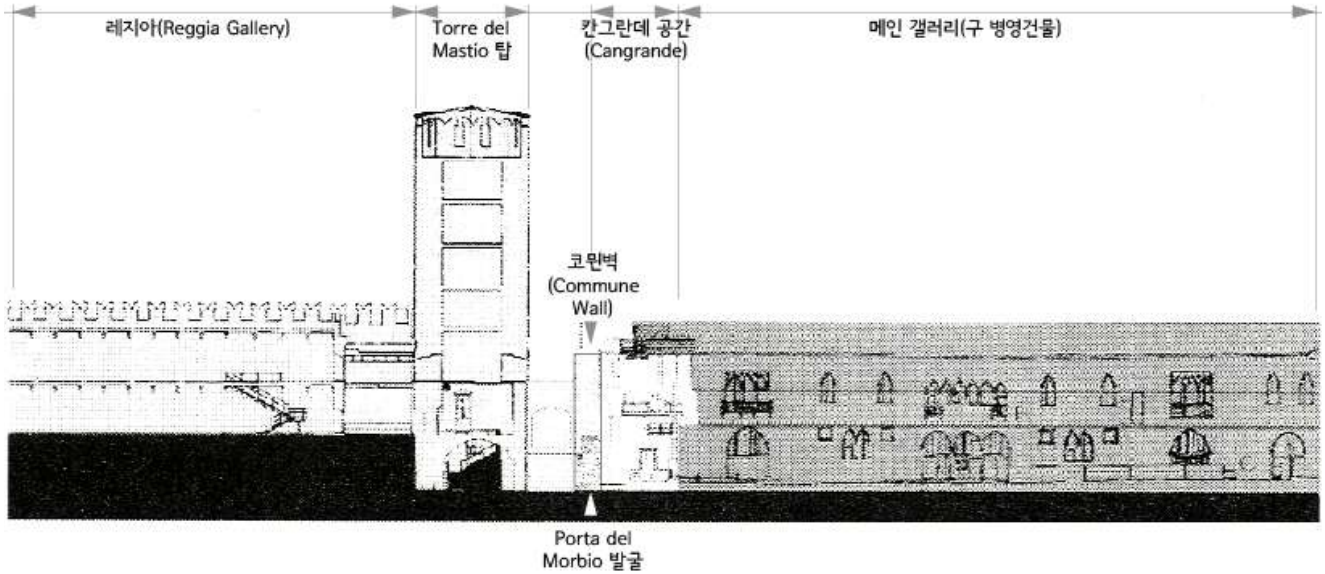
3.3 외관변화를 통한 시각적 확장

3.3.1 역사적 형태의 부분적 절개

3.3.2 주변경관을 반영하는 재료 사용

3.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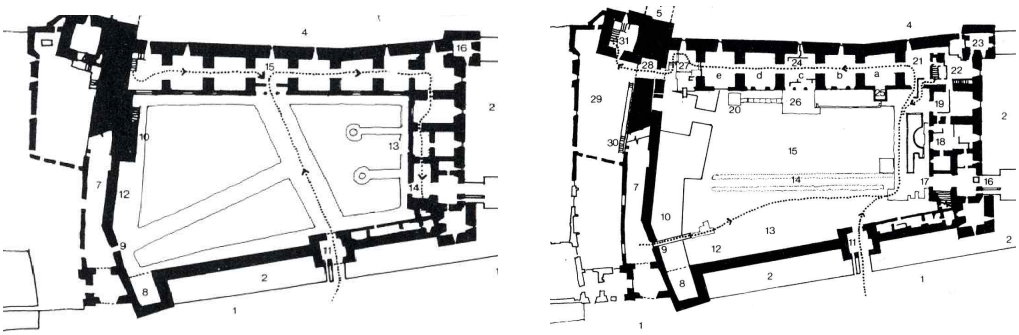


[그림 3-1]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의 각부 명칭과 영역구분

3.1 과거를 연속시키는 건물의 물리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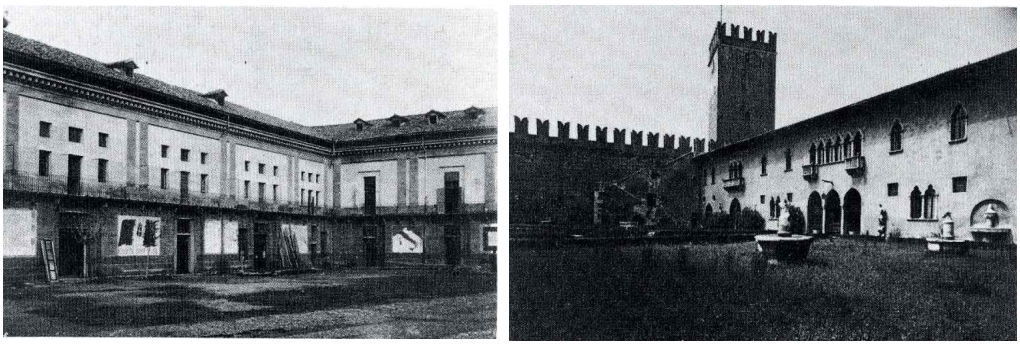
3.1.1 병영건물의 공간구성 변화

(1) 역사적 공간구성



(a) 아베나 시기의 평면 (b) 스카르파 작업 이후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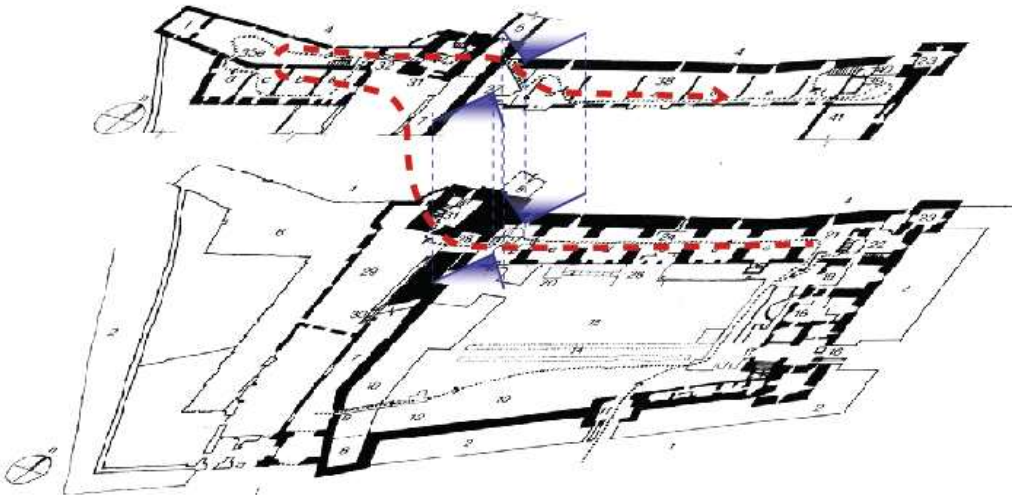
[그림 3-2] 카스텔베키오 평면의 변화



(c) 병영건물 시기의 카스텔베키오 (d) 첫 컨버전 이후의 카스텔베키오

[그림 3-3] 카스텔베키오 정면 파사드의 변화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a)p.9, (b)p.2, (c),(d)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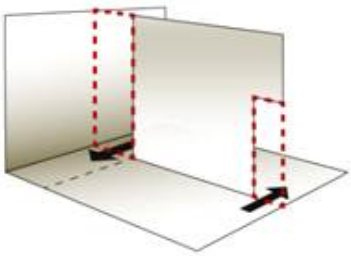


[그림 3-4] 스카르파 작업 후의 새로운 전시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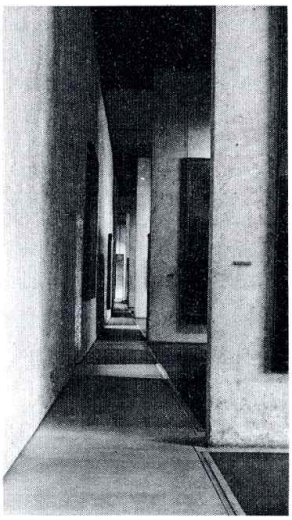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은 본래 병영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메인 갤러리가 있는 건물은 과거 군사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건물은 여섯 개의 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방은 개별적인 출입구를 갖고 있었다. 아베나 시기에도 기존의 내부 공간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면 파사드가 고딕식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방으로 연결되던 입구는 중앙 로지아로 한정된다.

이때의 구성은 중앙 로지아 출입구를 중심으로 강한 대칭성을 띠었으며, 동선이 좌우로 분리되어 현재의 관람동선과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중앙 로지아 출입구로 들어온 관람자는 L자 갤러리의 각 꼭지점에 있는 세 개의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에서 1층까지의 전시를 구경하였고 2층의 브릿지를 통해 Torre del Mastio에서 레지아로 갈 수 있었다.

건축가 Forlati가 계획한 동선은 그 대칭성으로 인해 박물관의 전체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정해진 틀 안에서 관람자들의 동선을 한정시켰다. 또한 Torre del Mastio로의 연결이 2층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본체와 로지아 건물의 연결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두 건물을 분열시켰다.



[그림 3-5] 일층 내벽의 변화



[그림 3-6] 일층 북측통로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150

(2) 변화된 평면과 관람동선

스카르파는 전체의 여정 안에서 관람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바랐다. 따라서 스카르파는 기존 박물관의 동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이것은 입구의 위치 변경, 칸그란데 공간을 통한 Torre del Mastio와 본체의 연결, 그리고 일층 갤러리의 동선에서 두드러진다.

칸그란데 공간은 전체 동선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전에 메인 갤러리와 레지아는 2층을 통해서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갤러리 사이의 연결성이 현저하게 낮았지만 칸그란데 공간이 계획되면서 지상층과 일층은 수직적으로 통합되며 정면 파사드는 제거된다. 유일하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칸그란데 공간은 동일한 방들이 반복되는 공간구성에 변화를 주며 지상층과 레지아를 연결시켜 두 건물 사이의 자유로운 동선을 가능하게 한다.

일층 갤러리 내부의 동선 변화는 미술관 동선에 대한 스카르파의 생각을 보여준다. 기존의 일층은 지상층과 동일하게 아치형 개구부를 갖는 벽이 각 방을 구분하고 있었다. 스카르파는 기존의 칸막이 벽의 아치형 개구부를 없애고 양쪽 가장자리에 통로를 설치하였다. 칸막이 벽의 수정은 일층 동선을 두 개로 나누어 일방향적인 통과동선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람동선을 분리되었다. 이것은 작품이 주인이 되는 과거의 경직된 갤러리 공간이 아닌 관람자의 해석이 중요한 현대적 미술관의 특징으로 건축가와 큐레이터가 의도한 바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베나 시기의 미술관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은 입구의 위치, 칸그란데 공간, 일층 내벽, 북동탑에서 차이를 보인다. 입구의 위치변경은 물리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동선을 바꾸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층 내벽과 북동탑 또한 벽체의 수정이 일어나지만 전체 방들의 구성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칸그란데 공간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으로, 동일한 모듈의 방이 여기서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내, 외부로 개방된 거대한 전시공간을 형성한다. 이것은 공간구성의 변화시키는 동시에 전체 미술관의 동선을 크게 바꾸는 요인이 된다.

3.1.2 표면의 역사적 단계 표현

(1) 벽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

[그림 3-7] 회벽칠을 제거한 코뮌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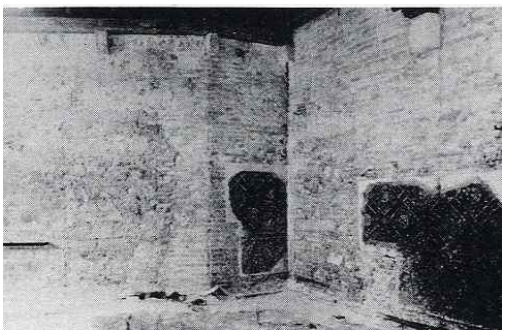
흔적을 남기는 방식은 코뮌벽과 레지아의 벽에서 나타난다. 현재 메인 갤러리가 있는 북측 병영건물이 세워졌을 때부터 코뮌벽은 마지막 방의 서쪽 벽의 역할을 하였다. 아베나 시기의 컨버전 이후에도 코뮌벽은 여전히 벽체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회벽칠되어 있었다.

스카르파는 연대가 가장 오래된 코뮌벽의 감추어진 모습을 드러내어 12세기부터 축적된 변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회벽칠을 벗긴 코뮌벽은 돌을 쌓아 만든 원형적 모습과 함께 중간 중간 벽돌로 복구한 흔적을 통해 베로나의 방어를 위해 축조된 성벽의 파괴와 복원의 과정을 드러내고 내부 관람자는 벽을 통해 미술관 이전에 건물과 베로나가 겪어온 사건들을 회상한다. 동시에 코뮌벽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요소 이

상의 의미를 갖는다.

스카르파는 건물이 갖는 각각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구조체의 겹쳐져있는 파편들과 각 시대적 요소의 공존은 특정 시대의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시간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와 함께 인식하도록 만든다. 칸그란데 공간은 건물의 모든 역사적 시기가 만나는 곳으로 코뮌벽은 칸그란데 상, 병영건물의 남, 북측 벽과 함께 컬렉션의 하나가 되며, 이 모든 독립된 전시물들은 이곳에서 통합적으로 경험되어 서로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베나 시기에 레지아와 병영건물 모두 바로크 양식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미술관으로 사용되었다. 스카르파는 첫 번째 컨버전에 의한 진실성 없는 장식적 요소들을 삭제한 반면, 주거부분으로 사용되었던 레지아의 원형적 장식 요소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과 아베나 시기의 채색을 지우는 작업의 과정은 레지아 갤러리에 잘 나타나는데 벽은 회벽칠된 부분과 채색된 부분이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불규칙하고 거칠게 남겨진 흔적은 하나의 벽 안에서도 다양한 패턴을 형성하며 마치 역사적



(a) 레지아의 채색을 지우는 과정

(b) 현재의 레지아 내부

[그림 3-8] 레지아 내벽의 변화

(a)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95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관람자는 레지아에 전시된 베로나와 베네치아의 화가들과 중세 초기부터 15세기까지의 몇몇 조각가들의 작품들을 비슷한 양식과 색으로 채색되어진 환경에서 감상하게 된다.

(2) 적층된 표면

[그림 3-9] 정면 파사드의 표면을 벗겨낸 부분

스카르파는 의도적 파괴가 불가능한 부분이나 여러 단계의 작업이 중첩된 벽에서 그 표면을 벗겨내어 내부의 층을 드러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렇듯 적층된 요소들을 드러내는 것은 베니스 건축의 표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 건축에서 입면은 지속적으로 물에 닿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 여러 번의 칠이 반복된 입면은 다시 물의 침식 작용에 의해 그동안의 칠을 순차적으로 드러내면서 오래된 건물의 역사적 단면들을 표면을 통해 드러낸다.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에서 면은 모서리부분에서 얇은 켜들이 겹쳐진 합판이나 판재들의 집합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것은 퇴적된 돌과 같이 얇은 표피들의 연속적인 부착으로 이루어지는데, 카스텔베키오의 메인 파사드와 벽이 잘려나간 부분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내부의 적층물들은 각각 다른 층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역사적 시간과 그것이 겪어온 단계들을 보여준다.

물질의 층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Banca Popolare의 파사드에서 더욱 발전된다. 베니스 건축과 스카르파 건축에서 적층된 입면은 오래된 면과 새로운 면에 대한 사고를 보여준다. 이 둘에서 파사드는 축적된 시간, 과거의 흔적을 드러내고 그것이 만드는 효과를 인정한다. 베니스 건축의 파사드에서 새로운 레이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현재의 결과물이며 오래된 레이어는 풍화와 쇠퇴의 단계를 의미한다.[1] 특히 스카르파는 이것을 자신의 건축 어휘로 사용하여 물질적이고 매스감있는 건축물에 숨겨진 면의 특성을 부각한다. 특히 카스텔베키오의 컨버전 작업에서 그의 작업방식은 단순히 매스가 갖는 육중함에서의 탈피가 아니라, 시간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12세기부터 쌓여온 건물 변화의 단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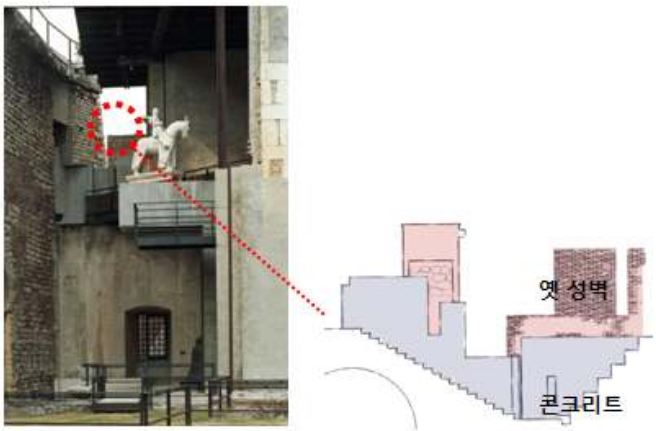
표면을 벗겨내는 방식은 정면 파사드와 칸그란데 공간에서 나타난다. 정면 파사드의 첫번째, 두번째 갤러리 입면에 표면이 벗겨진 직사각형의 얇은 띠 안에는 현재의 플라스터와 조적조를 포함한 과거의 여러 플라스터 작업들이 이루는 층이 보인다. 메인 파사드에서의 이러한 작업은 역사적 단면들을 보여주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스카르파가 의도한 파사드의 대칭성 약화를 위한 수단이 된다. 칸그란데 공간에서 절단되는 정면 파사드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적용된다.

---

1) "풍화작용을 통한 표면의 부식은 재료의 안에 있는 새로운 표면을 노출시킨다. 하나의 표면이 지워지면서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노출은 퇴적과 풍화를 모두 포함하는데, 더하기와 빼기의 혼합은 건물의 시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 디자인에서, 예술은 자연의 형태를 만드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건축물의 시간이나 삶에서 자연은 '완성된' 작품을 재형성한다." ("Erosion of a surface through weathering exposes newer surfaces of the same material in its depth, at once the erasure of one surface and the revelation of another. Exposure also involves sedimentation and the gathering of residual deposits, the combination of which-subtraction and addition-is a testimony to the time of the building, [...] In design, art is assumed to be the power or agency that *forms* nature; in the life of time of a construction, however, nature *re-forms* the 'finished' art work.") Mohen Mostafavi and David Leatherbarrow, On Weathering, MIT Press, p64, 1993

스카르파는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표면을 벗겨내는 작업이 동시에 현대 작업의 결과임을 대조를 통해 드러낸다. 벗겨낸 부분들은 직사각형의 기하학적 프레임 안에서 드러나 과거의 시간은 현재라는 틀 안에서 표현되며 칸그란데 공간의 파사드에서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절단된 벽과 벗겨낸 부분은 현대성과 자연스럽게 무너진 것이 만들어내는 시간성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 즉,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는 방법과 달리 표면을 벗겨내는 방법에서는 단순히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 틀 안에서 드러냄으로써 두가지 시대성이 서로를 부각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카스텔베키오의 작업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성이 컨버전과 같이 새로운 시간과의 결합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인식되며 현재와 관계맺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3) 교차하는 벽



[그림 3-10] 칸그란데 공간에서 교차하는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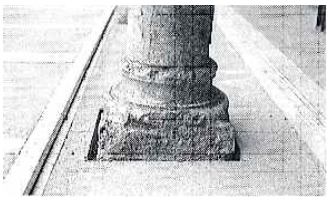
칸그란데 공간의 북측벽, 즉 아디제 강을 향하는 벽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면들이 서로 교차한다. 스카르파는 북측벽의 절개된 부분에서 기존의 조적식 성벽과 안쪽에 새로 설치된 콘크리트 벽이 수직적 형태를 이루며 서로 교차하도록 한다. 바깥의 오래된 면과 안쪽의 새로운 면의 교차는 베니스 건축의 입면의 모습을 응용한 것 중에 하나로 보이며 절단을 통해 역

사적 면과 현대적 면이 리듬을 갖고 감춰졌다 드러나는 방식은 시간을 더 율동적으로 느끼도록 한다. 옛 성벽은 계획된 리듬에 따라 드러났다가 사라지면서 건물 밖의 전망을 보여준다.

코뮌 벽과 병영건물의 북측벽, 그리고 안쪽의 콘크리트 벽은 Torre del Mastio 2층에서 칸그란데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옴에 따라 서로 다른 광경을 보여준다. 스카르파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관람자가 높이에 따라 다른 역사적 단면들과 공간들을 경험하기를 바랐으며 실제로 계단을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왼편의 스칼리제 다리, 오른편의 칸그란데 상, 전체 칸그란데 공간과 해자, 마지막으로 다시 왼편의 작은 창을 통해 벽에 부서지는 아디제강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관람자는 계단에서 외부로 열려있는 성벽을 통해 건물과 시대의 역사를 내부로 끌어들여 칸그란데 공간에서 시간이 중첩되고 총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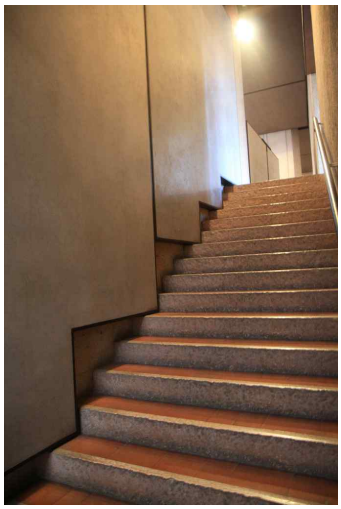
(4) 벽과 바닥 사이의 틈

스카르파 특유의 매스를 면으로 분절하는 방법은 필연적으로 면을 한정하는 틈을 만들어 낸다. 이 틈은 각 건축적 요소를 구분해주는 동시에 카스텔베키오에서 요소 사이사이의 역사적 면들을 보여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그는 지상층 조각 갤러리나 출구계단에서와 같이 역사적 벽 위에 새로운 스크린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치하거나 중앙 로지아 등에서 수직요소와 페이빙 사이에 틈을 두어 기존 건물의 바닥과 벽을 감추지 않고 그 틈으로 보이도록 한다.



[그림 3-11] 로지아의 콜로네이드 기초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67

앞서 언급했듯이, 면에 대한 스카르파의 사고는 베니스 건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베니



(a) 출구계단

(b) 칸그란데 상 스탠드 기초

[그림 3-12] 역사적 지층을 드러내는 표면 사이의 틈
출처: http://flickrhivemind.net/Tags/carloscarpa,verona

스 건축에서 건물의 입면은 물 위에 떠 있으며 알록달록한 색채로 칠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2]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육중한 성곽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베니스에서 본 물과 파사드의 관계는 스카르파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예는 물 위에 지어진 퀴리니 스탐팔리아에서 잘 나타난다. 퀴리니 스탐팔리아에서 플라스터 칠은 거친 콘크리트 바닥보다 위에서 끝난다. 이 플라스터는 오래된 플라스터 칠과는 다른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며 여기서 침식된 표면은 건물의 윗부분에 매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유사한 아이디어가 카스텔베키오의 출구 계단에서 나타나는데 계단모양의 경사진 스크린이 벽에 매달려 후면에 있는 기둥의 거친 콘크리트를 드러낸다. 틈을 통해 기억, 과거의 요소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축적된 시간을 보고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되는 스카르파 건축의 미완성 개념과 연결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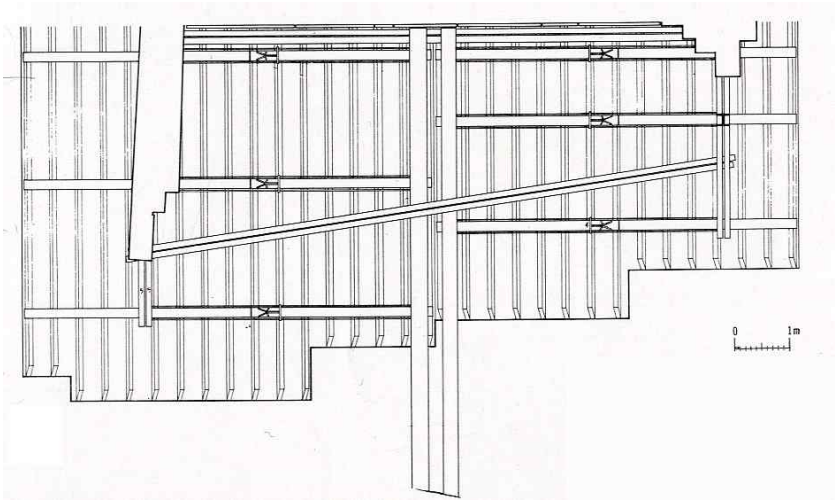
2) Steen Eiler Rasmussen, 건축예술의 체득, 야정문화사, p79, 2007

중앙 테라스인 로지아에서 바닥의 콘크리트 페이빙은 콜로네이드 기초에 못 미쳐서 끝난다. 새로운 콘크리트 페이빙과 콜로네이드가 만드는 틈은 콜로네이드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그 속의 역사적 바닥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강조하여 역사적 요소의 존재를 인식시킨다. 이러한 의도적 구성은 메인 파사드와는 다른 방법으로 층의 중첩을 표현하며 칸그란데 상의 받침대 기초부분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보인다.

3.1.3 다양한 재료의 병치

(1) 지붕재료의 시대적 대비

지붕의 최종 형태는 맨 위 표면을 로마 타일, 구리, 노출 구조의 여러 층을 수직적이지만 불규칙한 형태로 절단하여 코뮌 벽과의 사이에 열린 평면을 형성한다. 이중으로 된 거대한 마루 대들보는 이전 구조 부재를 사용한 것이며 건너편 코뮌 벽에 있는 철재 버팀대 위에 안착한다. 구조를 통한



[그림 3-13] 칸그란데 공간 지붕의 하부구조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95

지붕과 코뮌 벽의 연결은 구조적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칸그란데 공간의 여러 시대적 요소들을 통해 역사적인 코뮌벽과 갤러리를 통합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대들보를 통해 12세기 코뮌벽, 14세기 갤러리, 그리고 칸그란데 공간으로 돌출된 새로운 구리지붕이 상징하는 현재는 서로 연결된다.

지붕 아랫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구조적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 처마 끝부분에서 I빔의 중도리가 지붕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거대한 철재 보를 받치기 위해 튀어나온다. 특징적인 이 두 개의 철재 보는 이중 대들보의 오래된 목재, 그리고 기존 기와 지붕의 구조와 동일하게 만든 목재 서까래와 대조를 이루며 그 배치 형태 또한 현대성을 부각시킨다. 첫 번째 보는 안쪽에 있는 목재 스크린에 접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카스텔베키오의 지배적인 기하학인 직교체계를 의도적으로 깨기 위하여 지붕을 가로지르면서 사선으로 위치한다. 철재 보의 배치는 일차적으로 남북의 형태가 비대칭적인 지붕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이지만, 지붕, 서까래, 철재 보의 비대칭적 형태는 모두 스카르파가 의도한 것으로서 역사적인 재료와 형태를 현대적인 것들과 대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즉, 지붕의 여러가지 재료와 그것들의 배치는 남북의 벽과 지붕의 구조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기와지붕과 새로운 구리지붕이 다른 시대적 산물이라는 것을 부각한다.

[그림 3-14] 구리와 타일의 중첩

지붕의 형태는 남측에 배치된 칸그란데 상을 고려한 결과이다. 스카르파의 초기안을 보면 그가 처음에 칸그란데 상에 풍부한 빛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지붕의 남쪽 끝을 투명한 재료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

사 과정에서 이 계획은 현재와 같이 수정되었다. 칸그란데 공간에서 보이는 새로운 지붕의 하부구조는 인접한 역사적 지붕의 구조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새로운 지붕이 갤러리의 벽에서 분리되었다는 것, 즉 기존의 지붕에서 연장되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다른 요소라는 것을 나타낸다. 새로운 지붕은 벽 대신 목재 서까래를 철재 트러스에 묶어 인장력으로 지지하며, 두 개의 철재 보에서 나온 철재 캐리지는 상부의 목재 대들보를 받친다.

지붕의 재료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초기 스케치에서 지붕은 두 가지 재료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은 불투명 캐노피로 되어 있어 플랫폼까지 가는 길을 덮으며 칸그란데 조각상 위는 반투명 재료가 사용된다. 조각상 위의 반투명 지붕은 드로잉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공간 깊숙이 빛을 주는 동시에 조각상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질감의 연속적 배치

건물의 시간을 강조하는 또 다른 재료적 수법은 과거의 재료와 새로운 재료가 병치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스카르파는 가능한 곳에서 새로운 직각부재를 오래된 재료와의 사이에 삽입한다. 이 틈들은 두 가지 시대를 연결시키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성의 북쪽 벽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커브, 코뮌 벽의 곡선, 레지아에서 발견된 프레스코 파편들의 불규칙적인 형태들은 새로운 직각적 요소와 병치될 때 좀 더 날카롭고 명확해진다. 또한 칸그란데 공간에서 콘크리트, 회벽칠, 석재 등의 여러 가지 시간을 보여주는 재료들은 그 사이에 직각 철물을 두어 그 경계와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인식된다.

[그림 3-15] 칸그란데 공간에서 재료의 병치

3.2 상설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의 변화

스카르파에게 미술관은 단순히 예술품을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기계가 아니다. 미술관은 예술에 가까이 접근하고 작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배경 속에서 예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3.2.1 전시의 배경이 되는 벽, 바닥, 천장

스카르파와 큐레이터인 Magagnato는 카스텔베키오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전시는 현대적인 전시 시스템을 따르도록 하였다. 아베나 때에 이루어진 복구 후에 여섯 개의 방으로 구획된 각 방들은 조각과 회화,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 전시되었기 때문에 작품들이 제대로 읽히기 힘들었다. 또한 현재와 달리, 대중정에도 작품들이 체계없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스카르파에 와서 전시물들의 개수가 축소되고 새로운 배치가 요구되면서 전시물들은 조각과 회화로 분리되었고 연대기 순으로 배치되었다. 전시는 순차적인 여정을 따르도록 계획되었으며 건물의 벽, 바닥, 천정면은 전시를 위해 변화하였다.

(1) 벽면의 변화

기능적이고 단순했던 병영 건물의 정면 파사드를 고딕식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아베나 시기에 지상층과 일층 갤러리의 내벽은 바로크식으로 채색되어 전시에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각방에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던 역사적 장식들은 현대 미술관의 하얀 벽과 같이 모두 제거되고 작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색의 플라스터로 마감되었다. 하지만 시간과 맥락이 모두 삭제된 화이트 큐브의 배경과 달리 플라스터로 마감된 벽은 성벽과 유사한 질감을 가지며 벽의 형태, 특히 벽에 남겨진 개구부나 총안의 흔적을 보존한다. 현대 전시관의 균질한 벽과 달리 역사적 흔적을 드러낸 벽은 단순히 건물의 역사적 요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카스텔베키오에 전시되는 여러 종류의 작품들은 모두 베로나의 역사와 관련되거나 베로나의 대표적인

Location	*Type of plaster*	*Thickness (mm)*	*Woodfired slaked lime*	*Gravel*	*Crushed sand*	*Ground river sand*	*Water*	*Other*	*Colour*	*Pink spatula 240 × 330 mm)*	*Trowel (reverse side)*
Gallery facade	Render	5.0–3.0	35%	(fine) 30%	(coarse) 25%		10%	Indian ink grey Cement milk	Grey glaze	△	△
Sala Boggian facade	Lime plaster	10.0–15.0	50%		(coarse) 20%	(fine) 20%	10%		White (pure)		△
Entrance room	Render	10.0–15.0	35%		(coarse) 55%		10%		White (pure)		
Inside gallery (ground)	Render	25.0–40.0	35%	(coarse) 30%	(coarse) 25%		10%		Pure white	△ Compressed	△
Wall to Adige (first floor) Gallery first floor Sealed dividing walls	Render	15.0–25.0	35%		(coarse) 25%	(fine) 30%	10%		Pure white	△	△
Main room Reggia	Render	5.0–8.0	35%		(coarse) 35%	(fine) 20%	10%	Ink (black and Prussian blue)	Grey, blue glaze		△
Smaller rooms, Reggia	Render	5.0–8.0	35%		(coarse) 35%	(fine) 20%	10%		Pure white		△
Sala Avena	Smoothed lime				Fine				Off white		
Director's office	Smoothed lime							Clay	Leather-tinted		
Pisanello room	Applied with spatula										

[그림 3-16] 지상층과 일층 벽의 질감을 보여주는 성분 표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p174,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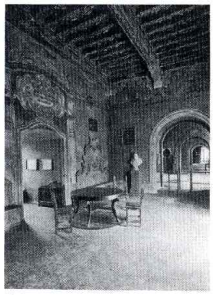
화가의 회화작품이거나, 혹은 카스텔베키오 건물과 연대를 함께 하는 것으로서 현대미술과는 달리 작품의 주변적 맥락이 전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역사적인 흔적을 드러낸 미색의 벽은 작품을 부각시켜주면서도 그것들을 동시대의 배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스카르파는 벽의 배경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한 외부 전망 등을 이용하여 관람자가 갤러리에서 온전히 역사적 세계에 심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벽은 그곳에 전시되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지상층 벽의 플라스터는 골재의 함유량을 높이고 알갱이가 큰 것을 사용하여 미세하게 더 거친 질감을 갖는다. 반면 전시된 조각들은 매끈한 질감을 가지며 디테일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스카르파는 조각상의 특징인 풍부한 양감, 질감을 고려하여 주변의 바닥과 벽을 의도적으로 거칠게 처리한다. 실제로 거친 벽은 조각상의 매끈한 질감, 채색과 대조되어 조각상을 더욱 부각시키며 현대 미술관의 밝고 균질

한 빛과 달리 실내를 너무 밝지 않게 처리하여 거친 벽의 질감이 벽에 감촉성과 깊이를 주고 조각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풍성하게 표현한다. 또한 각 갤러리를 나누는 벽의 아치 안쪽면에 더욱 거친 핑크색 프룬스톤을 붙여 여러 종류의 질감이 서로 대비를 이루도록 한다.

일층 갤러리는 지상층과 마찬가지로 천장과 벽이 모두 장식되어 있었다. 목재로 짠 천장과 벽은 화려하게 채색되었고 특히 강변을 향하는 성벽의 총안들은 가짜 굴뚝과 난로로 꾸며져 구멍들을 감추고 있었다. 바로크 양식으로 치장된 갤러리 내부는 양식상으로 건물의 역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미술관을 위한 공간으로도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벽의 채색장식과 굴뚝, 난로는 모두 제거되고 깨끗하게 회벽칠되었다. 또한 일층 갤러리는 회화 작품이 전시되기 때문에 지상층에서 보다 균질하고 광택있는 플라스터 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회화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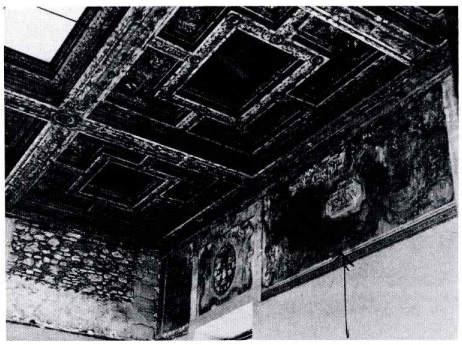
[표 3-1] 벽, 바닥, 천장의 변화

	지상층	일층
아베나 시기		
현 재		
변 화 양 상	**벽**: 바로크식 채색 장식 → 거친 플라스터 마감 **천장**: 장식적인 서까래와 대들보 → 사각형의 각방 천장을 철골보로 연결 **바닥**: 균질하고 평평한 면 → 벽으로부터 분리된 리듬을 갖는 페이빙	**벽**: 총안을 가리는 가짜 굴뚝과 난로 장식 → 총안을 드러낸 부드러운 질감의 플라스터 마감 **천장**: 장식적인 서까래와 대들보 → 매끄러운 플라스터 판넬 **바닥**: 동일한 질감 → 통로와 구분된 테라코타 타일 마감
효 과	**벽**: 거친 모래입자는 조각의 매끄러운 질감을 부각시키며, 벽면에 풍부한 그림자를 형성하여 작품의 양감을 강조한다. **천장**: 각방의 개별성과 5개 방의 연결성은 독자적으로 읽히는 조각들을 통합한다. **바닥**: 조각이 사방에서 관찰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작품에 운동감을 준다.	**벽**: 현대적인 매끄러운 벽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을 통해 작품을 더욱 깊게 해석된다. **천장**: 조립된 판넬은 회화작품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틈을 형성한다. **바닥**: 전시 공간 내부에 자유로운 동선을 유도하며, 테라코타 타일은 빛을 산란시켜 내부의 조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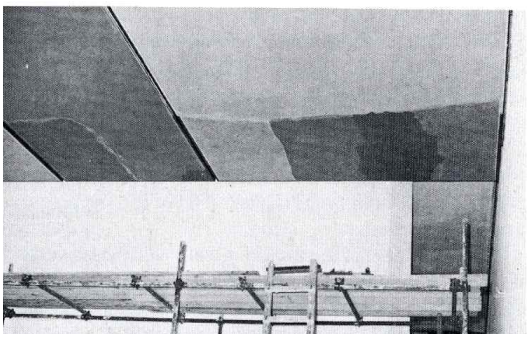
(2) 천장과 바닥면의 변화

일층의 천장과 바닥은 지상층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 작품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일층의 천장은 회색과 녹색의 광택있는 플라스터 패널들을 맞추었으며 바닥은 사첼로와 같은 붉은색 테라코타 타일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스카르파는 그림을 단순히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젤 등을 이용해서 공간 가운데에도 전시하는데 특히 그림을 두 개의 얇은 스틸 바 사이에 걸어두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캔버스가 그 자체로 예술적 요소로 보이도록 하며 작품은 벽을 배경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 요소를 배경으로 하여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공간의 한 가운데 전시된 작품들은 붉은색 바닥면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붉은색은 성화(聖畵)에 주로 사용되는 금색, 붉은색, 파란색을 더욱 돋보이고 성스럽게 만든다. 천장의 패널들은 철재로 띠를 둘러 칸그란데 공간의 일층 테라스에 있는 목재 스크린과 같이 면으로 보이는데, 이 패널들이 만드는 사이의 틈은 회화작품을 걸기 위한 줄을 걸기 위해 사용된다.

스카르파는 지상층의 작품들이 전체적인 여정을 이루면서도 연대와 성격에 따라 각방에 구분된 조각 작품들이 독자적으로 감상되도록 바닥과 천정면에 변화를 주었다. 지상층에서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는 장식용 목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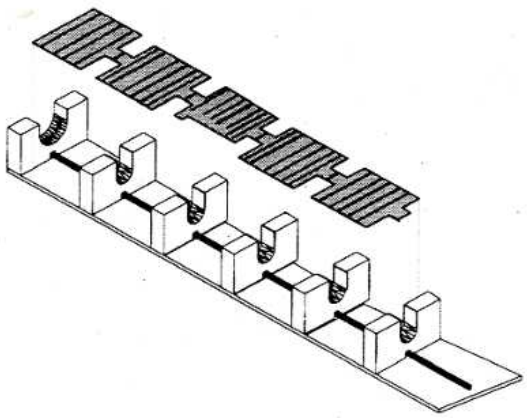
(a) 아베나 시기의 일층 천장



(b) 스카르파의 일층 천장 작업 모습

[그림 3-17] 일층 천장의 변화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a)p.144, (b)p.177



[그림 3-18] 거꾸로 본 지상층 갤러리의 바닥
출처: 김정훈, 카를로 스카르파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에 나타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9, p.67

[그림 3-19] 지상층 갤러리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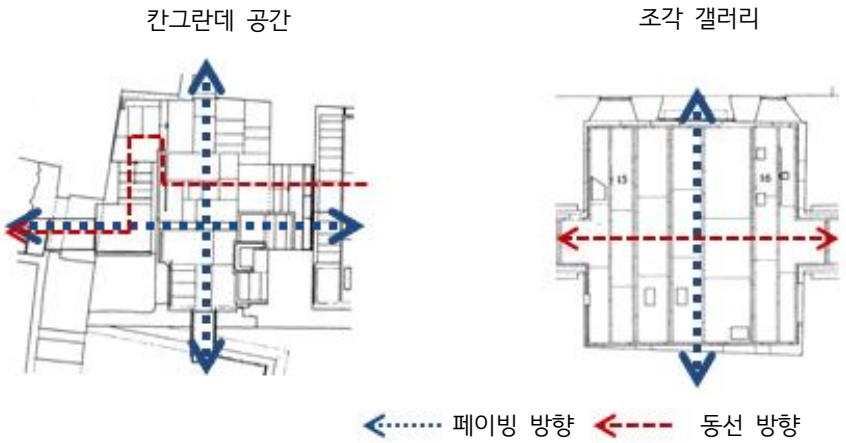
까래와 동서방향의 보가 반복되는 천장은 각 방의 형태를 부각시키도록 변형된다. 지상층의 각 방 천장은 모두 동일하게 생겼지만 십자형의 콘크리트 보가 각방의 입방체적 성격을 부각시켜 각 방의 조각상들의 배치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독자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상층의 천장을 가로지르는 철골 보는 방의 중심인 십자형 콘크리트 보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독립적인 조각갤러리들을 통합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스카르파의 해석에 의하면 모든 보와 방의 중심인 이 지점은 마치 기둥처럼 방의 상징적 중심성을 부각시킨다. 철골 보와 남북방향 내벽 사이의 틈은 철골 보가 전체 갤러리를 관통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주어 지상층의 통합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바닥 또한 조각 갤러리의 독자성과 통합성을 위해 계획되었다. 역사적 바닥보다 위로 올라와 분리된 판을 형성하는 지상층의 바닥은 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도드라져 보인다. 바닥과 벽의 분리에 의해 생긴 틈은 그 사이로 컨버전 이전의 역사적 바닥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바닥의 영역성, 즉 조각 갤러리의 영역을 부각시켜 통합성과 각방의 독자성을 주는 장치가 된다. 결과적으로 바닥판은 각방 사이의 아치형 개구

부를 통해 방들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바닥면들이 붙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스카르파가 의도한 각방의 연결과 독자성이 해결된다.

'카스텔베키오를 지었던 옛 사람들은 방들의 형태적 동질성과 그들의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나는 재건 이전에 만들어진 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방의 독창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중을 받는 요소를 드러냈다. 사각형 형태의 각 방에서 콘크리트 보가 교차하는 지점을 받치는 철골 보를 두어 건물의 형태적 구조를 이루는 중심선을 가리키도록 하였다. 여기서 보가 교차하는 중심은 전체 공간을 정의하는 기둥을 암시하기 때문에 강조된다.'

스카르파는 조각 갤러리에서 조각상에 율동감을 주고 관람자가 능동적으로 각 방의 구석구석을 움직이도록 지상층의 페이빙의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조각 갤러리의 페이빙은 남북의 방향성을 띠며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선과 직각을 이룬다. 직교하는 방향성은 관람자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모든 작품을 사방에서 시간을 들여 관찰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그는 남북방향의 페이빙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여 이 방향의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각 조각상들이 여러 각도에서 관찰될 수 있도록 동서방향



[그림 3-20] 칸그란데 공간과 조각 갤러리의 페이빙과 동선의 방향

의 동적인 리듬에 따라 일렬이 아닌 서로 다른 위치에 교차하여 배열하였다. 페이빙의 방향성은 정면 파사드 후면의 유리 스크린에 새로 설치된 멀리언으로 연결되어 공간 전체에 이러한 리듬이 가득 차도록 만든다.

비슷한 수법이 칸그란데 공간에서도 나타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미술관의 중심 여정인 칸그란데 상과 그 역사적 맥락들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관찰하도록 페이빙이 불규칙한 방향을 이룬다.

3.2.2 작품전시를 위한 벽과 바닥 수정

(1) 매스의 추가

[그림 3-21] 천창의 빛을 받은 사첼로
출처:http://flickrhivemind.net/Tags/carloscarpa,verona

추가 전시품을 배치하고 미술관의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첼로는 칸그란데 공간과 함께 박물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소이다. Longobardic 무덤에서 나온 작은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추가된 이 작은 방은 다른 방들과는 차별되며 그 안의 작품들을 위한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다.

사첼로는 첫 번째 방의 유리 스크린 하부에 육면체의 형태로 돌출되어 추가되는데 이 깊은 공간은 작은 유적들을 위한 친밀하고 제한된 빛을 주는 공간을 만든다. 스카르파는 육면체 공간의 벽을 암녹색으로 처리하고 가로방향의 슬릿 창을 두어 무덤에서 유적이 지금 막 발굴되는 듯한 효과를 준다. 또한 슬릿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시간에 따라 그 강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첼로의 삼면에 전시된 작고 섬세한 조각들이 그 세밀함을 드러낸다.

초기 드로잉을 살펴보면 사첼로의 천창은 사각형이나 수직창 등 많은 변화를 겪는다. 스카르파는 창에서 들어오는 빛과 내부 공간, 그리고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했고 최종적으로 시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 빛을 제공하는 수평창을 선택하였다. 얇고 긴 슬릿형의 수평창을 통해 위에서 들어온 빛은 매우 날카롭게 떨어진다. 사첼로의 측벽을 따라 사선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빛은 관람자가 공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빛 속에 전시되는 전시품에 강한 인상을 받도록 만든다. 오른쪽 벽에 매달려 있는 메달리온은 천장으로부터 강한 빛줄기를 받아 질감과 음각이 부각되며 메달리온과 벽 사이의 틈은 깊은 그림자를 드리워 작품의 두께와 질감을 강조한다. 반대편의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청동 접시에는 창을 든 전사가 양각되어 있는데 천장의 얇은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다시 생명을 얻어 움직이는 듯하다. 땅속과 같이 어두운 사첼로 공간에 들어오는 강렬한 빛은 시간에 따라 이동하며 조각들에 생기를 부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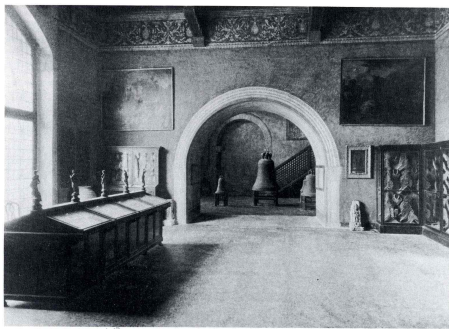
사첼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전망은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스카르파는 사첼로의 천창을 포함한 몇몇 유리 스크린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전망을 계획한다. 사첼로의 슬릿한 창은 대정원 너머의 탑과 흉벽을 보여주어 전시물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감상될 수 있도록 한다.

사첼로 바닥의 붉은색 테라코타 타일은 암녹색의 플라스터 벽과 대비를 이룬다. 색의 대비는 세 번째 방의 붉은색과 연회색의 스크린, 그리고 일층 갤러리 바닥에서도 나타나는 방법으로 작품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첼로의 암녹색벽은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붉은 색 바닥은 조각상의 색과 대비되어 사첼로와 내부 작품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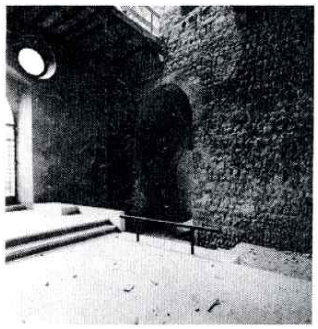
(2) 공간의 수직적 통합

미술관 여정의 중심인 칸그란데 공간은 전체 컬렉션의 주인공인 칸그란데 기마상을 위해 변화한다. 스카르파는 초기에 역사적 성채의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의 입구 홀이 위치한 첫 번째 베이와 북동탑 사이를 파괴하고 이곳의 개방된 공간에 입구와 함께 칸그란데 상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미술관 여정의 처음부터 칸그란데 상을 마주치는 것을 수정하였으며, 서쪽의 해자와 탑으로 가는 입구인 Porta del Morbio가 발굴되면서 미술관의 여섯 번째 베이를 파괴하고 칸그란데 상을 이곳으로 옮겨온다.

칸그란데 공간은 두 번의 변화과정을 겪는다. 최초로 지하 통로인 Porta del Morbio가 발굴되면서, 여섯 번째 방의 벽체였던 코뮌 벽의 칠을 벗겨



(a) 다섯 번째 방에서 본 현재의 칸그란데 공간(아베나 시기)



(b) 일차 작업 후 칸그란데 공간

[그림 3-22] 다섯 번째 방에서 지금의 칸그란데 공간을 바라본 모습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a)p.88, (b)p.90

내고 지상층과 일층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회벽으로 막혀있어 외부와의 관계나 코뮌벽의 존재감이 없었던 갤러리는 역사적 요소를 풍부하게 드러내고 병영건물과 코뮌벽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코뮌 벽에 드러난 여러 단계에 걸친 축조과정은 건물의 내부 환경과 작품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여섯 번째 갤러리 내부에는 일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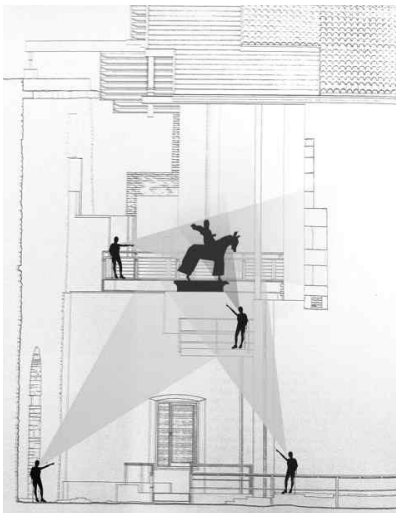
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개방공간이 아닌 통과동선, 건물의 마지막 여정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것은 마지막 방의 중요성을 떨어뜨렸으며 레지아와의 통합성을 해치는 요인이었다.

1차 작업 후, 해자가 추가적으로 발굴되고 정면 파사드의 파괴가 결정되면서 여섯 번째 방은 칸그란데 상을 위한 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한다. 칸그란데 공간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칸그란데 기마상은 1311년에서 1329년까지 베로나의 영주였던 델라 스칼라 가문의 가장 유명한 인물인 칸그란데를 묘사하는 작품으로 건물의 역사뿐만 아니라 베로나의 역사를 대표하며 베로나 시민들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스카르파는 건물, 장소와 관련이 깊은 칸그란데 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여섯 번째 방의 남쪽과 북쪽 벽의 의도적 파괴는 건물 내, 외부의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을 칸그란데 공간 내부로 유입시켜 축적된 시간을 통합시킨다. 특히 북측 벽을 파괴하면서 메인 갤러리 너머에 있는 스칼리제 다리와 아디제 강이 유입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컨버전 이후, 정면 파사드와 후면의 북측벽이 없어지면서 중정-칸그란데 공간-아디제강은 시각적으로 연속되어 '맥락'을 형성한다. 아베나 시기에 칸그란데 공간은 폐쇄적이었으며 나폴레옹 계단은 코뮌벽과 메인 갤러리의 관계를 가리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시야를 내부에만 머물게 하였으며 중정-칸그란데 공간-칸그란데 상-코뮌벽-아디제 강이라는 맥락의 확장이 아닌 중정-중정 내부의 조각작품들이라는 독립적인 환경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해자와 Porta del Morbio의 발굴로 촉발되어 스카르파가 계획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스칼리제 가문 때에 축조된 스칼리제 다리와 아디제 강은 건물의 형성과 역사적 단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람자가 그 시대의 주인이었던 칸그란데 상을 독자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닌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코뮌 벽과 Porta del Morbio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일층 슬라브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미술관 내부에 가장 크고 개방적인 전시 공간을 형성하여 동일한 평면에 변화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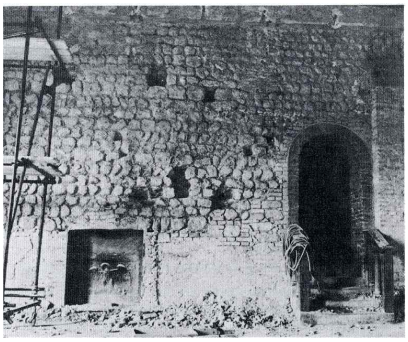


[그림 3-23] 칸그란데상의 뷰포인트

스카르파는 칸그란데 상을 그와 관련된 역사적 환경 속에 극적으로 놓기 위하여 기존의 요소들을 변화시킨다. 첫째로, 관람자가 전 컬렉션의 중심인 칸그란데 상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마주치도록 한다. 정면 파사드가 제거되면서 조각상은 최초에 대정원에서부터 눈에 들어오며, 방문자는 칸그란데 공간이 미술관의 하이라이트임을 직감한다. 또한 지상층과 일층이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칸그란데 공간을 가로지르는 동선이 새로 계획되면서, 관람자는 조각상을 밑에서, 가까이서, 그리고 주변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스카르파는 일층 슬라브를 철거하여 전체 미술관에서 가장 큰 전시 공간을 확보하면서, 일층 높이의 받침대에 칸그란데 상을 전시한다. 전시 높이는 기존의 조각상이 지붕 위에 전시되어 베로나의 상징성을 드러내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은 미술관에서 컬렉션의 중심성을 드러내고 작품을 밑에서 관람하는 흔치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상층의 관람자는 조각상을 밑에서 바라봄으로서 미술관의 주인인 칸그란데 상에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스카르파는 그가 의도한 칸그란데 상의 표현을 위해 조각상을 일층 레벨까지 위로 올리고 처음 공간에 들어섰을 때, 관람자가 칸그란데 조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처음 공간에 들어서면 공간의 높이와 개방감으로 인하여 조각상은 보이지 않으며 다양한 레벨로 이루어진 바닥과 함께 역사적인 코뮌 벽과 그 아래로 Porta del Morbio, 해자의 흔적이 보인다. 관람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상부의 칸그란데 상으로 시선을 올린다. 조각갤러리와 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페이빙과 사방으로 형성된 레벨은 관람자가 공간에 머물면서 천천히 주위를 관찰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3-24] 변경 전의 2층 통로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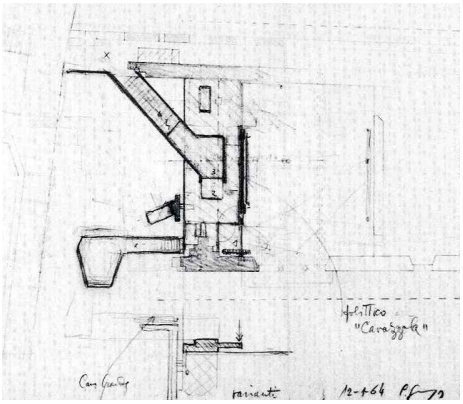
[그림 3-25] 작업 후의 2층 통로

스카르파는 발굴된 Porta del Morbio를 역사적인 전시 요소로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측면에 내부중정과 레지아로 이어지는 개구부를 설치하여 칸그란데 공간을 통하는 새로운 연결동선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병영건물과 레지아는 지상층과 2층에서 두 번 연결되었으며 칸그란데 공간은 전체 미술관에서 유일하여 두 번 마주치는 갤러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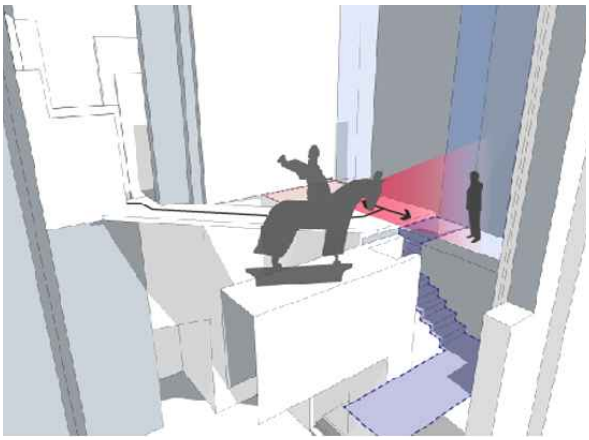
아베나 시기에 병영건물과 레지아는 2층 레벨에서 유일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두 건물은 분리된 느낌이 강했다. 스카르파는 기존의 개구부를 벽돌로 막고 그 오른쪽에 사선 브릿지로 이어지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다. 통로가 북쪽 모서리로 이동하면서 전시공간은 방해물 없이 온전히 개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칸그란데 조각에 다다르는 독특한 동선을 만들었다. 이 동선은 로지아의 조각상과 마찬가지로 신성함을 부각하는 일정한 거리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위치가 수정된 2층 개구부는 통로의 자취를 유지하여 역사적 구성과 연결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칸그란데 공간의 중심성과 신성함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활용된다.

2층 개구부를 통해 계단을 내려와 사선 브릿지를 건너는 과정에서 관람자는 칸그란데 상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성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수직적 형태로 절개된 북측벽은 건물과 시간의 역사적 단면들을 보여주는데, 관람자는 계단 위에서 스칼리제 다리와 아디제강을 가장 먼저 마주친다. 외부 전망을 보여주는 북측벽은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병영건물의 외벽, 그 안의 회벽칠된 벽과 새로 설치된 콘크리트벽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요소들은 교묘하게 서로 교차하고 어우러진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은 사선의 브릿지로 방향을 돌리면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간과 대중정 너머의 전체 건물을 보고, 최종적으로 칸그란데 상을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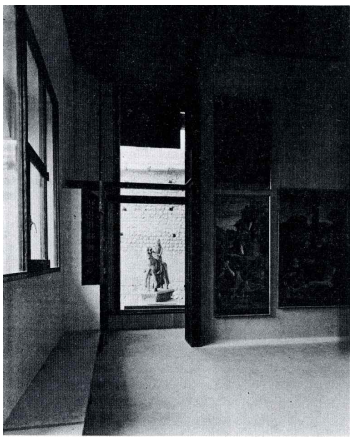
사선 브릿지와 일층갤러리 사이에 형성된 작은 테라스는 칸그란데 공간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다. 스카르파는 일층 슬라브의 일부를 남겨 일층 첫 번째 갤러리 앞에 작은 테라스를 둔다. 이 테라스는 전망대와 일층 갤러리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여 칸그란데 상의 관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스카르파는 칸그란데 공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갤러리 곳곳에서 이 공간과 조각상을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공간 계획을 추가한다. 초기 스케치를 보면 그가 이 부분에 좀 더 큰 테라스를 계획한 것이 보이는데, 후에 칸그란데 상의 신성함을 중요시하면서 테라스의 크기를 줄이고, 일층 갤러리 입구를 테라스와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옮겼다. 이 우회적인 동선은 조각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테라스와 전망대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3-26] 일층 테라스 초기안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105



(a)입구 반대편의 전망대와 내부 관람대



(b)일층 첫 번째 갤러리에서 보이는 칸그란데 상

[그림 3-27] 칸그란데 공간의 일층레벨 동선과 유리스크린을 통한 확장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192

칸그란데 공간의 변화는 일층 갤러리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카르파는 처음부터 칸그란데 상과 코뮌 벽의 존재가 갤러리 내부까지 확장되기를 바랐으며, 이것은 일층 갤러리 입구 전면의 목재 스크린과 유리스크린, 그리고 칸그란데 공간을 마주보는 첫 번째 방 내부의 작은 관람대 계획으로 연결된다. 내부의 관람대는 일층 갤러리에서도 편안하게 칸그란데 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며 유리스크린을 통해서 조각상의 존재는 일층 갤러리까지 확장된다. 또한 상부의 목재 스크린은 내부 관람대에서 외부전망을 칸그란데 조각상으로 한정시켜 조각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과거에 지상층과 일층의 벽은 두꺼운 벽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의 외부는 갤러리 내부로 융합되지 못했으며 전시품들 또한 막힌 공간에 배치되었다. 스카르파의 작업 후, 이 부분의 두꺼운 성벽을 유리로 교체하면서 그 두께와 가시성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공간은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으로 흘러들어간다. 스카르파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칸그란데 공간이 인접한 갤러리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15-18세기의 작품들

을 전시하는 일층 갤러리가 비슷한 연대를 갖는 건물과 서로 융합하고 칸 그란데 상이 여러 시점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28] 칸그란데 공간의 변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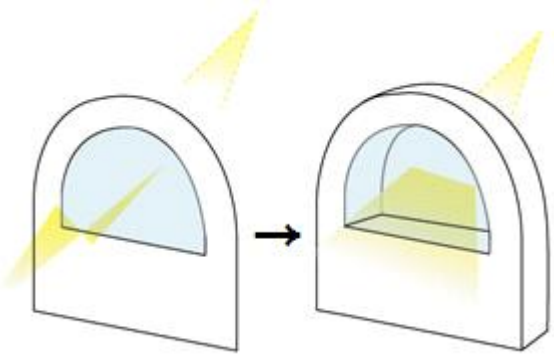
①	**북측벽의 파괴:** 아디제 강과 스칼리제 다리를 공간 내부로 끌어들여 '칸그란데 공간-아디제 강-스칼리제 다리'의 시각적으로 연속된 맥락을 형성한다.	**3가지 역사적 단계의 통합** 중정-칸그란데 공간-칸그란데 상-코뮌벽-아디제 강-스칼리제 다리
②	**남측 파사드의 파괴:** 독립되었던 방의 단면이 드러나면서 코뮌벽과 메인 갤러리는 역사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중정에 한정되었던 시야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칸그란데 공간과 조각상까지 확장된다.	
③	**지상층→레지아 동선 추가:** 동서방향의 동선을 분리시켜 칸그란데 공간을 일층과 다른 시점에서 한 번 더 마주치도록 한다.	
④	**레지아→일층 동선 수정:** 좁은 통로를 지나 유일하게 개방된 전시공간을 극적으로 체험하게 하며, 오른쪽으로 치우친 개구부는 칸그란데 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동선을 형성한다.	
⑤	**유리 스크린으로 교체된 벽:** 두꺼운 벽체로 분리되어 있던 방들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칸그란데 공간의 다양한 역사적 단계와 조각상의 모습이 갤러리 내부로 확장된다.	

[표 3-2] 칸그란데 공간의 변화와 효과

3.2.3 채광을 위한 구조체의 변형

(1) 유리 스크린의 레이어링

[그림 3-29] 깊고 부드러운 조각 갤러리의 음영



[그림 3-30] 유리 스크린의 레이어링

정면 파사드를 이루는 고딕 아치창문의 레이어링은 지상층에 깊고 풍부한 빛을 준다.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스카르파는 현재와 같이 고딕의 아치형 개구부 뒤로 유리 스크린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구부에 유리를 갈아 끼우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따라서 초기 스케치들을 보면 각 갤러리의 개구부 형태에 따라 창문 내부의 멀리언 패턴은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개구부 뒤로 레이어링된 새로운 유리 스크린은 스카르파가 전체 파사드를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다. 이 새로운 스크린은 성벽의 두께만큼 뒤로 물러나있으며 개구부의 복잡한 형태를 추상화하여 단순한 형태의 아치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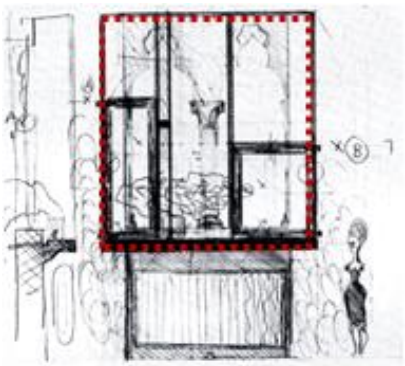
유리 스크린은 목재와 철재로 만들어진 멀리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멀리언들은 외부 파사드와 조각 갤러리 내부에 리듬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최종적인 유리 스크린은 초기안과 같이 국부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전

체 파사드에 비대칭적 구성을 만들어내 새로운 리듬을 형성하며, 일층 개구부의 수직 멀리언들과 연속하여 보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읽힌다.

벽두께만큼 후퇴한 유리 스크린과 멀리언들은 그 깊이로 인하여 풍성한 빛과 그림자를 내부에 비춘다. 스카르파는 갤러리 내부 공간에서 적절한 빛만큼이나 풍성한 그림자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조각 갤러리에서 명암대비를 통해 작품들의 세밀한 표현과 인물상들의 옷깃 하나하나와 섬세한 표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치형의 개구부와 셋백된 유리 스크린을 통해 유입된 풍성한 질감의 빛은 받침대와 바닥 사이의 틈과 거친 벽에 그림자를 만들며 이것은 조각상에 비치는 명암과 함께 조각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또한 유리 스크린의 멀리언은 바닥의 페이빙과 같은 방향의 그림자를 드리워 각 방에 조각 관람을 위해 도입된 남북방향의 리듬감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스카르파는 각 방의 가장 큰 창문인 유리스크린의 높이까지 계획하여 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전시전망을 위한 장치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첫 번째 방과 다섯 번째 방에서 두드러지는데 내부의 관람자는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높이 설치된 유리스크린을 통해 외부의 탑과 성벽만을 보게 된다. 첫 번째 방에서는 사첼로, 다섯 번째 방에서는 솔리드한 스크린을 통해 창문턱의 높이를 높여서 현대적 공간인 대중정을 제외한 역사적 요소인 건물의 일부들을 보여주는 방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관람자가 건물 밖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세계에서 벗어나 작품들을 온전히 역사적 세계 안에서 관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내부 관람객은 미술관의 작품들을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건축공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

(2) 측광의 각도 조절



(a) 유리스크린을 통한 외부 전망을 그린 초기 스케치

(b) 측광을 받은 Santa Caterina

[그림 3-31] 지상층 유리스크린의 효과
출처: Richard Murp -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 -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a)p.80, (b)p.58

조각상을 전시하는 공간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다양한 양감을 만들어내는 빛이다. 스카르파는 가장 큰 유리 스크린 옆에 있는 사각형의 작은 창문을 부분적인 측광을 끌어오는 요소로 사용한다. 이 작은 창문을 감싸는 두꺼운 벽은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 빛이 벽을 타고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하며 사선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은 조각상을 섬세하게 비추기 때문에 조각 갤러리에 필수적인 채광 요소가 된다.

그 예로 두 번째 갤러리의 입구인 아치벽의 바로 뒤에 서있는 성녀 카트리나를 들 수 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보이는 이 조각상은 마치 눈앞의 사람에게 보여주듯이 한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손에는 톱니바퀴를 들고 있으며 갤러리에 들어온 사람을 응시한다. 스카르파는 갤러리로 들어오는 관람자가 아치벽 뒤에 숨어있는 카트리나의 시선과 순간적으로 마주치도록 조각을 배치하여 관람자는 깜짝 놀람과 동시에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조각상 너머로 두꺼운 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은 성녀를 측면에서 비추어 관람자는 빛 속에서 조각상을 보게 되는데, 빛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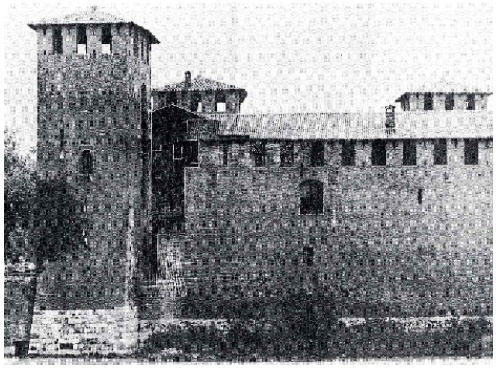
[그림 3-32] 빛을 활용하는 작품의 배치. 레지아
출처:http://flickrhivemind.net/Tags/carloscarpa,verona

조각상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피사체의 성스러움을 부각시키며 표정과 옷자락 하나하나의 음영을 세밀하게 드러낸다. 또 다른 방에 전시된 작은 카트리나 상도 측창을 받아 온화한 성녀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네 번째 조각 갤러리에 있는 십자상과 두 성인상(Crocefissione e Santi)은 전체 컬렉션 중에서 중요한 조각 작품중 하나이다. 이 조각상들은 컨버전 작업 이전에 성당에 전시되었던 작품들로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으로 옮겨오기 이전과 이후의 전시 모습을 통해 스카르파의 전시방식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조각 작품들은 전체적인 전시방식의 탁월함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떨어지는 측광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조각상에 남측의 측광을 비추어 조각상을 효과적 표현하는 것은 갤러리 전체에서 사용된다.

일층의 회화 갤러리와 레지아에서도 측창을 이용해 작품에 적절한 빛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스카르파는 몇몇 그림에 Correr 박물관에서 디자인했던 이젤을 사용하여 방문자가 자유롭게 그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곳에서는 그림이 움직임에 따라 점점 보이도록 하거나 방의 한가운데에 전시된 작품의 특정 요소들이 빛에 의해 강조되도록 한다.

(3) 북동측 벽의 부분적 제거



(a) 초기 스케치 (b) 절개할 부분을 스케치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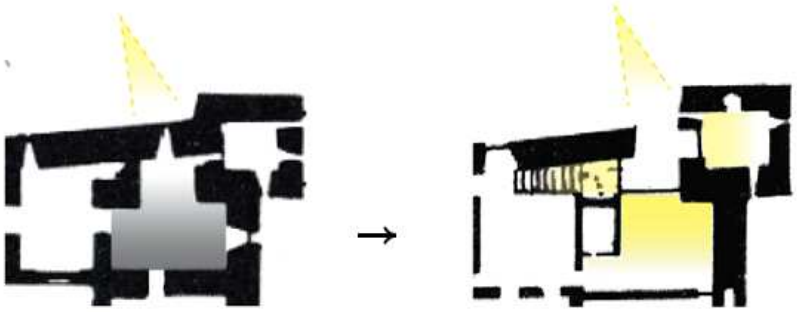
[그림 3-33] 북동쪽 외벽의 스터디 과정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a)p.161, (b)p.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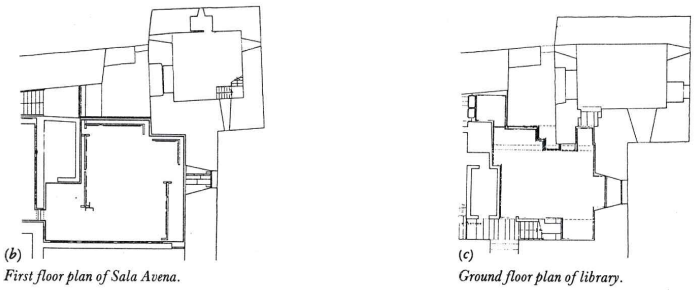
건물의 역사적 단계를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베이와 북동탑 사이의 절개는 결과적으로 형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북동탑, 도서관, 그리고 Sala Avena의 채광에 영향을 준다. 벽의 절개로 인해 그 사이에는 ㅁ자형의 작은 외부공간이 생기며 유리와

목재로 구성된 새로운 삼차원 스크린이 잘려나간 벽체에 삽입된다. 역사적 성벽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내부 공간은 원래 그 두꺼운 벽과 한정된 개구부로 인하여 어둡고 닫힌 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방어적 기능이 필요없는 현대 미술관에는 부적합하였다. 절개로 인해 비워진 공간은 아디제강과 건물 사이에 테라스를 만들며 표면적이 넓어진 삼차원 스크린을 통해서 충분한 빛이 유입된다. 스카르파는 목재와 유리로 이루어진 스크린이 출구계단과 도서관, Sala Avena에 빛을 비추도록 그 디자인을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그는 미술관을 순환하는 것을 역사적 세계로의 여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림 3-34] 절개 전과 후의 채광조건 변화



[그림 3-35] 절개 후의 지상층과 일층의 평면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155

여정의 끝인 출구계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람을 마친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여정인 계단을 내려가며 성벽의 삼차원적 절개로 인해 생긴 ㅁ형태의 개방된 벽은 계단참에 이르는 벽의 전체 높이에 걸쳐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하여 폐쇄된 공간을 밝게 비추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카르파는 작업을 위임받은 초기부터 도서관을 현재의 메인 갤러리인 나폴레옹 병영 블록의 북동쪽에 둘 것을 계획하였다. 병영의 북동쪽은 인접한 입구 홀에서 쉽게 통제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서도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역은 유일하게 중정과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풍부한 빛이 들어오지 못했다. 동쪽의 총안과 북쪽의 발코니로 통하는 작은 유리문으로 유입되는 빛이 전부였다. 도서관 북측벽의 유리 스크린은 고립된 모서리 공간에 충분한 빛을 제공하며, 도서관에 새로운 빛이 유입되면서 깊은 벽의 작은 채광창에만 의지했던 초기안과 달리 통합된 큰 공간으로 도서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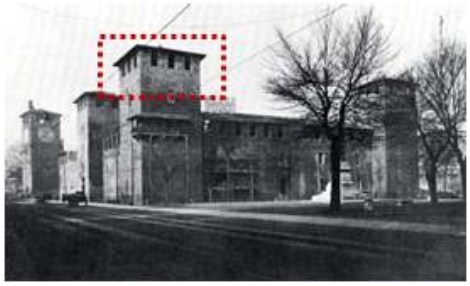
일층 갤러리의 동쪽에 Sala Avena가 추가되고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홀이었던 Sala Boggian이 전시관으로 전용되면서 현재 절개된 부분과 탑 내부를 채우던 백 스테이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최종적으로 전체 높이에 걸친 이 부분의 절개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탑과 첫 번째 베이 사이의 절개는 중정에 접하지 않는 전시관에 필요한 북측광을 끌어들였다.

삼차원적 절개는 북측 성벽에 의해 가려졌던 북동탑의 서측 입면을 노출시킨다. 이로 인해 탑의 지상층과 일층에 있는 가려졌던 아치형 개구부가 드러난다. 컨버전 이전에 고립된 북동탑은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지만 컨버전 후에 채광을 통해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동쪽 건물이 도서관과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북동탑은 이와 연계된 사무공간으로 바뀌었다.

3.3 외관변화를 통한 시각적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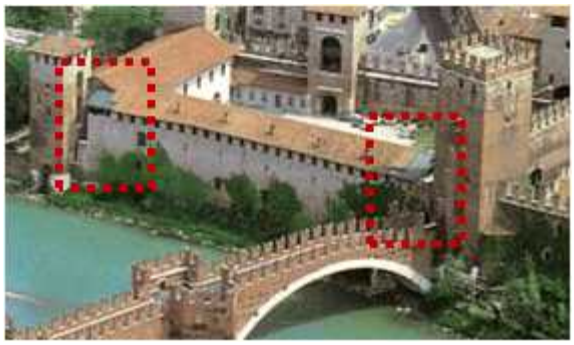
3.3.1 역사적 형태의 부분적 절개

(a) 병영건물 시기의 형태



(b) 아베나 시기의 형태

[그림 3-36] 병영건물 시기와 아베나 시기의 건물 형태
출처: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p.6



[그림 3-37] 스카르파 작업 이후

카스텔베키오는 역사상 크게 두 번의 사용상의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병영건물에서 미술관으로 첫 컨버전이 일어났던 아베나 시기이며, 두 번째는 현재모습으로 변화한 스카르파의 작업 시기이다. 미술관으로 컨버전되기 이전에 건물은 여러 역사적 단계 동안 병영건물로 사용되었으며 몇 번의 형태적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병영건물의 특성상 건물은 도시에서

고립되어 있었으며 시민을 위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이나 도시적 차원에서 장소성을 갖기는 힘들었다.

1923-1926년에 첫 컨버전이 일어나면서 건물의 경관은 변화하였다. 딱딱하고 기능적이었던 건물은 성과 같은 형태로 변하는데, 사방의 탑과 출입구 탑은 높게 솟아올랐으며 남서쪽의 탑에는 시계가 설치되어 도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성곽 내부의 정면 파사드 또한 고딕식으로 바뀌어 병영의 흔적이 약화되었다.

스카르파 작업 후,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은 새로운 장소적 의미를 획득한다. 미술관은 형태적으로 수정되며 재료를 통해 베로나와의 관계는 재구축된다. 형태적 수정은 칸그란데 공간과 북동탑 부분에서 나타난다. 병영건물이었던 코뮌 벽 동쪽의 L자형태의 미술관은 아디제 강과 도시에 방어적인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육중하고 무거운 느낌이 강했으며 외부로 향하는 제한적인 개구부는 이러한 느낌을 배가시켰다. 스카르파의 컨버전 작업 이후 서로 다른 역사적 단계를 갖는 건물의 모서리들은 부분적으로 절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동탑과 같은 건물의 독립적 요소들은 다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또한 절개된 매스는 좀 더 가볍고 자유로운 경관을 형성하며, 의도된 파괴의 흔적들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어 역사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

3.3.2 주변경관을 반영하는 재료 사용

[그림 3-38] 주변 맥락 속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

[그림 3-39] 아디제강 - 구리지붕 - 기와지붕

절개된 부분에 새롭게 삽입된 구리지붕은 건물이 지역적 장소성을 갖도록 한다. 스카르파는 미술관의 내, 외부에서 건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아디제 강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아디제 강과 만나는 부분에 강의 색과 유사한 파란빛의 구리지붕을 설치하여 아디제강, 나아가 베로나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다.

절개된 부분의 구리지붕은 그 색을 배제하더라도 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12세기부터 계속된 건물과 베로나의 건물들은 비슷한 양식을 띠기 때문에 도시는 통일된 전망을 갖는다. 스카르파에 의한 철재의 사용은 회벽칠된 벽과 붉은색 기와로 이루어진 베로나의 경관에 현대적 요소를 삽입한다. 오래된 재료들과 현대적 재료의 혼합은 각각이 갖는 시간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과거의 요소들로 가득찼던 경관에 현대라는새로운 시간을 도입한다.[3] 결과적으로 스카르파의 작업으로 인해 카스텔베키오는 시간적 상징성을 갖는 장소로 인식된다.

---

3) Alois Riegl은 시간성의 가치는 오로지 새로움의 가치와의 관계를 통해 유지된다고 하였다. "Only age-value maintains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newness value,", Scott Demel, A Theory of Architectural Additions, Columbia Univ, 1996, Chapter2,

3.4 소결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시간, 용도, 장소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각각을 구현하는 건축적 요소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시간성을 인식시키는 요인에는 감촉적이고 일차원적인 요소인 재료부터 양식이나 흔적들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면, 그리고 삼차원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의 구성방식이 있다. 서로다른 시대적 산물인 재료는 특유의 물성을 가지며 역사적 재료와 현대적 재료의 결합은 감촉성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된다. 사용자는 재료에 함축된 시간의 흔적들을 만져봄으로써 두가지 시간과 동시에 연결되며 그 극단적 대비를 통해 시간은 더욱 강하게 인지된다. '면' 요소는 재료가 확장된 것으로 그 안에는 시간을 담는 더욱 다양한 요소들이 남겨진다. 바닥이나 벽과 같은 면은 물성 외에도 사건의 흔적, 사용의 흔적, 또는 시대적 양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난 시간의 구체적 장면들을 경험한다. 면 요소 또한 단순히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면과 만나면서 더욱 폭넓은 시간대를 표현하며 강하게 인지된다. 평면구성은 비실체적인 것으로 면 요소가 한정하여 만드는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평면구성은 감촉적, 시각적으로 경험되기보단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요소이다. 사용자는 전통적으로 미술관에 사용되었던 공간과 다른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일상적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건물의 시간성과 독특함을 깨닫게 된다. 용도의 관점에는 미술관의 기능적 특성과 작품의 성격에 따른 요소가 포함되며 전시배경, 전시공간, 전시채광, 전시동선을 들 수 있다. 전시배경에는 벽, 바닥, 천장과 같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요소가 속한다. 배경들은 기본적으로 전시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미술관이 담는 작품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카스텔베키오의 작품들은 상설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배경은 각 작품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감과 질감을 선택하며 현대 예술작품보다는 유물이나 오래된 회화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건물에 남겨진 시간적 요소들은 작품의 시간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이용된다. 전시 공간 또한 상설작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하며 사첼로와 칸그

란데 공간에서 보듯이, 전시배경과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전시채광은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요소로 회화작품과 조각작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특히 조각작품은 작품에 따라 다른 방향성과 디테일을 갖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빛의 질이 달라진다. 전시동선은 기존 건물의 평면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은 형태와 입면을 포함하는 경관의 변형을 통해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성을 획득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표 3-3] 장소를 재구성하는 요소의 도출

시간성을 드러내는 요소		미술관으로 변하기 위한 요소		경계를 확장시키는 요소	
공간구성	최초의 용도에 의한 공간은 신축 미술관의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형태와 행위의 이질감을 통해 다른 시간을 경험한다.	**전시배경**	역사적 벽의 특성들은 전시와 작품의 종류에 따라 형태와 질감 등을 남겨 작품의 해석과 미술관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	**외관변화**	건물의 형태와 입면재료의 변화는 주변지역의 시각적 특성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상징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표 면	벽, 바닥, 천장에 남겨진 양식, 사건의 흔적 또는 형태는 특정한 과거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전시공간**	기존 건물의 공간구성은 미술관에 맞게 변화하면서 전형적인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전시공간을 형성한다.		
재 료	오랜 시간을 견뎌 변화된 재료의 감촉성과 형태는 그 자체로 시간을 경험하는 일차원적 요소이며, 현대적 재료의 물성과 대조될 때에 두 시대를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전시채광**	전시에 적합한 채광을 위한 천장과 벽 등의 구조체의 변화는 건물형태와 투명성의 변화로 이어진다.		

제 4 장
현대 미술관 컨버전 방식의 다양화

4.1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4.1.1 과거를 회상시키는 행위와 빌딩타입의 차이
4.1.2 서로 다른 시간을 중첩시키는 표면
4.1.3 시간의 경계를 표현하는 재료
4.2 전시를 위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4.2.1 작품해석의 요소로 이용되는 벽면
4.2.2 다양한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볼륨 조절
4.2.3 균일한 채광을 위한 개구부 수정
4.3 미술관을 도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방식
4.3.1 시각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외관의 변화
4.3.2 광역적 연결계획을 통한 물리적 영역의 확장
4.3.3 지속성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삽입

4.1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4.1.1 과거를 회상시키는 행위와 빌딩타입의 차이

컨버전된 건물에서 시간은 공간의 형태나 질과 같은 비물리적 요소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공간의 형태나 질은 최초에 요구되는 용도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조건 등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감촉성과 같이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3차원적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시간은 공간의 스케일과 공간들끼리의 연결, 즉 방들의 구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현재의 사용자는 다른 행위를 통해 용도에 의해 계획된 공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간의 스케일과 질을 경험하며 이것은 다른 분위기를 유발하여 이질감과 시간성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사원의 특수한 공간 스케일과 구성이 남아있는 코르바의 성당에서 공간의 구성과 형태는 현재의 행위를 담는 전형적인 성당의 빌딩타입과 차이를 갖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괴리를 경험함으로써 건물에 축적된 역사를 경험한다.

[그림 4-1] Mosque-Cathedral of Cordoba

중국의 다산쯔나 티엔즈팡, 한국의 문래동, 다대포와 같이 노후화된 건물, 특히 산업유휴시설이 예술 컨텐츠를 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히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생하던 오염 산업이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술이 된다.[1] 이것은 새로운 용도의 삽입을 통해 한 장소에서 정 반대의 성격을 체험한다는 것 자

1) Dialogue_아트팩토리, 도시계획 전체를 반성하는 기회: 박신의, 구영임, 김윤환, SPACE 2009:9

체가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간의 흔적들은 컨버전을 통해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통해 체험되기 때문에 시간은 일상의 영역에 포함되며 과거와 현재는 연속된다. 건축을 그 안에 사람이 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현재의 삶과 닿아있지 않는다면 닫힌 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컨버전된 건물에 축적된 시간은 '현재로 확장'되기 때문에 문화재 건물이 갖는 역사적 시간과 차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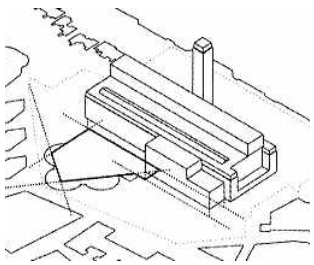
(1) 과거 빌딩타입의 유지

2000년도에 개관한 테이트 모던은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던 화력발전소인 뱅크사이드(Bankside) 발전소를 컨버전하여 만들어진 현대미술관이다. 건축가 길버트 스코트(Giles Gilbert Scott)에 의해 지어진 건물은 공해문제로 발전소가 이전한 1981년 이후 그 역사적 건물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온전히 보존한 예이다. 헤르조그 드 뫼론은 역사적 매스 전

[그림 4-2] 과거의 보일러 홀

[그림 4-3] 과거의 터빈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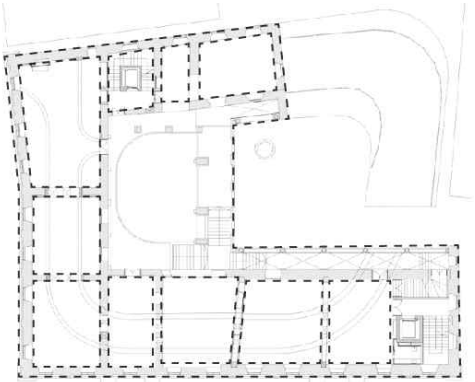
체에서 나오는 대칭성, 즉 내부의 삼등분된 공간과 중앙 굴뚝, 그리고 입면의 창문이 건물의 강한 특징이며 이 건물만의 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보일러 홀, 터빈 홀, 스위치 홀로 이루어지는 내부의 삼분할 구조는 보존되며 공간의 이용 또한 이대로 유지된다. 발전소는 원래 슬라브가 없이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개방된 작업공간이었다. 컨버전 후 세 개의 공간 사이에는 벽이 생겨 물리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수많은 보일러와 기계들이 설치되었던 보일러 홀은 5개 층에 걸친 갤러리로 바뀌며 옥상의 유리 박스를 포함하여 총 7층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보일러 홀에 있는 기존의 주요 철골구조에 네 개의 길고 짧은 반투명박스를 매달아 터빈홀과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터빈 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의 거대 공간으로 사용된다.



[그림 4-4] 테이트 모던2 매스의 도출 과정

공간구성상의 가장 큰 변화는 남쪽에 추가된 피라미드 형태의 테이트 모던2이다. 테이트 모던2는 발전소 건물과 비교하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이지만, 세 잎 클로버 형태의 지하 오일탱크의 자취를 따라 디자인되어 그 비례가 기존 건물의 그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지하 오일탱크의 특이한 형상에서 기원한 테이트 모던2는 발전소 건물의 역사와 형태를 상징화한다.

류블랴냐의 시립 미술관(Ljubljana City Museum, OFIS arhitekti, Ljubljana, Slovenia) 또한 기존의 공간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 컨버전 사례이다. 시립 미술관은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대지 또한 역사성을 가진다. 지하에서 선사시대부터 로마, 중세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이미 발굴되었고 또 다른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버전은 유동적이고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되어야 했다. 시 미술관 공간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유적이 발굴된 지하층에서 일어난다. 유적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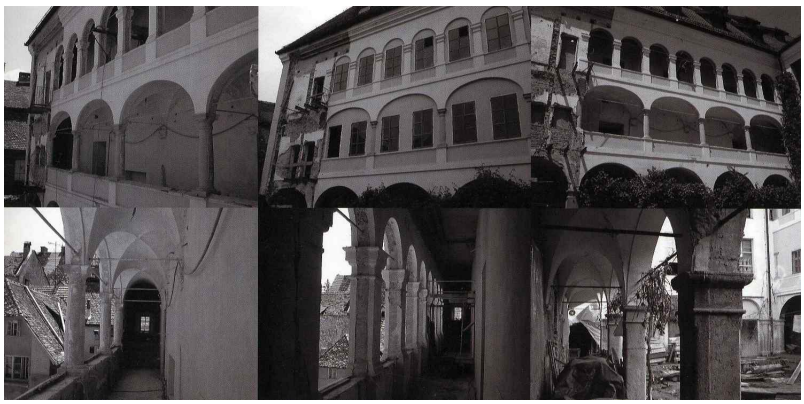


[그림 4-5] 보존된 기존 건물의 형태와 평면

[그림 4-6] 평면을 변형시키지 않는 동선축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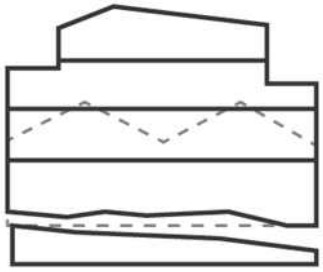
정부지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지하층은 넓은 범위로 형성되고 갈라진 중정에 램프형의 매스가 삽입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건물은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복잡하고 불연속적이었다. 따라서 미술관으로 컨버전하는 데에 동선문제가 가장 시급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동선축을 삽입한다. 새로운 나선형의 램프는 유적이 발굴된 지하층에서 시작하며 기존 건물의 평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공간을 관통하여 전시동선을 해결한다. 따라서 방문자는 램프를 따라 지하 3m레벨에서 최상층에 이르는 전시공간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7] 컨버전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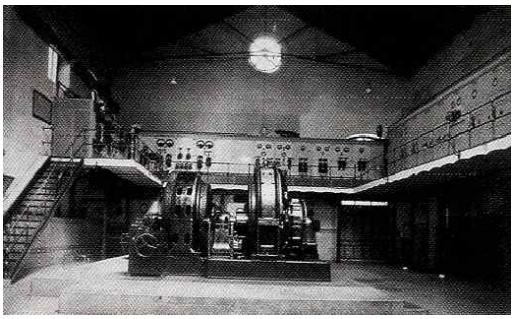
(2) 현대적 평면의 개입



[그림 4-8] 카이사 포럼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카이사 포럼(Caixa Forum, Herzog & de Meuron)은 역사적 건물의 형태에 현대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을 때 나타내는 효과를 잘 보여준다. 과거 전력소 건물은 내부가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창고형 건물의 컨버전 작업은 내부 공간의 분할과 구획으로 평면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역사적 요소는 벽체와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체에 한정되므로 외벽은 껍데기와 같이 이용된다.

Caixa Forum에서 평면은 아주 자유롭게 변화하여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컨버전 후 건물의 일층을 감싸는 외벽은 제거되어 필로티와 같이 외부에 개방된 형태의 광장을 형성하며 지상레벨을 띄우면서 건물은 지하와 지상의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underworld'라고 불리는 이 지하공간은 경사진 광장의 밑에 위치하여 극장과 오디토리움, 서비스룸과 주차장을 담는다. 역사적 외벽으로 감싼 중층부는 두 개층으로 분할되어 로비와 갤러리를 수용하며, 추가된 상부 매스는 레스토랑과 관리 공간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담는다. 광장의 상부는 기존의 박공지붕의 형태를 보여



(a) 내부의 개방된 공간

(b) 매스의 형태와 내부 공간

[그림 4-9] 과거의 전력소 모습

출처: El Croquis, 152/153: 2005 2010 Herzog & de Meuron 2010

주는 외피와 그 위에 추가된 코르텐 스틸의 새로운 매스로 구성되는데 내부의 층고는 외피의 경계와 무관하다. 추가된 매스는 층고가 낮아 작고 친밀한 분위기를 준다.

이처럼 평면은 지하층, 지상층 광장. 슬라브로 층이 분리된 상층부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사용자는 현대적으로 탈바꿈한 공간을 감싸는 외벽과 외벽의 비전형적인 형태를 통해 건물의 과거를 유추한다.

[그림 4-10] 컨버전 이후 변화된 공간구성

보로스 미술관(Sammlung Boros Collection and Residence, REALARCHI TEKTUR, Berlin, Germany)은 카이사 포럼과는 달리, 구획되어있던 각층과 방의 벽을 일부 허물어 다양한 볼륨의 공간들을 만들어낸 사례이다. 이 건물은 본래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철도 회사에서 철도역에 도착하는 여행자들을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 철근 콘크리트조 공습벙커이다. 건물은 전쟁 후에 야채 저장 공간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클럽으로, 그 후 단기 전시를 위해 사용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최종적으로 Christain Boros가 이 벙커 건물을 사들여 Realarchitektur에 디자인을 맡기면서 주택을 포함한 현대 미술 컬렉션으로 컨버전되었다.

벙커건물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총 5개의 층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건물의 내, 외부는 완벽한 대칭형으로, 파사드의 네 면에는 각각 두 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이중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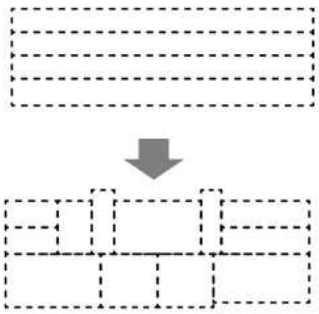
벙커건물의 기능적 평면은 현대미술을 위한 미술관으로 컨버전되면서 변

화한다. 8개의 주요 방들과 주변의 부수적인 공간들을 연결하는 길로 구성된 동일한 5개 층의 방의 일부는 수평, 수직적으로 비워져 다양한 볼륨의 전시공간을 만든다. 현재 미술관은 5개 층에 약 80개의 전시공간을 갖는데, 건물의 벽과 바닥은 일부 철거되어 더 큰 공간으로 되거나 더 작게 분할된다. 반면 남겨진 벽체와 바닥은 그대로 유지되어 구조체의 두께와 사방에 남겨진 대칭형의 계단을 통해 방어용 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특징적인 빌딩타입의 공간적 특성에 변형이 일어난 보로스 미술관은 특정한 시기와 용도를 떠올림과 동시에 변화에 흔적을 함께 경험하게 한다.

창고형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 구성과 층고를 갖고 공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컨버전 과정에서 공간구성은 부분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1910년에 지어진 다층 건물인 Wing Luke Asian Museum(Olson Kundig Architects, Seattle, USA) 또한 보로스 미술관과 비슷하게 내부 공간의 변형을 통해 신축된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Wing Luke Asian Museum은 원래 중국, 일본 필리핀 이민자들을 위한 숙소와 사교센터로 지상층의 상가와 그 위에 일용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계 중국인 세대가 미국 내에서 중류층으로 성장하면서 건물은 버려졌으며 컨버전 이후 이 지

[그림 4-11] 컨버전 이전과 동일한 입면구성



[그림 4-12] 평면구성의 변화

역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장소로 사용된다.

건물의 외형은 과거와 거의 동일하지만 내부 구성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상가로 사용되었던 지상층을 제외하면 건물의 상층부는 숙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부 평면은 현재의 원룸과 같이 좁은 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각종 전시와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하여 방들은 보로스 미술관과 같이 수직, 수평적으로 확장된다. 건물의 가장 독특한 공간인 중앙 계단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각 층을 연결하는 좁은 계단은 건물의 지붕까지 수직적으로 개방되면서 지상층까지 천창의 빛을 들이는 좁고 긴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계단은 각 갤러리로 동선을 연결하는 건물의 축이 된다.

숙소로 이용되던 작은 방들은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크기의 갤러리와 커뮤니티룸을 만든다. 하지만 공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방과 복도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원룸형 평면은 전체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람자는 그 특징적 공간구성을 통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파사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로 마감된 일층과 메자닌(mezzanine)의 전체적인 형태도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일층 부분은 과거의 공간적 특징에 현대적 공간구성 방식이 더해져 두 시대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4.1.2 서로 다른 시간을 중첩시키는 표면

(1) 역사적 표면의 보존

건물은 오랜 기간을 견뎌오면서 벽에 다양한 시간의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특정 과거를 회상시키는 사건의 흔적일 수도 있으며 풍화의 흔적일 수도 있다. 컨버전에서 이러한 흔적들은 현재의 건축적 요소에 과거를 위치시키며 사용자가 건물을 통해 폭넓은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로스 미술관의 보존된 벽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시대와 사건을 회상하고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건물의 외벽은 깨끗이 청소되었을 뿐 어떤 추가적인 마감도 더해지지 않았으며 전쟁과 역사적 시간을 거치면서 생긴 흔적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컨버전과 노후화의 과정에서 생긴 그래피티(graffiti)도 건물이 지내온 시간을 증명하는 흔적으로 남겨진다.

건축주인 Christian Boros는 외벽뿐만 아니라 컬렉션 작가들과의 협의 아래, 공습건물의 내벽의 흔적들을 대부분 그대로 남긴다.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내벽은 색색의 띠나 화살표와 같은 새로운 현대적 요소와 뒤섞여 역사적 흔적을 현대적 스토리로 새롭게 해석한다. 따라서 관람자는 총포자

(a) 외벽에 남겨진 총포 자국

(b) 내부에 남겨진 사용과 변형의 흔적

[그림 4-13] 보로스 미술관의 표면에 보존된 역사적 흔적

국과 같이 벽에 남겨진 다양한 시간의 흔적들을 현재와 혼합된 형태로 받아들이고, 축적된 시간이 만들어낸 효과들을 예술의 한 요소로 바라보면서 전쟁의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다산쯔(大山子) 798예술구 또한 특정 시대를 상징하는 흔적을 남겨둔다. 베이징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는 중요한 표지는 사회주의이다. 798예술구는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에 지어진 공장지대로, 사회주의적 이상이 반영된 바우하우스식 건물로 이루어진다.

798 Space 갤러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건물이다. 갤러리 내부에는 1950년대에 시작해 문화대혁명을 거쳐 온 건물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건물의 벽에는 아직도 “마오쩌둥 주석은 우리 마음속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이자 위대한 조타수인 마오쩌둥 주석 만세 만만세”, “자력갱생, 분발도강(自力更生, 奮發圖强)” 등의 구호가 남아있어 전국의 인민을 동원하여 고립된 고난시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혁명 표어는 갤러리의 귀중한 유물로서 작품들의 배경 또는 작품 그 자체가 되며 관람자의 심리적 시공간을 넓게 확장시킨다.

[그림 4-14] 798 space 갤러리 내부의 혁명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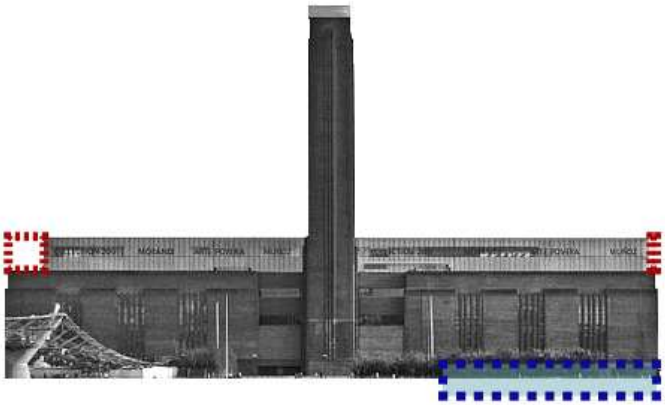
Wing Luke Asian Museum은 긴 시간을 거친 풍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벽, 천장, 바닥들로 건물 내부의 시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사례이다. 건물의 시간과 역사의 흔적은 2, 3층의 재현 전시관과 일층 소극장의 무대 배경, 을 통해 드러난다. 재현 전시관은 방한칸짜리 숙소의 모습과 초기 이민자들의 흔적을 보여주는 각종 물품과 예술품을 그대로 보존하여 이민 노동자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건물 곳곳에서 이민 노동자들의 삶이 담겨있는 요소가 여전히 사용된다. 특히 일층에 있는 소극장은 컨버전 이전에 있었던 Nippon Kan Theater의 오래된 무대 배경을 계속 사용한다. 이러한 흔적들은 과거 이민자들의 생활을 상기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상가와 숙소를 중심으로 이민 노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건물이 시간이 흘러 여전히 2, 3세 이민자들 위해서 사용된다는 공동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4-15] 소극장의 오래된 무대배경

[그림 4-16] 벽, 바닥, 천장이 남겨진 모습

(2) 다른 성질의 표면 사용



[그림 4-17] 근대와 현대의 대비적 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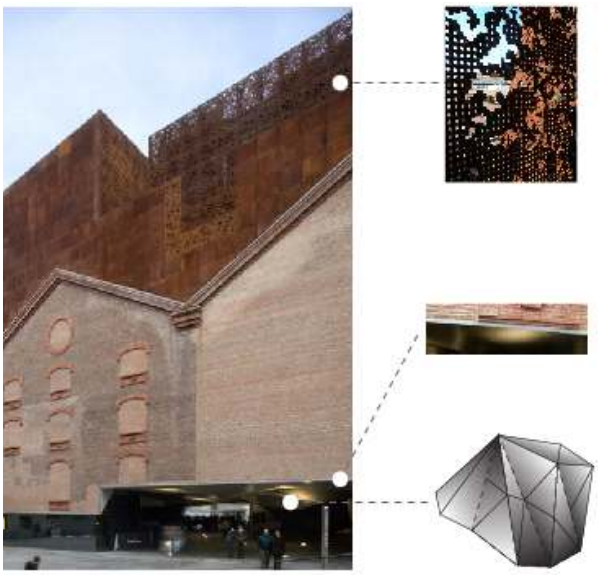
테이트 모던에서 헤르조그 드 뫼론은 발전소 건물의 특징적인 힘을 나타내는 건축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지만 현대성과 새로운 상징성을 추가하기 위해 건물의 강력한 대칭성과 상반되는 비대칭적 요소를 계획한다. 여기서 강한 대칭성은 근대시기까지의 건축적 특징으로 과거를 대변하며, 비대칭성은 현대성을 상징한다. 비대칭적 요소는 정면 파사드에서 발견된다. 지붕 위로 튀어나온 유리 매스는 중앙 굴뚝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길이가 다르게 계획되어 전체 건물의 대칭성을 완화시킨다. 또한 지상층의 북서쪽 코너에 비슷한 유리 박스를 삽입하여 비대칭성을 강조한다. 이 유리박스는 건물의 하부에 외벽의 창문 한 세트의 너비만큼 뻗어있다. 따라서 컨버전된 테이트 모던의 대칭적 입면과 비대칭적 면은 역사성과 동시에 현대성을 발현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시간을 압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Caixa Forum은 건물의 역사와 컨버전 흔적을 보여주는 산업시대 조적벽을 다양한 현대적 면과 중첩, 병치시켜 두 시간의 공존을 표현한다. 컨버전 과정에서 석재를 쌓아 만든 기단부는 날카롭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절단되어 조적벽의 변형 흔적을 나타낸다. 외벽이 절단된 지상층은 개방된 광장

[그림 4-18] 아치 개구부와 직사각형 개구부의 대비

으로 사용되며, 내부가 비정형적인 각도로 꺾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되어 초현대적인 분위기를 준다. 조적벽과 은색 스틸의 병치는 전체 건물에서 과거와 현재를 가장 강력하게 대비시키는 부분으로, 건물의 역사가 현재에 계승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상부는 박공지붕의 창고형 입면을 그대로 보존하여 원형 건물의 형태와 과거의 기능을 회상시킨다.

컨버전 이후, 조적벽의 모든 아치형 개구부는 벽돌로 평평하게 마감되고 간결한 직사각형 개구부가 기존 개구부의 위치나 형태에 관련없이 새로 설치된다. 내부 층의 높이에 맞게 설치된 직사각형의 개구부는 기존 개구부의 풍부한 디테일과 달리 모든 디테일을 최대한 감추어 조적벽의 면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Caixa Forum의 입면에서 두 시대적 양식은 서로 독립적인 듯이 공존하여 서로 다른 시간을 나타내고



구멍 뚫린 코르텐 스틸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괴리감와 부조화 감소 -상층부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져 조적벽의 육중함과 대비
얇은 금속선 노출 -형태가 다른 면의 경계 표현 -육중한 조적벽과 경량의 금속벽 강조
비정형적인 각도로 꺾인 스테인리스 스틸 -초현대적인 분위기 -과거와 현재의 분리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

[그림 4-19] Caixa Forum의 서로 다른 입면 병치

역사적 시간을 더욱 부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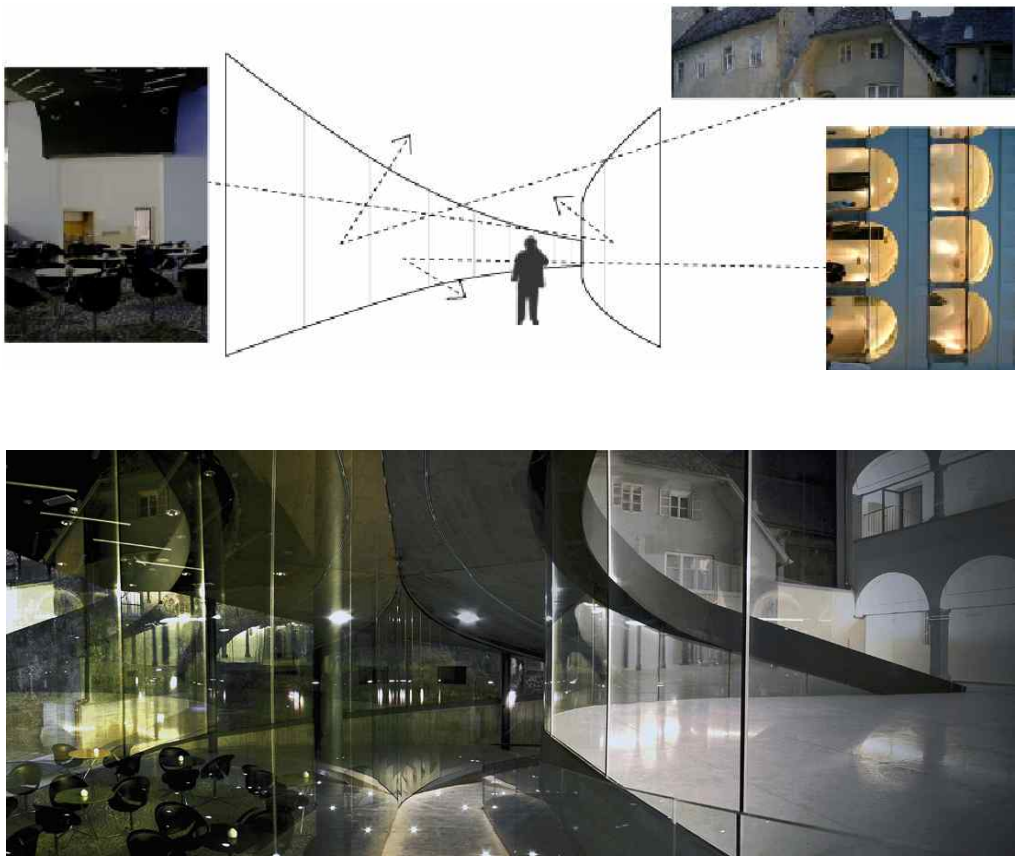
기존 건물의 상부에 추가된 코르텐 스틸 매스의 외벽 또한 역사적인 벽과 병치되어 역사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특히 테이트 모던에서 조적벽과 빛나는 유리박스의 대비와 달리, 현대성을 나타내면서도 조적벽과 유사한 색의 코르텐 스틸을 사용하여 시각적 괴리를 줄인다. 또한 입면에 구멍을 뚫어 육중한 느낌의 조적벽과 다른 가벼운 느낌을 주어 두 면의 다른 성질을 표현한다. Caixa Forum 입면과 같이 과거와 현대적 재료를 병치하는 방법은 컨버전 작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시간의 대비를 통해 각 시대의 존재와 특성을 강하게 표현한다. 다만 Caixa Forum에서 헤르조그 드 뫼론은 상반되면서도 공통된 특징, 즉 유사한 색을 갖는 코르텐 스틸을 사용하여 서로 대비되면서도 두 시대적 요소들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류블랴나 시립 미술관은 역사적인 표면과 현대적 재료로 이루어진 표면을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에 좀 더 복합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 미술관에서 가장 현대적인 표면은 지하의 유물전시 공간에서 중정 위로 올라오

[그림 4-20] 선사시대, 로마시대, 현대의 벽이 병치되어 있는 모습

는 램프 형태의 유리매스이며, 기존 건물인 성과 대지는 선사시대부터 로마, 중세시대에 이르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층의 역사적 면을 간직한다. 역사의 흔적은 지하층이 있는 지하 3m레벨에서부터 나타난다. 램프 형태의 매스 아래에는 고고학적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둥과 같은 구축물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의 지층, 로마시대와 중세, 바로크 시대의 도로였던 역사적 표면들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면들은 지하층과 일층 사이에 유물들이 바라보이는 카페의 바닥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카페 이용자는 현대적인 유리와 백색의 플라스터로 이루어진 벽을 봄과 동시에 석재블록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바닥면을 직접 사용하게 된다. 현대적인 면들과 역사적인 면들이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는 램프를 따라 유적을 관람하기도 하지만 카페 내부를 미술관 세미나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그 역사적 체험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상층에서부터 지하로 이어지는 유리벽은 파노라마와 같은 효과를 낸다. 사용자는 램프와 카페 내부에서 유리 파사드를 통해 북측의 역사적 정경들을 파노라마와 같이 연속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정을 중심으로 북쪽은 아치형 회랑으로 이루어진 입면이 있으며 동쪽에는 오래된 주변 건물의 입면이 보인다. 남쪽에 추가된 유리매스는 사방의 입면들을 반사시켜 카페로 이어지는 현대적인 내부 공간에 역사적 입면이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끌어들인다. 유리는 단순히 현대적 공간에서 역사적 장면을 바라보는 투명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대적 면들을 중첩시킨다.



[그림 4-21] 유리벽에 반사되어 중첩되는 역사적 면과 현재의 면

4.1.3 시간의 경계를 표현하는 재료

(1) 역사적 재료 드러내기

컨버전에서 카스텔베키오 미술관과 같이 기존의 건물의 재료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요소가 새로운 용도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컨버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자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에, 미술관에 역사적 분위기가 요구될 때에 비슷한 재료가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컨버전 후에도 사용자는 건물의 역사적 특징과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보로스 미술관은 공습건물의 재료를 그대로 보존하여 특정한 역사적 시점은 생생하게 체험되며, 이것은 결국 장소 특정적인(site specific) 미술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공습건물의 재료는 다른 건물의 재료와구별되는 특징적인 감촉성 갖는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1.8m 또는 3m에 이르는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의 육중한 물성과 철재와 콘크리트로만 구성된 건물

(a) 새로 삽입된 철문과 철망 바닥

(b) 과거의 녹슨 철문

[그림 4-22] 기존 재료와 유사한 재료 사용

의 철저하게 기능적이고 근대적인 느낌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상적인 건축물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 시대의 상징물이 되며, 컨버전 후에도 같은 재료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옛 시대로 회귀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 예로 건물 내부에 새로 설치되는 문은 과거의 것과 동일한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여 과거의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팬트 하우스로 연결되는 철재 계단은 마치 과거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기능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습건물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며 전시공간과 이동공간에는 철망으로 된 바닥이 삽입되어 관람자를 순식간에 과거로 이동시킨다.

Wing Luke Asian Museum에서 Olson Kundig Architects은 재료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보여준다. 여기서 과거의 재료는 단순히 보존되거나 현대적 재료와 혼합되기 보다는 새로운 용도로 컨버전된다. 즉, 건축가는 친환경 건축의 관점에서 기존의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전나무로 만든 들보는 컨버전 후 계단의 발판으로 재활용되었으며 전나무 바닥패널 역시 계단에 면하는 갤러리의 벽에 전면적으로 사용된다. 재사용된 목재는 표면에 때가 쌓이고 모서리가 마모되었으며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재료가 주는 감촉성만으로도 시간의 깊이를 나타낸다. 징크 방화문과 같이 오래되어 그 기능성을 잃은 요소들은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같이 방화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다. 다시 재단된 부식된 징크판은 역사적

[그림 4-23] 재활용된 징크 방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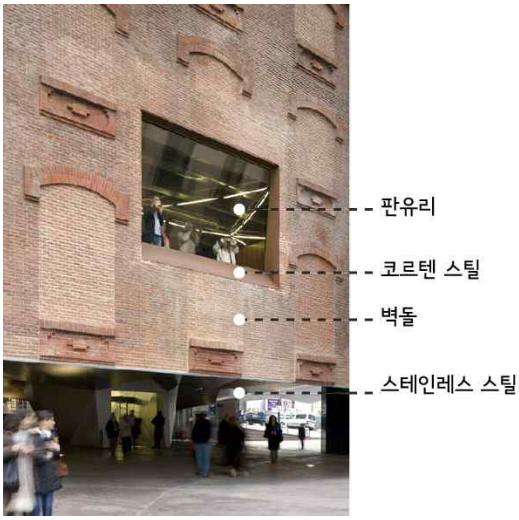
[그림 4-24] 계단과 벽이 된 과거 요소

성질과 현대적 형태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요소가 되며 목재와도 어우러진다. 이렇듯 시간을 간직한 재료들은 석고벽, MDF, 철과 같이 새로 사용된 매끄럽고 균질한 질감의 재료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현대식으로 재구성된 내부 공간에 과거를 끌어다 놓는다.

(2) 현대적 상징성 발현

테이트 모던에서 특징적 재료는 건물의 입면에서 나타난다. 헤르조그 드 뫼론은 건물의 주재료인 벽돌을 그대로 보존하여 발전소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과거의 형태와 시간을 존중한 반면, 콘크리트가 사용된 내부는 현대 미술관 특징을 강하게 나타낸다. 내부와 외부의 재료가 주는 시대적 차이는 상반된 시대성을 느끼게 하며 내부에서는 재료보다는 공간의 스케일과 구성을 통해 컨버전 이전의 시간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은 서로 결합된다.

테이스 모던2는 조적조의 발전소와 시각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벽돌로 외부를 마감하고 벽돌의 배치와 밀도를 이용해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4-25] 벽돌-유리-코르텐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의 병치

Caixa Forum에서 재료는 카스텔 베키오와 달리 재료의 극단적 대비를 통해 단절된 두 시간을 표현한다. 지상층의 광장으로 들어가기 전, 방문자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의 재료들을 한 번에 보게 되어 상반된 감촉성과 물성에 따른 복합적인 감각을 체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을 축적한 과거의 재료와 시간을 표현하지 않는 플랫한 현대의 재료가 동시에 나타나는 컨버전 건축에서 가능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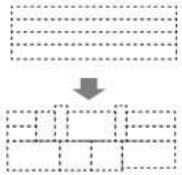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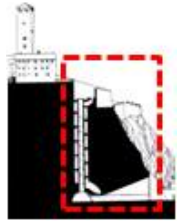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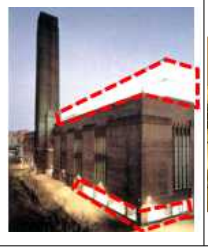
광장에 들어서기 전, 관람자는 광장의 입면을 이루는 비정형적인 형태의 금속과 그것이 조적조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얇은 은색의 띠, 다양한 질감과 양감을 갖는 조적벽, 주변의 벽돌과 흡사하게 보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사선으로 절단된 코르텐 스틸의 창문틀, 그리고 직사각형의 유리판을 동시에 본다. 관람자는 이러한 장면을 봄으로써 순간 혼란스러운 감각의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은 곧 다양한 수정에 의한 시간의 감각으로 다가온다.

[그림 4-26] 플라스터, 석재, 유리, 철재의 병치

류블랴냐 시립 미술관 또한 카이사 포럼과 유사하게 다양한 재료의 병치를 통해 역사적 건물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사례이다. 여기서 유리나 철재와 같은 매끈한 재료는 감촉성이 있는 석재와의 대비를 통해 시간성을 나타낸다. 건물의 입면은 컨버전 과정에서 백색으로 회벽칠되면서 현대 건축의 백색 입면과 같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따라서 입면의 형태는 역사적이지만 재료는 현대적으로 다가온다. 백색의 회벽은 철재와 판유리의 느낌으로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램프형 매스의 철재와 판유리이며 유리는 건물 내부의 로비와 중정 회랑의 아치형 개구부에도 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현대적인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한다. 류블랴냐 시립 미술관의 컨버전에서는 유리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유리는 건물의 형태와 전망을 망가뜨리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현대성을 강조하는 컨버전 작업에서 자주 사용된다. 또한 석재 기둥은 건물의 역사성을 상기시키는 요소로 군데군데에서 노출되어 평평한 건물에

질감과 감촉성을 부여한다. 석재가 가장 극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지하레벨의 유적층이며 로비와 중정 회랑의 기둥은 회벽칠되지 않고 남겨져 회벽칠된 벽, 유리, 철재와 대조를 이룬다.

[표 4-1] 현대미술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

	Tate Modern	Ljubljana City Museum	Wing Luke Asian Museum	Sammlung Boros Collection	National Sculpture Museum	CaixaForum	Castelgrand	다산쯔 798 Space
공 간 구 성								
표 면								
재 료								

4.2 전시를 위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미술관은 주택, 오피스 등이 사용자나 건축가의 개인적 목표나 디자인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미술품, 전시와 관련된 객관적 요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과 용도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신축된 현대 미술관과 컨버전된 미술관이 담는 작품의 차이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미술관 컨버전 작업의 필요성과 컨버전이 예술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4.2.1 작품해석의 요소로 이용되는 벽면

(1) 균질한 색과 질감을 갖는 벽

균질한 질감과 색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공간은 모더니즘에서 탄생한 추상미술과 함께 나타났으며 현재 신축되는 미술관의 대다수가 이 형식을 따른다. 따라서 화이트 큐브의 균질한 배경은 주로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전반의 단순성이나 관념의 순수성이 강조된 예술작품을 주로 수용하며 예술에 영향을 끼치는 기재로 작용한다. 뉴욕의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MoMA)이 생기면서 입체주의, 추상미술 작품들이 들어오고, 그 이전의 작품들이 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보내졌던 사실은 모더니즘 작품과 화이트 큐브 미술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2)]

테이트 모던의 미술품들은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현대미술, 실험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과 5층은 상설전시가 이루어지며 터빈홀, 2층과 4층에서는 기획 전시가 이루어진다. 테이트 모던은 방대한 양의 상설전시 작품이 있지만 터빈홀을 제외하며 전시 배경은 큰 변화 없이 화이트 큐브의 성질을 따른다. 3층에는 1940~50년의 유럽과 미국 회화와 조각들이 전시되는데, 주로 추상주의, 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작가

2) 윤난지, 성전과 백화점 사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관, 전시의 담론, 서울: 눈빛, 2002,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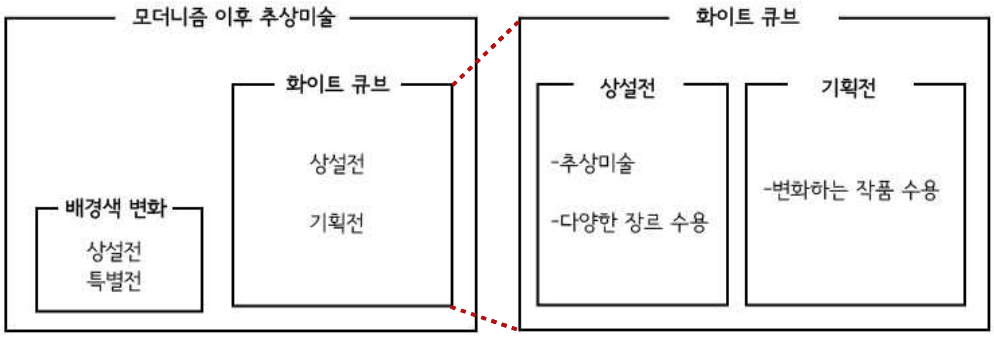
[그림 4-27] 마크 로코전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벽

[그림 4-28] 백색의 벽을 배경으로 한 모네의 작품

끌로드 모네(Claude Monet), 애니쉬 카푸르(Anish Kapoor), 바넷 뉴먼(Banett Newman), 마크 로코(Mark Rothko),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타시타 딘(Tacita Dean)의 작품을 포함하는 3층과 5층의 상설전시관은 백색의 벽에 목재 바닥을 사용하여 20세기 전, 중기의 추상적인 작품들과 어우러진다. 다만, 마크 로코와 같이 특정한 색감을 주로 사용하는 작가의 전시에서 벽의 색이 회색톤으로 변하여 붉은 계열의 작품의 분위기가 부각된다. 이것은 상설전시에서 작품의 개별적인 특성이 강한 경우, 그 적합한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작품의 배경이 예술의 장르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시 기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4-29] 미니멀한 바닥과 벽을 배경으로 한 Cy Twombly의 작품

3층과 5층의 전시배경의 차이는 작품과 미술관의 관계를 증명한다. 상설전시를 하는 5층에는 모더니즘의 특성이 강조되는 큐비즘, 퓨쳐리즘, 후기 미니멀리즘, 팝아트,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작품들이 전시되며, 3층의 목재 바닥과 달리 바닥의 재료가 콘크리트로 바뀌어 작품의 색채와 구성적 특징을 더욱 부



[그림 4-30] 배경-작품-전시의 관계

각시킨다.

Caixa Forum은 테이트 모던과 비슷한 전시배경의 변화를 보인다. 컨버전 후 갤러리로 사용되는 곳은 2층과 3층이며 지하층과 로비층의 일부에서 작품이 전시된다. 갤러리는 회화와 설치작품을 모두 수용하며 기획전시가 주를 이룬다. 또한 Caixa Forum 갤러리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카스텔베키오에서와 같이 역사적 가치를 갖거나 지역, 건물과 관계된 작품들이 아니라 폭넓은 현대미술, 또는 저명한 작가의 개인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예술작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는 균질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벽과 바닥은 역사적 성격을 띠는 건축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백색으로 마감되며 벽은 스크린 형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 백색의 가벽은 기획된 전시의 성격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은 특별히

[그림 4-31] 화이트 큐브 전시관

[그림 4-32] 파란색으로 바뀐 벽

특정 작가의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에 나타나는데, 피라네시(Giambattista Piranesi)의 전시에서 벽은 파란계열로 바뀌며 들라크루아(delacroix) 전시에서는 일부 회색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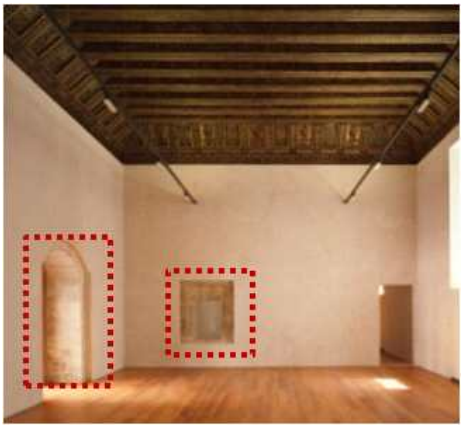
[그림 4-33] 다양한 가벽과 부스를 수용하는 백색 벽

Wing Luke Asian Museum 또한 카이사 포럼과 같이 여러 분야의 예술작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획전시관에 백색의 벽을 사용한다. 또한 상설전시가 일어나는 갤러리의 경우에도 각종 공예품, 가구에 이르는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특정 맥락을 배제한 화이트 큐브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설전일 경우에도 전시 작품의 장르가 다양할 때에는 기획전에서와 같이 모든 맥락을 제거하는 화이트 큐브 형식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역사적 벽의 부분적 보존

Valladolid에 있는 국립 조각 미술관(National Museum San Gregorio School Extension, Nieto Sobejano, Valladolid, Spain)은 15세기 말에 지어진 후, 그 필요에 적응하며 학교, 감옥, 정부청사, 박물관으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건물은 오랜 변화의 흔적을 지니며 미술관으로 컨버전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일부 변화와 보수의 흔적들은 건물의 실제적인 삶을 보여준다.

미술관의 내부는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전시 시스템을 따르면서 역사적 건물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 각 갤러리 내부는 현대적인 화이트큐브의 구성요소 사이에 역사적 벽과 화려하게 세공된 천장, 또는 개구부의 디테



[그림 4-34] 남겨진 천장과 개구부 디테일
출처: http://europaconcorsi.com/

일 등을 남겨두어 내부에서도 건물에 축적된 오랜 시간과 다양한 촉감을 경험한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계획된 건축물에서는 볼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첩된 시간적 요소들은 장소에 대해 끊임없이 자각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현대적 공간 안에 개구부의 테두리, 벽, 천장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조각 박물관 속에서 그 자체로 컬렉션의 일부가 된다.

남겨진 역사적 요소들은 시간을 들어낼 뿐만 아니라 용도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역사적 요소는 카스텔베키오의 조각 갤러리에서 보이는 다양한 질감의 병치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새로 만들어진 백색의 벽과 군더더기 없는 목재 바닥으로 이루어진 갤러리에서 기존의 요소들은 촉각을 자극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요철이 있는 채색된 금속천장과 세공된 목재 천장은 백색톤의 갤러리 내부에 장소 특정적인 특성을 주어 초점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조각 작품이 더욱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한다. 또한 플라스터 벽 밑으로 노출된 석재 개구부의 디테일은 천장의 그것과 함께 밋밋한 벽과 대조되는 감촉성을 유발한다. 감각을 풍부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은 조각 작품의 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림 4-35] 기존 건물의 요소와 작품과의 관계

보로스 미술관은 건물의 벽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을 작품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이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90년대 초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현대미술 작품들로 미디어, 조각, 설치, 회화, 사진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모두 Christian Boros 개인 소장품이다. 따라서 전시는 상설작품들로 구성되고 작가들은 작품에 적합한 공간과 배경을 직접 기획하고 설치한다. 이것은 건물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에 맞는 다양한 배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내벽의 역사적 흔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역사적 벽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시간이나 역사와 관계없는 회화, 설치작품이 거친 흔적을 축적한 역사적 벽을 이용하여 작품의 의미나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이고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의 균질한 벽에서와는 전혀 다른 아우라[3]를 전달한다. 즉 건물의 맥락은 작가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때에 의도했던 작품의 본질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그림 4-36] 백색의 벽을 이용하는 작품

[그림 4-37] 작품의 아우라를 드러내는 역사적 벽

3)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소재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을 원래의 영역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사물이 갖는 본래의 아우라(aura)가 누락된다고 보았다. 발터 벤야민에서 작품의 아우라는 탄생한 역사와 배경 등 작품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것이 균질한 현대 미술관에서 결여된다.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6), CP Group 역,

[그림 4-38] 부분적으로 남겨진 흔적과 함께 읽히는 사진작품

된다. 여기서 보이는 전시 배경에 의한 아우라의 표출방법은 건물과 지역의 역사와 관련되거나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전시하는 카스텔베키오 미술관과는 맥락이 다른 것으로 컨버전에 의해 다양한 흔적이 남겨진 건물의 요소가 현대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벽에 부분적으로 남겨진 흔적은 작품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주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배경과 전혀 다른 곳에 전시됨으로서 익숙치 않은 경험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의 배경은 전체 미술관에 다양하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관람자가 작품을 다양한 배경 속에서 경험하고 작품의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경의 다이나믹한 변화는 개방된 공간에서 모서리를 따라 서로 다른 벽이 동시에 나타날 때에 더욱 극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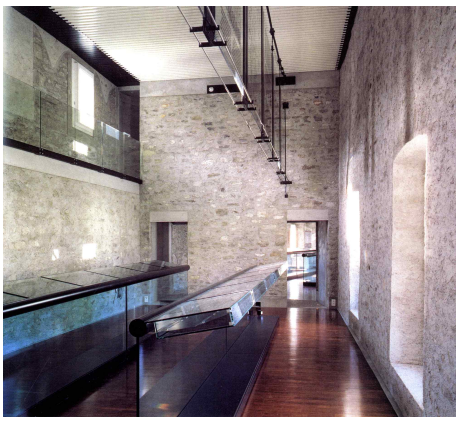
(3) 역사적 벽의 원형유지

컨버전은 미술관 이전의, 그리고 주변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험을 주는 현대 미술관에 새로움의 충격을 준다. 따라서 전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건물의 벽, 바닥, 천장은 장소와 상황 특정적인(site & situation-specific) 전시환경을 제공하여 미술관을 역사적이고 일상적인 맥락 속에 놓는다. 컨버전된 최근의 미술관들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모더니즘의 순수, 추상미술 이후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맥락을 수용하는 작품들을 전시하기에 적합하며, 더 나아가 예술의 가능성과 범위를 넓히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는 추세이다. 환경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작품들은 회화를 넘어 행위예술, 설치예술, 미디어예술 등으로 뻗어나가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미술관의 독특한 공간과 그 안에서 관람자들의 위치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컨버전된 미술관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즉 컨버전된 미술관에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와 비율의 전시장은 작품의 해석, 나아가 경향에 영향을 주고, 전시장과 예술작품은 서로를 참조하는 기호의 장으로 활용하여 작품과 건물 모두의 경험을 극대화시킨다.

이렇듯 컨버전된 미술관은 새로운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특징으로 예술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물이 갖는 다양한 맥락들은 작품 자체의 맥락들과 서로 얽히고 교환되어 서로 다른, 또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컨버전된 미술관은 신축되는 현대 미술관과 전시방법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모더니즘부터 이어져온 전형적인 현대 미술관에서 작품은 눈높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걸리며 각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따라서 관람자는 벽을 따라 한 작품씩 평면성이 강한 미술작품들을 '시각적으로만' 소비한다.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거나 시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러한 전시방법은 결과적으로 작품을 편향되게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며, 다양한 예술작품의 장르가 대두되는 현재의 예술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을 보인다.



[그림 4-39] Castelgrande 유물 전시관
출처: Pierre Thiebaut, Old Buildings Looking for New Use, Menges, 2007

중세시대의 성을 컨버전한 Castelgrande 미술관 또한 카스텔베키오와 비슷한 이유로 역사적인 벽을 그

대로 드러낸다. Castelgrande에는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이나 예술품들이 전시되는데 돌로 축조된 두꺼운 성벽은 역사와 관련된 작품들의 전시 배경이자 시대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카스텔베키오의 오래된 성벽이 동시대의 작품들을 당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Castelgrande의 작품들은 지역의 역사적 건물 안에서 관람자와 동일시되는 효과를 갖는다.

798 space는 컨버전된 미술관과 예술 사이의 상호관계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갤러리 벽에 새겨진 붉은 표어와 작품이 전시되는 조적벽은 특정 과거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회화와 조각, 설치 작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위적 예술 작품의 배경이 되어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실제로 798 space갤러리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실험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며, 작가들은 근대식 건물의 허름하고 기능적인 배경과 공장에 남겨진 기계들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작품해석의 방식을 무너뜨린다. 관람자는 옛 공장에서 허름한 조적벽, 자극적인 표어, 기계를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여 관계 안에서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모든 맥락이 삭제되어 오로지 작품에만 의존하여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야하는 신축된 미술관에서와 달리, 복합적이며 관람자 중심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림 4-40] 전위적 설치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장의 벽, 바닥, 천장

4.2.2 다양한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볼륨 조절

(1) 과거의 구성 유지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컨버전된 발전소는 원래 세 개의 평행한 공간들로 나누어져 각각 특정한 기능을 맡고 있었다. 보일러 홀은 템즈 강을 마주보는 북측 공간으로 중간에 거대한 터빈이 있으며 스위치 홀은 남측에 위치한다.

그 중 터빈홀은 건물의 총 길이와 높이를 가로지르는 통합된 공간으로, 그 장대한 스케일은 현대 예술작품의 자유로움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예술작품을 탄생시키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건축가는 상징성을 담는 거대 전시공간인 터빈홀의 스케일을 과장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층 슬라브를 지하 1층 레벨까지 낮추었다.[4)]

Olafur Eliasson의 The Weather Project와 Carsten Höller의 Test Site는 미술관에 의한 새로운 예술작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The Weather Project의 설치작품은 터빈홀의 거대한 스케일, 특히 높은 층고의 공간에 전시됨으로써 마치 진짜 태양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여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제시한다. Carsten Höller가 계획한 미끄

[그림 4-41] 지하 일층 레벨로 낮춘 터빈홀의 슬라브

4) 현재 템즈 강변 출입구를 통해 연결되는 터빈 홀의 브릿지는 발전소 건물의 지상층 슬라브의 일부이다.

[그림 4-42] Carsten Höller, Test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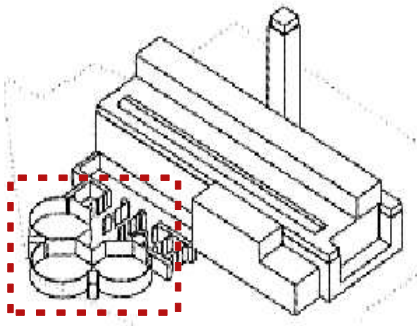
[그림 4-43] Olafur Eliasson, The Weather Project 2003
출처: http://www.tate.org.uk/

럼틀 또한 터빈홀의 스케일에서 새로운 형태로 표현된다.

테이트 모던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공간은 테이트 모던2 하부의 지하 오일탱크이다. 오일 탱크는 세 개의 실린더가 클로버와 비슷한 형상으로 배열되어 개방된 공간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육면체의 전시공간과 달리 곡선형 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작품의 종류와 전시방법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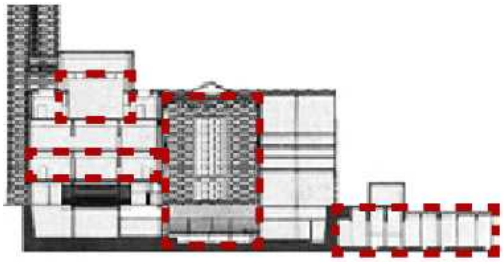
이곳의 전시는 개방된 원형 공간을 이용하여 주로 행위와 설치미술,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전시공간의 형태는 공간에 중심성을 주기 때문에 행위예술을 적절히 수용하며 얇은 기둥이 세워진 낮고 넓은 비율의 공간은 벽면을 연속된 파노라마로 연출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하는 폭넓은 미디어 작업이 계획된다.

[그림 4-44] 오일탱크에서 열리는 공연
출처: http://www.tate.org.uk/



[그림 4-45] 오일탱크였던 As Found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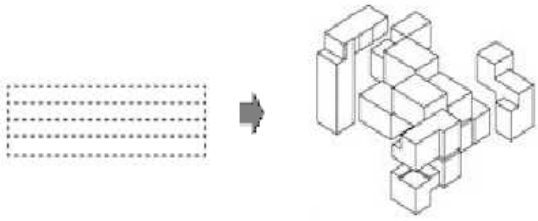
(2) 공간의 볼륨 변화



[그림 4-46] 볼륨의 변화가 나타나는 보일러홀

테이트 모던의 보일러 홀은 달리 여러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 5개의 층으로 분할된다. 터빈홀과 같이 수직, 수평적으로 개방되었던 거대한 공간은 다양한 볼륨의 방들을 구성하는데 다양성과 가능성을 준다.

방들은 개별적인 성격의 갤러리와 대형 갤러리의 두 가지 타입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시층은 총 4층으로 이루어지고 3, 4, 5층은 모두 동등한 위계를 갖느다. 각 층은 작은 작품부터 큰 작품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면적과 높이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공간들은 최소 5m, 5층이나 3층과 같은 대형 갤러리는 두 개 층고를 갖는다. 거의 모든 방의 크기와 비율은 다르며 작품의 성격에 맞도록 벽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설치물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그 예로 평소 두 개의 큰 전시영역으로 구성되는 4층 갤러리는 길버트와 조지 회고전 때에 작품수와 작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4-47] 공간 구성의 변화

테이트 모던에서 개방공간을 수직, 수평적으로 분절하여 전시에 적합한 방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보로스 미술관은 벽과 바닥을 허물어 5개층으로 분리된 공간을 다양한 스케일의 방들로 만든다. 엄격한 좌우 대칭형 평면이 반복되어 미로와 같이 복잡했던 5개층은 컨버전되면서 수직, 수평적으로 다양한 조합을 이루게 된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 2.3m의 낮은 층고가 유지되기도 하며 어떤 곳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세 개층 높이인 7.5m로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완전히 구분되었던 각 층은 층고의 차이와 벽의 부분적 파괴를 통해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특정 작품은 다양한 공간과 각도에서 감상된다.

동일한 볼륨의 방들이 수직, 수평적으로 확장되면서 방들의 관계 또한 변화한다. 다양한 볼륨을 갖는 서로 다른 층의 방들이 연결되면서, 작품은 층이나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시효과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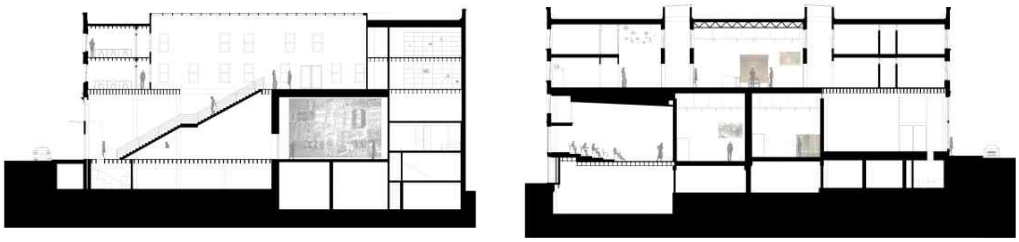
[그림 4-48] 수직, 수평적으로 통합된 전시공간

[그림 4-49] 기존 볼륨을 유지한 전시공간

[그림 4-50] Santiago Sierra의 설치 작품

전시배경과 같이, 작품이 전시될 공간을 작가가 직접 선정하고 전시를 계획하기 때문에 공간은 작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며, 작품 역시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시된다. 작품과 공간 스케일의 관계는 기획전시가 열리는 미술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공간과 전시방법의 관계는 보로스 미술관과 같이 상설전일 경우에 더욱 긴밀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Santiago Sierra의 설치작품에서 보인다. 여기서 작가의 거대한 작품은 벽을 뚫고 두 개의 방에 걸쳐 전시된다.

Wing Luke Asian Museum은 보로스 미술관에 유사하게 기존의 공간구성을 변형시킨다. 복도를 둘러싸는 원룸형 숙소으로 이루어진 특징적인 이민자 숙소 평면은 여러 층에 걸친 갤러리를 삽입되는 부분에서 복층으로 통합된다. 또한 한 칸짜리 방들을 확장하여 넓은 전시공간을 확보한다. 원래부터 층고가 높았던 지상층에는 개별적인 부스가 설치되는 넓은 전시관과 메자닌을 이용한 친밀한 느낌의 전시장이 삽입되며 상층부에는 전시품의 성격과 채광에 따라 방의 크기가 변화하며 역사적 유물과 기획 작품이



[그림 4-51] 컨버전 이후 변화한 공간의 볼륨

전시된다.

4.2.3 균일한 빛을 위한 개구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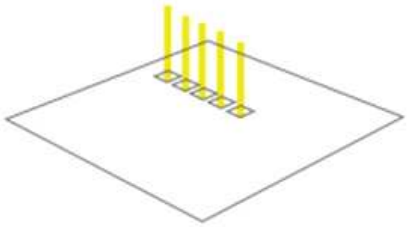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과 안정적인 관람환경을 위해서 빛의 조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술관 신축 시에도 부드러운 채광은 가장 중요한 기능 조건이 된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이러한 기능적 필요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것은 미술관 컨버전이 꼭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다른 빌딩타입과 미술관의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1) 천창 설치

천창 설치는 미술관 컨버전 작업에서 가장 쉽고 넓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크게 천장에 채광창을 뚫거나 옥상에 새로운 매스를 삽입하여 자연채광을 받는 대형 갤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테이트 모던에서 채광은 발전소 삼면의 외벽에 뚫린 얇고 긴 창문을 이용한다. 하지만 창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5층 갤러리는 자연광이 닿지 않기 때문에 유리매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발전소 매스 위로 돌출된 불투명 유리매스를 통해 갤러리 내부에는 산란된 부드러운 자연광이 유입되며, 특수한 유리패널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방지하였다.

보로스 미술관에서는 갤러리 역할을 하는 팬트하우스의 중앙부에 3m 두



[그림 4-52] 보로스 미술관의 천창

[그림 4-53] 테이트 모던의 천창

께의 천창을 뚫어 내부에 깊고 부드러운 빛을 유입시킨다.

Valladolid의 국립 조각 미술관에서는 천장의 채광창 설치와 옥상 매스 삽입이 모두 이루어진다. 미술관 건물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상층 지붕 슬라브를 일부 절개하여 빛이 박공형 천장을 따라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크기가 큰 조각 작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부에 새로운 매스를 삽입하고 매스의 형태와 재료를 통해 빛을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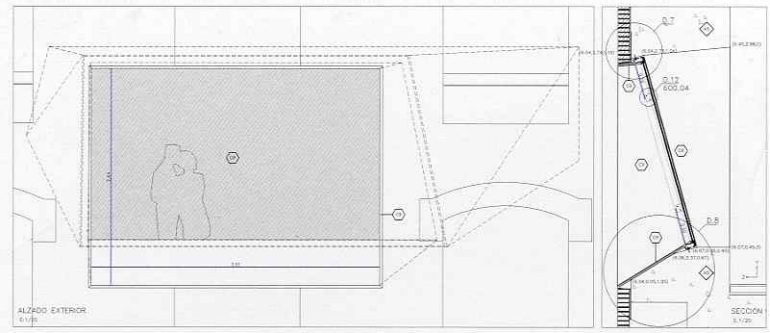
(a) 옥상 매스 삽입

(b) 천장에 채광창 설치

[그림 4-54] Valladolid 국립 조각 미술관의 천장 채광 방식
출처: http://europaconcorsi.com/

(2) 벽과 바닥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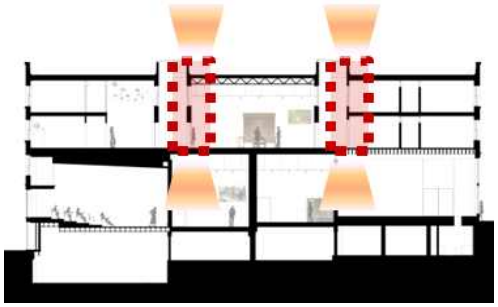
[그림 4-55] 유리판 안쪽의 구멍 뚫린 코르텐스틸 스크린



[그림 4-56] 기울어진 유리를 보여주는 창문의 단면
출처: El Croquis, 152/153: 20052010 Herzog & de Meuron 2010

카이사 포럼은 조적벽의 입면을 절개하여 새로운 형태의 개구부가 설치한다. 외벽에 뚫린 직사각형의 개구부는 내부 공간의 한 층 높이에 이르며 유리창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는 조적벽의 아치 개구부 흔적과 대비를 이루는 등 시간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채광을 위한 의도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슬라브 쪽으로 기울어진 유리창은 햇빛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또한 상부에 추가된 매스와 같이 구멍이 뚫린 코르텐스틸 판은 유리의 안쪽에 덧 데어 빛의 밝기를 낮추고 들어온 빛이 산란되도록 한다. 같은 수법이 상부 레스토랑에서는 입면 전체에 사용된다.

Wing Luke Asian Museum은 내부의 벽과 바닥을 절개하여 채광문제를 해결한다. 방과 복도로 가득 찼던 깊은 평면은 내부에 전혀 빛이 닿지 않았던 실내는 컨버전 이후, 중간에 복층의 갤러리를 삽입하고 그 양 옆에 수직적으로 통합된 통로를 두어 공간 전체가 균일한 양의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면에서 보이는 2, 3층에 걸친 채광통은 지상층에서부터 연결되는 계단이다. 또한 지붕은 불투명재로 바뀌어 공간 내부에는 산란된



[그림 4-57] 공간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채광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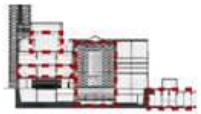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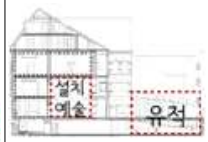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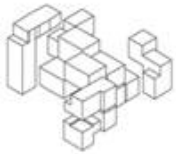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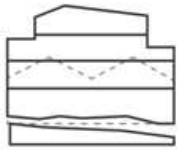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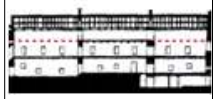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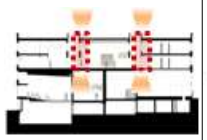
형태의 은은한 빛이 들어온다. 이 빛은 통로 양 옆의 갤러리 내부뿐만 아니라 지상층의 로비까지 이어진다.

류블랴나 시립 미술관에서는 또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 이곳은 건물을 두르는 개구부와 회랑이 있어 내부 갤러리의 채광을 위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외부의 중정 아래 묻힌 지하 유적 전시장을 위한 채광계획이 두드러진다. 지하에 묻힌 유적 전시장은 중정 슬라브와 유적 상부에 설치된 경사 지붕의 레벨차가 만들어내는 틈으로 자연광을 유입한다. 이 틈은

[그림 4-58] 램프지붕과 중정 슬라브의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유리로 마감되어 자연광을 유입하며 반대편 카페의 유리벽이 유입된 빛을 반사하여 채광 효과를 높인다. 또한 카페의 인공조명은 유리를 통해 유적 전시장을 비춘다. 전체가 들어 올려진 천장과 달리, 경사진 천장은 유적의 반대방향에 제한된 자연광을 끌어들이는데 이는 건물을 관통하는 램프형 동선 형태를 연장하고자 함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발굴된 땅 속의 유물이라는 분위기를 유발하여 전시물의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표 4-2] 미술관으로 컨버전되는 방식

	Tate Modern	Ljubljana City Museum	Wing Luke Asian Museum	Sammlung Boros Collection	National Sculpture Museum	CaixaForum	Castelgrand	다산쯔 798 Space
전 시 배 경								
전 시 공 간								○
전 시 채 광						X	X	○

X: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경우 / O: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

4.3 미술관을 도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방식

4.3.1 시각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외관의 변화

인간은 외관을 통해 건물을 가장 먼저 인식하며 인식된 건물의 이미지는 그 성격에 따라 비가시적인 경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외관의 변화는 건물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차적인 수단이고, 이를 통해 건물은 새로운 역할과 상징성을 갖는다.

컨버전에서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되어 그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과거를 현재로 지속시키기도 하며, 시각적 차이가 큰 현대적 건축요소를 덧붙여 변화를 확연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건물은 새로운 용도를 통해서 현재와 연결되고 그 역할과 이미지가 변한다. 건물은 옛 모습을 상기시키는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Wing Luke Asian Museum과 다산쯔 798 예술구가 여기 속한다.

반면, 후자는 현재와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다. 과거로 고립되었던 건물은 현대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면서 과거와 현재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은 현대적 재탄생을 상징하며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경관을 창출한다. 새로운 외관과 경관은 주변지역과 상호 영향을 받아 그 경계를 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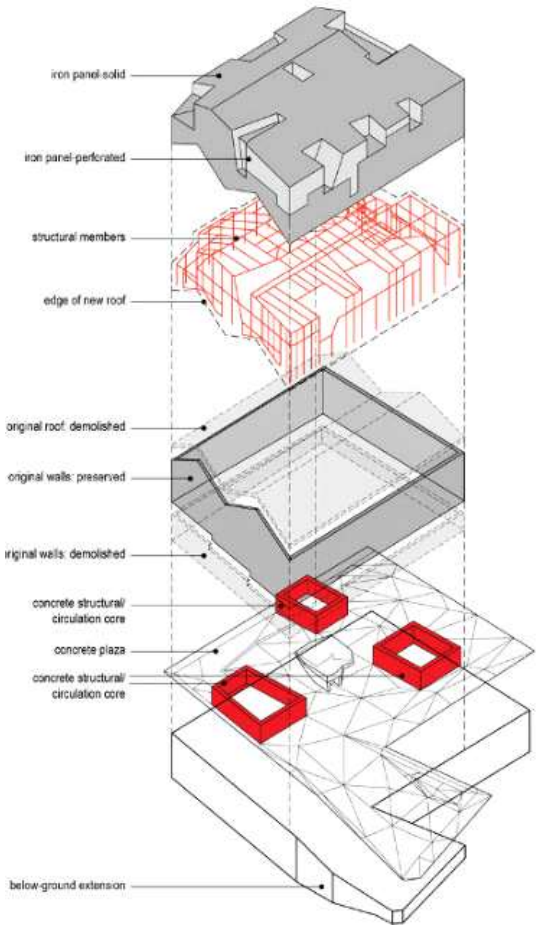
테이트 모던은 컨버전 이후 최소한의 물리적 변화로 최대의 시각적 변화를 이루었다. 테이트 모던의 외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발전소 탑과 양 옆의 옥상에 추가된 반투명의 유리 매스이며, 추가된 매스는 템즈강 맞은편인 북쪽에서 보이는 건물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다. 컨버전 후 발전소 상부에 추가된 반투명 유리 매스는 근대의 조적 건축에 현대성을 더하여 과거 발전소의 상징인 굴뚝을 현재와 공존하도록 만든다. 특히 밤에 유리 매스가 발산하는 빛은 역사적 건물만이 갖는 특징적인 형태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칭적인 육중한 매스와 중심에서 하늘로 뻗어나가는 굴뚝은 빛의 기둥으로 더욱 그 권위와 중심성을 보여주며 도시에 새로운 형태와 경관을

만든다. 현재 밤의 테이트 모던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도시의 상징이 되었으며 과거의 유산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예가 된다. 발전소를 설계한 건축가 Giles Gilbert Scott는 처음부터 템즈강 맞은편의 세인트 폴 성당과 발전소의 관계를 의도했는데 컨버전을 통해서 건물과 주변맥락의 관계는 더욱 확장된다.

템즈 강변에서 바라본 테이트 모던2는 발전소의 특징적인 굴뚝의 상징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뒤에서 솟아나온다. 미술관 본체인 발전소와 테이트 모던2로 이루어지는 전체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상징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여러 요소들이 잘 조화되어 하나로 읽힌다. 두 매스의 조화를 위해 테이트 모던2에는 발전소 건물과 동일한 벽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구멍이 뚫린 벽돌 스크린은 낮에는 빛을 들이고 밤에는 빛을 내뿜는다. 하지만 테이트 모던2는 수직적이고 대칭적인 형태를 갖는 발전소의 형태와 달리 경사진 기하학적 형태이기 때문에 재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테이트모던2의 재료는 자칫 그 형태와 스케일로 인한 현대와 과거 요소의 괴리를 없애고 현대적 매스와 상징적 과거 건물이 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시각적 형태를 갖도록 한다.

[그림 4-59] 발전소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유리매스의 빛

[그림 4-60] 주변의 지붕형상과 비슷한 Caixa Forum의 상부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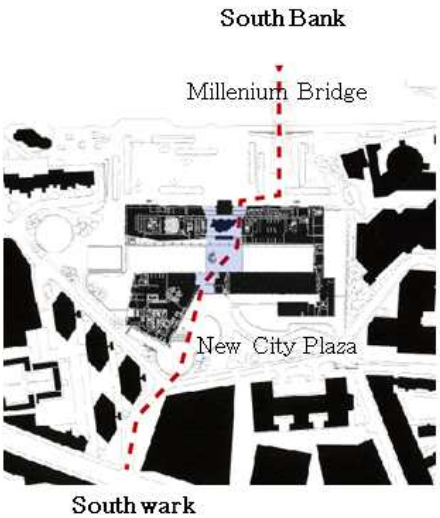
[그림 4-61] Caixa Forum의 형태 분석
출처: http:/breannacarlson.com/#Structural-Analysis-Caixa-Forum

CaixaForum은 역사적 요소를 삭제하고 현대적 요소를 추가하여 건물의 형태를 독특하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경관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대지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었다. 전력소 건물은 내부를 제거하고 건물의 외벽을 새로운 건물의 요소로 사용하며 그 위에 특징적인 매스를 추가하여 중첩된 두가지 시대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방법은 헤르조그 드 뫼론의 Elbphilharmonie와 Foster +Partners의 Hearst Tower에서 극단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두 사례에서 컨버전된 건물은 과거를 통한 현재의 발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건물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영향력을 확장시키도록 한다.

Caixa Forum은 두 예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건물의 형태에 주변맥락의 특성을 반영한다. 새로 추가된 코르텐 스틸 매스는 구멍이 뚫려있어 전체건물의 무게감을 조절하고 주변 건물의 밀도와 조화된다. 또한 매스 상부의 불규칙한 형태는 주변 건물들의 지붕의 모습을 따라 도출된 형태이다. 따라서 멀리서 보았을 때, 건물은 주변 환경과 융합된 모습을 띠고,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 독특한 형태를 드러낸다.

4.3.2 광역적 연결계획을 통한 물리적 영역의 확장

모든 건축물은 물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건물과 주변맥락 사이의 관계는 약화되고 연결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버려진 건물이라도 대규모 유휴 산업시설과 같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컨버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62] 사우스뱅크와 사우스워크를 이어주는 동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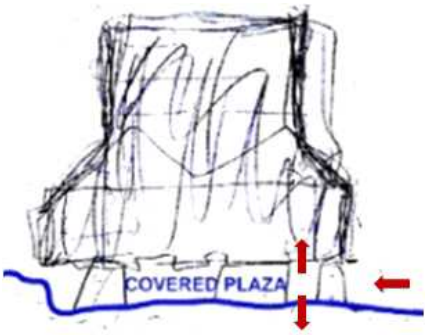
영국 정부와 테이트 재단은 템즈 강변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넓은 건물면적과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운 오래된 발전소 건물의 입지조건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미술관이 들어설 건물로 결정하였다.

테이트 모던은 컨버전 이후 도시의 각 지역과 연결되면서 도시 디자인, 사우스뱅크와 사우스워크의 발전 등 런던 전반을 크게 변화시켜왔다.

테이트 모던 남쪽의 새로운 출입구와 직접 관통하는 남북의 통로는 건물을 기점으로 단절되었던 사우스뱅크와 사우스워크를 이어준다. 건물은 사우스뱅크에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측에서 진입한 관람자는 보일러홀의 갤러리를 관람한 뒤, 터빈홀의 2층 플랫폼을 통해 터빈홀의 대공간과 설치작품을 관람하고 남측의 지하 갤러리인 오일탱크로 들어간다. 남북을 관통하는 광역적 동선의 중요한 요소는 터빈홀의 2층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건물 내부에서 보일러홀과 오일탱크을 연결하는 동시에 도시적 차원의 동선을 제시하며 도시환경을 명쾌하고 효과적으로 연결

한다. 오일탱크의 전시를 본 관람자는 남쪽에 계획된 새로운 도시 플라자로 나가고, 그 곳에서 다시 사우스 워크로 연결된다. 이 개발은 사우스 워크와 템즈강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더 향상된 개방 공용 공간을 만들어낸다.

강을 건너지 않고 사우스워크에서 진입하는 방문자는 서쪽의 램프를 이용한다. Giles Gilbert Scott가 처음 설계했을 당시 주변의 맥락과 독립된 폐쇄된 거대 시설이었던 발전소는 컨버전 이후 지형을 갖게 된다. 건축가는 주변을 지형을 갖는 랜드 스케이프로 만들어 방문자가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터빈홀 내부로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터빈홀로 들어간 방문자는 경사를 따라 내부의 대공간과 설치작품을 관람하며 지하레벨[5]에서 연결되는 보일러실의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상부의 갤러리로 연결된다.



[그림 4-63] Caixa Forum 유입동선

Caixa Forum은 예술 작품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Caixa Forum은 Paseo del Prado와 vis a vis식물원을 면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오래된 전력소 앞에는 주유소가 위치해있었는데 주유소로 인해 건물의 입지적 가능성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를 철거하고 Caixa Forum을 위한 넓은 광장으로 계획하였다. 그 결과, 건물은 도로에서 바로 연결되었으며 주변 동선의 중심이 되었다.

광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건물의 하부로 확장된 반외부 공간으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햇빛, 비를 피하기

5) 지상레벨 기준으로 지하층이며 건물 층수로는 1층이 된다. 즉 북측 출입구는 2층이다.

위해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갤러리로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결과적으로 주변대지의 이용과 건물 하부를 비우는 것은 주변 가로의 협소함, 주출입구의 배치와 같은 대지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대적인 예술시설의 건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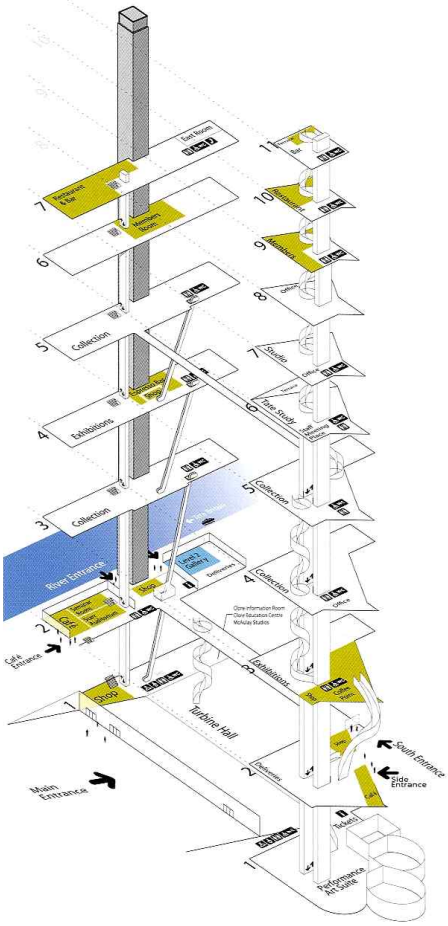
[그림 4-64] 돌로 막힌 문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공습건물이었던 보로스 미술관 또한 컨버전되면서 외부와 연결된다. 건물은 원래 내, 외부가 모두 엄격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방향성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버려진 후에 야채 저장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건물의 앞뒤에는 벽, 적재소, 엘리베이터 타워와 별채들이 추가되었고 건물은 주변 도시맥락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컨버전 이후 추가되었던 요소들은 다시 제거되었고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또한 다시 계획되었다. 갤러리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Reinhardstrasse 방향으로 한정되어 메인 가로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팬트 하우스로 이어지는 사적인 연결로는 공원 쪽 출입구에서 연결되어 접근성을 낮추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4.3.3 지속성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삽입

대형 미술관의 전시가 도시 안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예술작품을 크고 작은 미술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미술관은 작품의 장르나 전시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그림 4-65] 테이트 모던의 층별 프로그램
출처: El Croquis, 152/153: 2005 2010 Herzog & de Meuron 2010

이러한 경향 속에서 미술관은 이제 예술창고와 같이 작품들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술관의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컨버전된 미술관은 미술관의 범위를 넓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 뿌리내린 시간, 시간에 따라 획득된 장소성, 장소 특정적인 건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전시와 복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현대 미술관으로 컨버전의 목표는 단순히 작품전시를 위한 미술관을 짓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컨버전의 다음 단계 목표는 박물관의 전시, 교육, 사회적 기능을 통합하여 박물관과 주변지역, 나아가 도시를 긴밀하게 엮어주는 현대 미술관과 현대 예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버려진 발전소 건물은 미술관의 새로운 상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거대 발전소는 템즈강과 바로 연결되어 지역을 통합시킬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징성과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형태,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시 관람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끌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는다.

테이트 모던은 건물의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건물의 6층에는 멤버스 룸, 7층에는 레스토랑과 바, 이스트룸 등이 있으며 테이트 모던2는 갤러리 공간을 두 배로 늘려 테이트 재단이 목표로 한 지역 통합을 위한 쉼과 사색, 만들기와 활동하기, 단체 수업과 개인 공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공 공간들을 담는다. 이런 공간들은 건물 전체에 골고루 퍼져 널찍한 공용 순환동선으로 연결된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기능적 필요가 아닌 도시적 차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컨버젼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적 차원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림 4-66] Caixa Forum 층별 프로그램

마드리드에 위치한 Caixa Forum은 'Ia Caixa'재단에서 설립한 건물로 갤러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Caixa Forum 또한 다양한 전시, 음악, 공연, 다양한 참여 활동, 레스토랑, 서점 등을 포함하고 있어 Ia Caixa재단이 추구하는 통합적 예술 프로그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과의 연결성에 관한 구체적 건축 계획을 통하여 Caixa Forum이 방문자를 위한 예술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현대적인 예술시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Caixa Forum은 지상층의 광장을 중심으로 'underworld'라고 불리는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으로 나뉜다. 지

하에는 극장과 오디토리움, 서비스룸과 주차장이 들어가며 지상에는 로비와 갤러리, 레스토랑, 관리 공간들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Caixa Forum은 지상에 넓게 형성된 광장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의 거점이 되며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된다.

시애틀 차이나타운의 국제지구에 위치한 Wing Luke박물관은 커뮤니티 모임이나 이벤트를 위한 공간, 이웃들을 위한 공용 공간, 프레젠테이션이나 공연을 위한 극장, 지역예술과 미국 내 아시아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과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물이 원래 1910년에 중국, 일본 필리핀 이민자들을 위해 지어진 숙소와 사교센터였던 것과 건물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컨버전된 이후에도 건물의 용도가 여전히 이민자와 교포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컨버전 이전에는 소수의 이민자 집단을 위한 숙소 위주의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컨버전을 통해 각국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표어 아래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 지역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Wing Luke Asian Museum은 단순히 미술관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지역기반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국제지구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거점으로서 장소성을 갖는다.

류블랴냐 미술관은 축적된 유적과 현대미술작품 외에도 시립미술관으로서 시 역사관, 시민 참여형 예술 작품 등 시와 관련된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넓게 이전 컨버전을 통해 넓게 형성된 실내 로비와 중정 공간은 다양한 이벤트나 문화활동을 유치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실제로 미술관은 세미나, 포럼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예약제로 받고 있으며 4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또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위하여 요리, 댄스 교습과 같은 별도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방문객의 지역 체험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6] 이와 같이 실질적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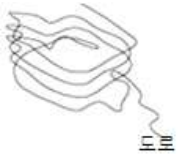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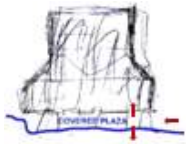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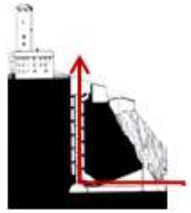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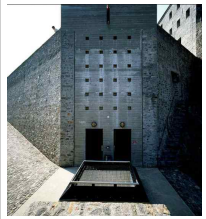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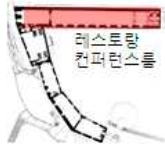
6) "There were additional programmes, which considered other parts of everyday life. For example, we had a cooking workshop, where we prepared some special Jewish

그램의 도입은 지역 미술관이 현대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관에는 지속적으로 외부인의 방문이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된다.

[그림 4-67]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중정과 로비

dishes, we had a dancing workshop where we danced in circles and people were able to write their name in Hebrew."
http://www.radio.cz/en/section/ice_special/ljubljana-city-museum-launches-series-of-exhibitions-on-world-religions

[표 4-3] 건물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식

	Tate Modern	Ljubljana City Museum	Wing Luke Asian Museum	Sammlung Boros Collection	National Sculpture Museum	CaixaForum	Castelgrand	다산쯔 798 Space
연결성		X	X		X			X
외 관 (형태. 입면)			 역사적 입면 보존		 역사적 입면 보존			
프 로 그 램		X		X	X			

X: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경우

제 5 장
컨버전된 현대 미술관의 장소 재구성

5.1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장소
5.2 지속가능한 변화의 장소
5.3 외부로 확장되는 도시적 장소

5.1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장소

오랜 시간을 견뎌온 건축물에 깃든 역사와 기억은 형태에 축적되며 인간은 건물의 물리적 요소를 통해 과거와 연결된다. 컨버전은 건물에 축적된 시간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건물의 구체적 요소들인 공간구성, 표면, 재료를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가 건물에 공존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또한 컨버전은 신축된 미술관에 시간의 차원을 적용하여 미술관 건축의 영역을 넓힌다. 시간적 특징을 갖는 미술관은 결과적으로 장소 특정적인 미술관의 정체성(identity)으로 이어지며, 방문자는 현재만이 존재하는 현대 미술관과 달리, 컨버전된 미술관에서 확장된 시간과 단 하나밖에 없는 일회적 장소를 경험한다.

내부 평면과 단면이 만들어내는 공간구성은 크게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분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전면적으로 바꾸는 경우로 나뉜다. 과거의 건축 양식이 갖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컨버전 이전의 용도가 특수한 공간적 특징을 가질 때에 공간은 그대로 사용된다. 테이트 모던과 다산쯔 798 예술구가 대표적인데, 테이트 모던 터빈홀의 동서방향으로 긴 엄청난 스케일의 공간은 신축 미술관이 구현하기 불가능한 것

[표 5-1]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공간구성의 활용

공간 구성	과거 빌딩타입의 유지	현대적 평면의 개입
예	-시대적 건축양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 -이전 용도에 의한 특수한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경우	-창고, 공장과 같은 거대 오픈 스페이스
효과	-갤러리의 예외적인 형태와 구성	-건물 내, 외부 시간성의 극단적 대비

으로 방문자를 압도한다. 또한 둥근 지붕의 동일한 매스가 반복되는 798 스페이스는 건물과 주변지역이 공장, 창고임을 강하게 표현한다.

현대적 평면이 개입하여 공간을 수정하는 경우는 주로 공장과 같이 공간의 구획이 필요한 대공간에서 일어난다. 이 경우 외피는 껍데기와 같이 사용되며 내부의 현대적 평면과 극단적 대비를 통해 시간을 부각시킨다.

면을 이용하여 시간은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보존이 가장 일반적이며 면의 중첩, 병치를 이용한 방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보존은 Boros 미술관과 798 스페이스에서 잘 나타난다. Boros 미술관 외벽의 총포자국은 전쟁을, 798 스페이스에서 혁명문구는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특정 사건을 통해 과거를 상징한다.

서로 다른 시대의 면을 중첩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유리의 사용이 두드

[표 5-2]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표면의 활용

표면	역사적 표면의 보존	다른 성질의 표면 사용	
		유리면 사용	형태가 다른 면의 중첩
예	-흔적이 과거의 특정 사건을 상징하는 경우 -새로운 벽과 대비를 이루는 양식, 질감에서 대비되는 경우	-면을 보존하면서 공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전망을 유입, 통합시킬 경우	-새로운 내벽이 추가되는 경우 -역사적인 면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효과	-특정 사건 회상 -과거와 현재의 복합적, 동시적 체험	-역사적 면과 현대적 면의 동시 경험 -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과거양식과 기하학적, 추상적인 면의 대비

러진다.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면을 가리지 않으면서 공간을 구분하고 역사적 면과 현대의 면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소수의 사례에서 유리의 반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면들을 서로 중첩, 혼합하여 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면은 장식이나 개구부의 형태와 같은 내부 디테일이나 외곽선을 통해 시대의 양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새로운 면을 오래된 면과 병치시키는 것은 자주 사용된다. 표면을 벗겨 내거나 면 사이에 틈을 두는 방식은 베니스 건축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의 특성에 의한 결과이지만 입면이 여러 층의 역사적 단계를 갖는 건물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틈을 두는 방식은 Cangrande 미술관에서도 사용되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재료는 크게 레이어링되거나 병치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재료가 나타내는 시간적 효과는 재료의 종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카스텔베키오와 같이 기존 건물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강하게 부각되어 미술관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Boros 미술관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재는 전후 시대의 기능적 건물이라는 특성을 강조하

[표 5-3]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재료의 활용

재료	역사적 재료 드러내기	현대적 상징성 발현	
		콘크리트	대비되는 재료
예	-건물의 역사성을 부각 또는 이용	-과거와 현재의 시각적 이질감 축소	-의도적 대비, 현대적 상징성을 부각
효과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일회적 경험	-가공성의 차이를 이용해 형태적으로 현대성을 동시에 표현	-시간의 연속, 현대적 계승의 가치 표현

여 장소 특정적인 성격을 형성한다.

콘크리트를 새로운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콘크리트는 근, 현대적 재료이지만 역사적 건축물의 재료, 대표적으로 석재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료와 시각적인 이질감이 가장 적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자유롭고 날카로운 형태는 오래된 재료와 확연히 구분되어 현대성을 동시에 발현한다. 따라서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는 극적인 대비나 이질감 없이 인지된다.

유리와 철과 같은 현대적 재료는 보통 추가적인 공간에 사용되어 의도적으로 두 시간을 대비시킨다. 현대적 재료는 모든 사례에서 다양한 정도로 사용되며, 위의 두 방법보다 현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 현대적 계승의 의미를 갖는다.

5.2 지속가능한 변화의 장소

컨버전에서 용도는 알도 로시와 헤르만 헤르츠버거가 언급하였듯이, 시간의 깊이와 그에 따른 형태해석의 변화에 관련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건축공간에 독립될 수 없으며 건축공간은 단순히 행위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 장소와 인간의 행위는 서로에 의해 변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축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영속성'을 갖는다. 또한 컨버전된 건물은 우리에게 '변형의 가능성',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든다.

전시배경과 전시공간은 작품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시배경의 처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부 갤러리에서 역사적인 벽은 현대 미술관과 같은 백색의 균질한 벽으로 마감되는데, 주로 기획전시가 이루어져 작품의 교체가 빠른 갤러리이거나 색채나 구성 등 시각적 특성이 중요한 현대미술작품을 수용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여기서 배경은 여러 작품에 적용되고 작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 특성이 삭제된다.

벽, 천장, 바닥의 일부분에 역사적 흔적을 남겨 현대적 전시배경과 역사

[표 5-4]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벽면의 변화

전시 배경	균질한 색과 질감을 갖는 벽	역사적 벽의 부분적 보존	역사적 벽의 원형 유지
예	-기획전시 -색채, 구성 위주의 현대미술	-조각 갤러리	-유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예술작품 -전위적 현대 예술
효과	-다양한 작품 수용가능 -작품의 독자적 특징 부각	-음영, 윤곽, 색감의 벽이 조각에 율동감 부여	-역사, 기억, 사건을 연상시킴

적 배경이 공존하거나 질감을 갖는 배경을 계획하는 경우는 주로 조각 작품을 다루는 갤러리에서 사용된다. 균질한 벽과 달리 다양한 음영과 윤곽, 또한 일부의 경우 색감은 조각 작품에 율동감을 더하며 역사적 요소까지 작품의 일부로 만들어 작품과 역사적 요소가 서로를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은 작품의 범위가 조각으로 한정되거나 상설전시일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역사적 모습을 유지한 벽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용되지만 두 경우 모두 작품의 해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첫째로, 유물이나 역사적 가치를 갖는 오래된 예술작품 전시에 활용된다. 일부 요소를 남기는 것과 달리, 면 전체는 역사, 기억, 사건 등을 회상시키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작품을 마치 그 당시에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두 번째는 현대미술에서 배경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래의 예술작품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보다는 열린 해석과 공간과 작품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작가들은 전시배경을 통해 작품이 창조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전위적인 예술작품들이 컨버전된 건축의 특수한 맥락을 활용

[표 5-5]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공간볼륨의 변화

공간 볼륨	과거의 구성 유지	공간의 볼륨 변화		
		벽, 바닥, 제거	매스 추가	공간분할
예	-특정한 과거나 용도 상징	-기존 건물의 동일평면 반복	-전시공간의 절대적 부족 -넓은 면적의 대규모 공간 필요	-내부공간이 너무 커 작품전시에 부적합
효과	-장소 특정적인 작품 해석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조	-두가지 빌딩타입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의 공간 창출 -공간의 형태가 작품해석에 영향을 줌	-대규모 작품의 넓은 전시 가능	-가변적인 공간구성 -자유로운 공간계획

하는 것이 보인다.

현대 미술관이 점점 더 다양한 장르와 스케일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전시 공간은 더욱 중요해졌다. 상설전, 기획전의 구분 없이 다양한 규모의 공간이 요구되며, 상설전의 경우 공간은 특정 작품에 적절하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다. 또한 카스텔베키오의 사첼로와 같이, 상설전에서는 전시공간과 배경이 함께 계획되어 독자적인 '방'을 형성한다.

채광 계획은 기존 건물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되며, 일부 경우에 작품의 성격에 따른 특수한 방법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사례가 채광을 위해 천창을 만들거나 매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회화를 포함한 일반적인 작품이나 기획전에서는 천장과 함께 인공조명으로 채광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상설 전시되는 조각이나 류블랴냐에서와 같은 넓은 범위의 유적의 경우에 자연 채광을 위한 특징적인 건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채광을 위한 건축적 수법은 다양한 종류의 조각을 상설 전시하는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작품 하나하나를 위한 개별적인 채광계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5-6]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에서 전시채광을 위한 변화

전시 채광	벽, 바닥 제거	천창설치
예	-폐쇄적인 벽 -북향 -저층부	-벽의 파괴가 어려운 경우
효과	-빛의 방향성 설정 -주변환경을 배경으로 유입	-전체공간에 은은한 빛 제공

5.3 외부로 확장되는 도시적 장소

여태까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컨버전된 현대 미술관이 그 특수성을 이용하여 도시로 확장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은 현대 미술관의 새로운 목표인 지역적 거점이 되기 위한 충분한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카스텔베키오와 같이 경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연결성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독자적인 장소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컨버전 이후, 독립적으로 서있던 건물은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동선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도시의 이동의 거점이 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건물 주변의 광장화, 외부 동선을 받아주는 입구와 미술관으로의 직접적 연결동선 계획을 들 수 있다.

전시 외 프로그램의 삽입은 미술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의 장소가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소수의 대형 미술관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수많은 소규모 미술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술관은 이제 작품 전시만이 아닌 지역적, 도시적 차원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여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미술관은 여러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케일과 흥미를 유발

[표 5-7] 현대 미술관 컨버전의 경계 확장

경계	외관변화	광역적 연결계획	복합 프로그램 삽입
방식	-매스 추가 -현대적 입면재료 사용	-외부의 광장화 -도시적 차원의 동선계획	-일회적 이벤트 개최 -지역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
효과	-시각적 경계 확장	-도시적 거점으로서 물리적 영역의 확장	-역사, 기억, 사건을 연상시키는 체험 공간 - 지속가능한 미술관

하는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생겼다. 앞선 사례들에서 미술관은 컨버전된 건물만이 갖는 공간에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유치하여 문화, 예술 활동의 장소가 된다.

제 6 장

결 론

컨버전된 미술관은 신축된 미술관과 달리 과거 건물의 시간을 연속시키고, 특수한 전시환경을 제공하며, 도시적 차원의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을 통해 현대 미술관의 컨버전을 분석한 결과, 두 미술관이 작업의 기본적 틀은 공유하지만 그 구체적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이는 현대와 와서 미술관이 다루는 작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작품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술관 스스로가 장소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대 미술관들은 단순히 시대적 요소들을 남기거나 병치시키는 소극적 방법뿐만 아니라 요소들을 중첩, 반사시켜 시대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재료를 상반된 감촉성을 유발하면서도 장소감과 연관되어 현대성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벽의 역사적 요소를 남겨두는 방식의 작품의 해석과 공간의 특이성에 영향을 미쳐 전시배경, 장소감과 연결된다.

미술관의 환경은 작품의 종류와 전시기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예전보다 작품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공간은 배경과 함께 계획되어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낸다. 작품의 창조적 해석을 초점을 둔 전위 예술의 전시도 활성화되면서 시간의 흔적을 남겨둔 벽은 이제 역사적 작품을 포함한 더 넓은 장르의 예술에서 이용된다.

미술관의 수가 많아지면서 대형 미술관은 예술의 제공의 다음 단계로 도시적 목표를 갖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미술관들은 지역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복합하게된다. 더 이상 미술관은 전시 용도 하나만을 두지 않으며 그 자신의 의미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외부로 영향력을 뻗어나간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미리, 최보윤,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알에이치코리아, 2010
도쿄대학 sSUR-SSD 연구회, 살고 싶은 도시 100, 21세기북스, 2012
맹다미,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유하니 팔라스마, 김훈 역, 건축과 감각, Spacetime, 2012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Albertini, Bianca and Bagnoli, Alessandro Carlo Scarpa : architecture in details, MIT Press, 1988
Brand, Stewart, How buildings learn : what happens after they're built, Penguin Books, 1994
C. Norberg Schulz, 김광현 역, 實存·空間·建築, 태림문화사, 2002
Charles Bloszies, Old Buildings, New Design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Christian Schittich, In Detail: Building in Existing Fabric, Birkhäuser Architecture, 2003
Mildred Friedman, Carlo Scarpa: Intervening with History, The Monacelli Press, 1999
Mohsen Mostafavi and David Leatherbarrow, On Weathering: The Life of Buildings in Time, MIT Press, 1993
Joshua David and Robert Hammond, High Line: the inside story of New York City's park in the sky, FSG Originals, 2011
Joshua David, Reclaiming the High Line,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2002
Kevin Lynch, What Time is this Place?, MIT Press, 1972
Kenneth Powell, Architecture reborn : converting old uildings for new uses, New York : Rizzoli, 1999
Kenneth Powell, City reborn : architecture and regeneration in London, from Bankside to Dulwich, London ; New York : Merrell, c2004
L.Feireiss and R.Klanten, Build On: Converted Architecture and Transformed Buildings, Gestalten, 2009
Pierre Thiebaut, Old Buildings Looking for New Use, Menges, 2007
Rene Heijne, Jasper van Zwol, eds. Bernard Leupen, Time-based Architecture, 010, 2005
Richard Murphy, Carlo Scarpa and the Castelvecchio, Butterworth Architecture, 1990

Sandu publishing, TRANSFORMER: Reuse, Renewal, and Renovation in Contemporary Architecutre, Gingko Press, 2010
S.E.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MIT Press, 1962
Sherban Cantacuzino, Re-architecture: old buildings/new uses, Abbeville Press, 1989
Tamara Rogic, Converted industrial Buildings: Where Past and Present Live in Formal Unity, TU Delft, 2009
Van Chris Uffelen, Re-Use Architecture, Braun Publish, 2010

학위논문

김민철, 현대 도시 내 일상의 장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김정훈, 카를로 스카르파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에 나타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노정은, 건축공간의 재생, 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8
문경진, 유휴 산업시설 컨버전의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0
이은경, 렘 콜하스와 베르나르 츄미 건축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1
Dana Ozik, Reinvention Through Reuse: Strategies for the Adaptive Reuse of Large-Scale Buildings, Columbia Univ, Thesis (M. Arch.), 2001
A Design Stragegy for Transforming an Old Power Plant into a Cultural Center, Lehigh Univ, Thesis (M. Arch.), 2002
Heather Farrell Lipp, Strategies between Old and New: Adaptive Use of an Industrial Building, University of Cincinnati, Thesis (M. Arch.), 2008
Thesis (M. Arch.)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김광현, 溯行으로서의 廢墟, 이상건축, 1996
김광현, 건축과 장소, 이상건축, 9811
김태만, 798예술촌, 도시의 흔적과 기억의 공간, 현대중국연구 13권 2호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봉일범, 미트패킹으로부터의 교훈, 建築 第53卷 第2號, 2009.2
윤난지, “성전과 백화점 사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관”, 전시의 담론, 눈빛, 2002
최종덕, 역사적 건축물 보존의 여러 방식, 대한건축학회지, 2005. 12
Dialogue_아트팩토리, 도시계획 전체를 반성하는 기회: 박신의, 구영임, 김윤환, SPACE

2009:9
Dialogue_재활성, 허상과 형식의 끈을 놓다,: 김세용, 박소현, SPACE 2009:01, pp82-89
지붕 떼낸 교회가 집합주택으로… 헌 건물, 새 용도로 부활하다: 네덜란드 건축가 한스 반 빅의 '재사용 건축론', 한국일보, 2013.09.30
Albena Yaneva, How Buildings 'Surprise': The Renovation of the Alte Aula in Vienna, Science&Technology Studies, Vol21/2008, No1
JA, Issue No.65, spring, 2007
a+u, "The Adaptive Reuse of the Gasholder Buildings in Vienna", 380 May 2002,
a+u, May Special Issue, 2010
a+u, 408 sep 2004
El Croquis, 152/153: 2005 2010 Herzog & de Meuron 2010
Montgomery, John, "Making a City: Urbanity, Vitality and Urban Design", Journal of Urban Design Sep-Dec, 1998
SEAN WEISS, Specters of Industry: Adaptive Reuse in Paris as Industrial Patrimony,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 63 Issue 1

웹사이트

www.thehighline.org
www.meatpacking-district.com
www.dezeen.com
www.archdaily.com
www.798art.org
www.mgml.si/en
http://en.landschaftspark.de/the-park
www.rpbw.com
www.tschumi.com

Abstract

A Study on Configurating the Place in Converted Contemporary Museums

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Hong, Jung Hee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owth and expansion-oriented urban development have improved modern cities quantitatively and functionally. This development is based on a new construction and demolition, and conducive to provide physical environment over certain level. As a result,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 urban environment has been met, and pursuing the quality of the city, a new growth potential, is required to improve it the city continually.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means that of the environment in which human live. Therefore, the urban environment which interact and build relationship with human becomes importan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is achieved through the place. Personal

experience, cultural significance, and common values are accumulated in places, so every place is concrete and physical background that connects us to the outside world. Therefore, the place is always connected with the time, and a single point that forms meaning over time.

Conversion of disused buildings is one of the architectural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odern city. Conversion shows and locates the time and the space of human through architecture and forms individual and collective focuses in a contemporary city. Buildings around the city used in various way over time gain new meaning and values, make the depth of time and provide places with which people build relationship by conversion.

In this thesis, contemporary museums are selected as the object of study to analyze the methods architecture uses to make place and the effect of them more specifically. In addition, this thesis analyzes both converted museums in the past and present to find out common methods and goals, and new trend and the effect. This will suggest architectural method how conversion makes places in a contemporary city and the potential of it more efficiently.

.....

key words : conversion, adaptive reuse, museum, place, time, use
student number : 2012-20570